

2016년도 제20차 정기(제21차) 총회

2016년도
제 20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 21차 총회)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19:00~21:00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열린마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6년도 제20차 정기(제21차) 총회

2016년도
제 20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 21차 총회)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19:00~21:00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열린마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00 ~ 오후 7:00)

II부 본 회의 (오후 7:00 ~ 오후 9:00)

1. 개회선언
2. 서기임명
3. 성수보고
4. 회순채택
5. 전차회의록 낭독
6. 2015년 감사보고
7. 2015년 사업보고와 승인
8. 2015년 결산보고와 승인
9. 임원 선출 및 승인
10. 2016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1. 2016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2. 기타토의
13. 모범 회원상 수여
14. 회의록 받음
15. 폐회

**제19차 정기(제20차) 총회
회의록**



제19차 정기(제20차)총회 회의록

□ 서기: 김정아, 이덕경

1. 일시: 2015년 1월 29일(목) 19:00 ~ 21:20

2.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3. 주요내용

1) 개회선언: 여혜숙 의장이 오후 7시 10분 개회 선언을 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한다.

2) 서기 임명: 김정아, 이덕경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한다.

3) 성수보고: 김지호 총무가 재직회원 48명 중 참석 21명, 위임 18명, 총 3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여혜숙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 되었음을 선언한다.

4) 회순채택: 여혜숙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고,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한다.

7) 전사회회의록 낭독: 김정아 회원이 요지를 낭독한다. 감사보고에서 윤수경 감사가 대표보고하고, 그대로 받기로 하다가 윤수경 감사가 대표보고하라고 바꾸어야 함을 여혜숙 의장이 말하고 이를 수정하여 남기기로 한다.

8) 감사보고: 윤수경 감사가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대표보고한다.

9) 2014년 사업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 총회 자료집 17쪽에서 125쪽을 토대로 최민정, 명희 회원이 영상자료로 요약보고한다.

윤수경 회원이 유엔안보리 결의 1325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조영희 회원이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라는 설명을 하고, 박수선 회원이 회의록 작성시 처음엔 전체 명칭을 쓰고 이후 약칭으로 쓰기를 제안한다. 여혜숙 의장이 박수선 회원의 의견을 받고 1325의 대중적 실천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정리한다.

윤경원 회원이 평화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하자 김선혜 회원이 학교내에서 토래조정을 하기로 한 것이 제도화이며 그 성과는 토래조정

을 일리는 것. 갈등이 있을 때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학로 문제를 하려한 것이라고 답하다. 현재는 위로부터의 시범학교 정책은 학교선생님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많고 담당교사가 자주 바뀌어 지속적 이행의 어려움이 많다고 답하다.

김정수 위원이 나라사랑교육법,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 교과서나 교육과정, 예산, 전달체계 등이 있어야 제도화라 칭할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하고, 갈등해결센터도 갈등해결교육지원법 등을 제정토록 그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만들어가기를 제안하다. 정현백 회원은 서울시 조례로 통과된 민주시민교육에 환경, 평화, 인권, 생명 등이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화여성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제안하다.

2014년 사업보고에 대해 김정수 회원 동의, 안김정애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10) 2014년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 별도 자료를 토대로 김지호 총무가 결산보고하다. 회계용어를 정확하게 쓰기를 조영희 회원이 요청하여 이를 받기로 하고 김영진 회원 동의, 유은주 회원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11) 임원 선출안

: 박수선 회원이 김정수 회원을 임시의장으로 추천, 모두 동의하여 임시의장으로 김정수회원을 선출하다.

김정수 임시의장의 주재로 회의진행하다. 조영희 인선위원회 위원장이 인선위원회 활동과 총회 자료집 129쪽과 같이 임원 인선안을 보고하고 신임대표로 인선된 안김정애 회원에 대한 소개를 하다. 안김정애 회원이 대표후보의 변을, 김선혜 갈등해결센터 소장후보의 변을 들은 후, 인선안대로 모두 기립 박수로 동의를 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여혜숙 전 상임대표와 안김정애 신임대표, 김선혜 갈등해결센터 소장이 인사말을 하다.

12) 2015년 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건

: 안김정애 대표가 총회 자료집 133쪽부터 142쪽을 토대로 2015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김선혜 갈등해결센터소장이 총회 자료집 139쪽부터 141쪽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김정수 한국여성명화연구원 원장이 총회 자료집 141쪽부터

142쪽을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조영희 회원이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 사업을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 하려면 본회 사업에도 계획안이 나와야하지 않은지 질문하고 안김정에 대표가 향후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계획임을 알린다. 정현백 회원이 창립 20주년 준비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본 회 사업에 넣자는 수정제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안을 받기를 박수선회원이 동의하고 전상희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있었던 여성 평화통일포럼의 명칭을 정현백회원이 정확히 확인한 후 계승 진행하기로 하다.

13) 2015년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김지호 총무가 별도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을 보고하다. 여혜숙 회원이 갈등해결센터의 사업에 있는 회복적 정의 책자 발간이 예산에 없는지 질문하고 조영희 회원이 사업과 예산을 동일하게 다루어주기를 요청하고, 이어 갈등해결센터의 교재교구비와 여성평화연구원의 자료제작비 항목 내역을 자세히 기입하여 사업비와 혼용되지 않기를 제안하다.

정현백 회원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다.

박수선 회원이 목적사업비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혜숙 회원이, 프로젝트 자부담은 목적사업비에 모두 넣기로 하였음을 설명하고, 운영이사회 때 목적사업비의 명칭 등 대해 다루기로 하다.

2015 예산안은 전상희 동의, 김진희 재청,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135쪽 권침옥. 이은선이 이사명단에서 제외하고, 이사로 안김정애를 포함하여 수정하기로 하다.

11) 각종 회원상 : 김진희 회원(항상), 유은주 회원(무조건상)에게 회원상을 수여하다.

12) 회의록 발송 : 여혜숙 대표가 회의록을 본회 1차 운영이사회에 검토하기를 전제로 박수선이 동의, 김영진이 재청하고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13) 폐회 :안김정에 의장이 오후 9시 40분 폐회를 선언하다.

2015년 감사 보고



2015년 평화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1.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 프로젝트에서 본단의 대표적인 피해여성인 기지촌여성과 한국전쟁기 민간인집단학살사건 생존 여성, 70-80년대 여성 노동자, 여성 월남민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DMZ를 중단한 WCD행사와 다카수 나오미 초청 행사 및 38여성대회시 걸기 행사는 한반도 평화조성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여성이 중심이 된 평화운동의 활동과 역할을 알리고 더불어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2. 그리고 평화여성회는 2015년에도 여전히 부족한 인적, 물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연대협력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꾸준한 온라인 소식지 발송과 페이스북 활용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사업과 회원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 평화커뮤니티 운동 등 여러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3. 갈등해결센터는 작년에 이어 회원월례마당, 강독모임과 평강공주모임 등 회원역량강화활동을 하였으며, 또래조정 교육,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청소년평화감수성 프로그램 등 학교평화커뮤니티 사업과,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평화커뮤니티 사업, 학부모와 교사 교육, 조정자 과정의 교육 훈련을 통해 개인, 가정, 지역에서의 평화 형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수원과 고양교육지원청의 학폭 위원을 대상으로 회복적정의 피가해 대화모임 진행자 훈련을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나주와 광양지역에서도 같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내 학폭위원들이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좋은 성과라고 평가됩니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회원책읽기/대화모퉁이 모임에 여성과 군사주의를 오래 연구해온 김엘리 전 공동대표를 초대하여 군사주의와 여성주의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화여성회에서의 군사주의와 평화, 여성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좋은 성과라고 평가됩니다.

4. 2015년 평화여성회는 전반적으로 사업기초와 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많은 사업과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제한된 역량을 적절한 선택과 집중으로 맡찬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 1. 20.

감사 배 상 희 (인) 

감사 윤 수 경 (인) 

2015년 평화여성회 회계감사 보고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귀중

2015년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회계감사는 본회를 비롯,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월별 수지결산서, 금전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와 그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통장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2015년 예산액은 164,745,000원이며, 결산액은 197,304,103원으로서 예산대비 결산비율은 119.76%입니다. 이는 예산책정 후 분회 2건, 갈등해결센터 3건의 특별회계(프로젝트)가 발생한 데 연유합니다.
2. 평화여성회 2015년 수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총 수입	총 지출	이월금
본 회	일반회계	76,561,821	75,904,005	759,880
	특별회계	18,042,170	18,042,170	
	소 계	94,603,991	93,946,175	
부설 갈등해결센터	일반회계	70,560,465	68,331,428	2,417,810
	특별회계	34,426,500	34,426,500	
	소 계	104,986,965	102,757,92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600,590	600,000	538,002
합 계		200,191,546	197,304,103	3,715,692

3. 본 회의 경우, 총액대비 지출 비율은 사업비 35.1%, 운영비 56.4%이며,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사업비 50.7%, 운영비 43.8%입니다. 이는 사무국 운영이 매우 절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국 활동가들의 복지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4. 2016년 평화여성회 재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차 제안합니다.

4-1. 사업영역을 다양화, 현실화, 구체화하여 회원증가와 후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거대담론보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주제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4-2. 회원, 이사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밀착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 홍보 및 회원 가입 권유가 필요합니다.

4-3.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언어, 미디어, 대중매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인식시키는 운동을 관련단체와 연대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4-4. 재정규모가 작고 활동가의 손이 아쉬운 현 상태에서 회계정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회계장부를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2016년 1월 21일

감사 윤 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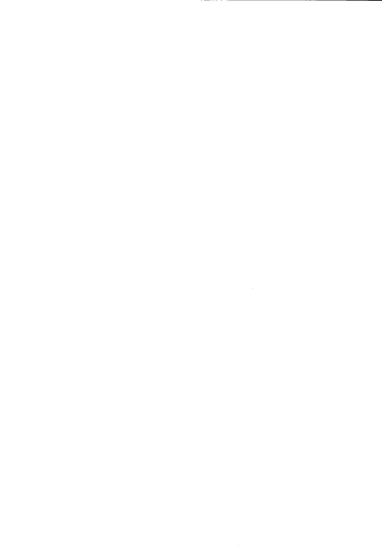
감사 배 삼 희



2015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15년 사업 총평

II. 2015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15년 사업 총평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 6.25전쟁 발발 65주년과 정전체제 성립 62주년이 되는 해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으며, 이는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분할, 즉 38선 분할로 이어지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 실패, 남북 단절 수립, 6.25전쟁 발발(국제전으로서의 한반도 전쟁), 정전협정 체결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를 통해 한반도 현대사는 현재까지도 '분단사'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분단체제의 지속으로 한반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고통받아 왔는데, 여성이 더 이상 피해자로서가 아닌 당당한 분쟁해결자/조정자의 위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평화여성회의 목표이다.

2015년은 세계적으로 시리아 내전의 연속, 파리 테러 등 전쟁과 테러, 갈등이 참예하게 드러난 한 해였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불안정하였다. 미국은 2012년 오바마 정부의 '신국방전략 지침,' 즉 아시아태평양 재군형정책 수립 이후 이를 통해 '군사굴기'를 표방하는 중국의 군사정책에 대한 견제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에게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해소를 위해 군사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평화헌법 9조에 역행하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부상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보법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통한 양국간 패권 다툼에 한반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북강경론에 기반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체계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한층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 유사시 증원되는 미해병대 훈련횟수와 증원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미사일방어체계(M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방위비 증액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각서를 체결하여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의 긴장은 높아지게 되었다. 일본은 안보법제 통과로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복측 반발과 통일준비위원회의 '흡수통일론' 발언으로 남북교류는 여전히 냉각 상태이다. 또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압 추진, 노동개혁 추진, 시위대에 대한 불법적 탄압, '위안부' 문제 출속 타결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는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여성회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한 기초대로 2015년 총회에서 세웠던 사업 기초의 세 가지 방향을 토대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여성의 목소리 경험 드러내기

평화여성회는 여성재단 프로젝트인 '여성,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말한다: 드러나지 않은 여성 분단 경험 역사 듣기, 말하기'를 통해 한국현대사에서 늘 배제되고 무시되어 왔던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듣고 공감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단과 전쟁, 산업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역사적인 성차별적 관행과 역사기록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본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피해여성, 즉 기지촌여성과 한국전쟁기 민간인집단학살사건 생존 여성, 70-80년대 여성 노동자, 여성 월남민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행되었으며, 대체로 기본 목표에 부합하였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는 소위 '현실주의' 논리에 의해 여성은 주요 정책 결정층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남성이 주축이 되어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통일론의 왜곡, 독재정권 등의 현대사에서 늘 피해자로 살아야 했고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항상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 남성들의 목소리만이 영웅담으로 기록되는 한반도 현대사는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하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와 영상 작업, 녹취록 만들기,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 팸스 미디어를 활용한 언론홍보와 기사화, 여론화 작업 등을 추진하였다.

2)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시도와 성사

평화여성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분단 70년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여성교류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순탄치 않은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북여성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제 국면에 있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에서 계획했던 5·24에 즈음한 남북여성대표자회의(5/23-5/25, 금강산)가 통일부의 번대로 불허되었고, 분단 70주년을 극복하고자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고자 추진되었던 6·15민족공동행사와 8·15 행사도 무산되어 이 때 치르려 했던 여성부문 상봉도 무산되었다.

평화여성회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정부청사 앞에서 615행사 승인과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여 '만나야 통일이다'를 구호로 외치면서, 정부에 민간인교류 허용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8월에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으로 인한 긴장과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8·25 합의를 이끌어내 민간인 교류활성화를 합의한 바 있으나, 12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국자 회담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는 와중에, 그나마 연말 즈음에 성사된 남북여성교류(12/23. 개성)는 10년간 중단되었던 남북여성상봉을 다시 재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남북여성교류는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꾸준한 만남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교류의 상설화와 제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상회의 평화로는 관계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역설적이지만 민간인교류의 진폭적인 허용이 이를 촉진시킬 수 있고, 잘만 진행된다면 선순환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연안보리결의 (UNSCR) 1325호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 모색

UNSCR 1325호(이하 1325)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협력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회 등에서의 세미나 개최,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네트워크 구성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평화여성회는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연, 이대아시아여성학센터, 서울 YWCA 등과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 정부가 2014년 5월 23일에 유엔에 제출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연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에 대해, 평화여성회를 비롯한 1325 네트워크는 이 국가행동계획이 이행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시간표, 정확한 목표, 예산 등이 부재하여 이행평가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1325 의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자문하는 역할을 넘어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여성평화안보의제를 격상시키고 국내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거버넌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연 제출 1주년인 2015년 5월 28일, 그동안 요구했던 인권 거버넌스가 배제된 채 '전문가 자문'그룹 자격으로 소수가 초청되어 형식상의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325 채택 15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여성회 등 기존의 1325 정책화 토론회 중심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국회에서 학생, 국회의원, 시민사회

단체 등 많은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에서의 국가행동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점검을 위한 거버넌스 필요성 주장, 그리고 결의문 채택 등 성과로 꼽을 수 있다.

4) 한반도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연대활동 모색

평화여성회는 5·24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국제여성평화결기(2015Women Cross DMZ/WCD)에 한국측 실행위원단체로 참여하였으며, 이 행사에서 국제평화회의를 주관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여성평화결기 행사는 본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중단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려 내고, 이산가족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해외 12개국의 30여 명의 국제평화주의 여성들이 추축이 된 이 행사는 평화여성회를 비롯한 국내여성단체들이 한국WCD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쪽 DMZ결기와 국제여성평화회의 등을 주관함으로써 연대를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평화여성회는 8월 12일, 국회에서 친선미 의원실과의 공동주관으로 다카슈 노미와키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군국주의화하고 있는 일본 문제, 안보법제의 부당성 등을 공동논의하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동북아평화문제를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2월 7일-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Women Peacemakers Program 회의에 대표가 참석하여 '젠더와 군사주의 문제'를 주제로 인도, 인도네시아, 네덜, 필리핀 등에서 모인 여성평화운동가들과 각국의 식민주의, 군사주의의 문제를 토론하고 공유하였으며, 평화여성회가 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주의 극복 활동과 평화통일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아시아 여성평화운동의 연대 구성과 각국 상황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5)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통한 문제해결역량 키우기

2015년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이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외부 위탁 교육이 양적으로 늘어나기도 하였고, '청소년 평화교육진행자를 위한 활동배우기', '회복적정의 피·가해 대화모임 진행자 심화워크숍' 등은 조직의 기존 현장 경험을 체계화하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마포지역에서 청소년기관과 함께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 지역의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연결하는 평화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적정의 피·가해 대화모임 진행자 양성 훈련,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진행자 양성과정을 5개 권역에서 실시해 지역의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영향을 받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회복적 정의 실천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마을의 대화모임 진행사를 양성하고, 대화모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독모임, 월례강좌, 갈등해결 이론 심화과정을 개설해 활동주체들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2. 회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평화여성회는 후원행사 준비위원회 등에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하여 본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여성평화수다방'을 진행하여 평화여성회 내에 20대 젊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여성활동가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여성-평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회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평화를 연결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갈등해결센터는 '강독모임', '평강공주모임', '교재개발모임', 송년회 등을 회원들의 필요의 요구에 따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3. 여성의 입상의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를 발굴한다.

평화여성회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평화 대행진, 세계군축행동의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GDAMS) 행사 참여,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2015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AD EX) 반대 참여 등 국내외 반전/반군사주의 운동의 국내외 연대활동을 펼쳤으며, 이는 여성주의와 군사주의의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ADEX의 경우, 외국 참가자들과의 경험 나누기와 반전평화운동 시 행동 지침 실습 등을 통해 경험을 넓힐 수 있었고, 군사비 지출과 군산복합체의 실재, 각국의 군사주의 문제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좀 더 풀뿌리 차원의 대중적 반전/반군사주의 캠페인과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군사주의는 어떻게 떠선이 되었을까」의 역자를 초대하여 여성주의와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군사주의와 평화, 여성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II.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 의

1-1. 총회

-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2015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 2015년 1월 29일(목) 19: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성원보고: 재적회원 51명 중 참석 24명, 위임 17명, 총 41명
- 주요 내용: 2014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변경, 안김정애 상임대표 선출, 모범회원상 수여 등
- 가. 서기 임명: 김정아, 이덕경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함.
- 나. 감사보고: 윤수경 감사가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대표보고함.
- 다. 2014년 사업보고와 승인: 최민정, 명희 활동가가 명상자료를 요약 보고함. 정현백 이사과 박수선 회원이 고유명사로서의 개념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명칭을 쓰고 이후 서술시 약칭으로 쓰기를 제안함. 여혜숙 의장이 의견을 받고 2014년 사업보고에 대해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함
- 라. 2014년 결산보고 및 승인: 김지호 총무가 결산보고하고 조영희 회원으로부터 회계용어를 정확히 쓰기를 제인 받음,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함.
- 마. 임원 선출: 안김정애 상임대표 선출, 김선혜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연임됨.
- 바. 2015년 사업계획 및 승인: 창립 20주년 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을 본회 사업으로 넣는 수정제안을 받는 것으로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함.

사. 2014년 예산안 승인: 김지호 총무가 예산안을 보고하고, 사업과 예산을 동일하게 다루며, 교재교구비와 자료제작비 등의 항목 내역을 자세히 기입하여 사업비와 혼용되지 않기를 제안함.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함.

이. 각종 회원상: 김진희 회원(항상), 유은주 회원(무조건상)

- 평가: 재밌고 혼돈한 분위기였으나 회의가 길어졌다는 의견과 총회에서 각 구성원들이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점이 좋았다는 회원의 평가를 전해 들었다. 예약한 식사 장소에 난방이 되지 않아 장소를 당일 변경하는 등의 불편함을 실무진이 좀 더 세세히 준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무자의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 총회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다.

(2) 2016년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 역할: 정기총회 준비, 설치·운영 기간 중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대행
- 구성: 안김정애(상임대표), 김선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정수(부설 여성평화연구소장), 김지호(총무국장), 박유희(이사), 여혜숙(이사), 정경연(국제협력위원장) 총7명
- 내용:
 - 가. 1차: 11/5(목) 18:00. 10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11·12월 사업계획 검토, 총준위원 보강건, 총회준비위원회 차시별 논의 안건 및 일정 수립, 총준위 기록자 및 진행규칙 검토, 제 규정 정경, 인선위원회의 구성 건.
 - 나. 2차: 12/17(목) 18:00. 11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12-1월 사업계획 검토, 2015년 사업 보고 및 평가 검토, 2016년 사업 개발 논의, UN1325 네트워크 건, 운영비 집행관련 등.
 - 다. 3차: 1/7(목) 18:00. 2015년 사업 총평안 검토, 2016년 사업기조·방향 초안검토, 2016년 사업계획안 검토, 2015년 결산(안) 검토·2016년 예정도, 총회 순서 및 안건 검토, 이사회 준비, 인선과 조직관련 건 등.

1-2. 이사회

1) 역할: 본회의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박현선, 안김정애, 여혜숙, 이나영, 정현백, 조영희, 한정숙(존칭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1차 이사회

- 일시: 2015년 1월 21일(수) 12:30~14:00
- 장소: 신촌 동강참치
- 참석: 김성온(이사장), 김선혜, 김지영, 박유희, 박현선, 여혜숙, 이나영, 정현백
- 배석: 안김정애, 최민정
- 내용: 2014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예산정경, 총회순서 등

(2) 긴급 이사회

- 일시: 2015년 6월 3일(수) 18:00 ~ 20: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김성온(이사장), 김선혜, 김정수, 박유희, 안김정애, 여혜숙, 정현백
- 배석: 김지호, 류지연
- 내용: 2015 WomenCrossDMZ 국제여성명화회의 경과보고, 평가, 결산보고 등

(3) 2차 이사회

- 일시: 2015년 10월 2일(금) 18:00 ~ 20: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본회 사무실
- 참석: 김성온(이사장), 김선혜, 김지영, 박현선, 안김정애, 여혜숙
- 배석: 김지호, 류지연
- 내용: 2015년 1~9월 사업 및 결산 보고, 10~12월 사업계획 및 추경예산안 검토, 2015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일정 수립 등

i-3. 운영이사회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대체하는 임시기구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김성온(이사장)
- 위원: 김선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정수(부설 한국여성명화연구원 원장).

박유희(본 회 이사), 안김정애(상임대표), 여혜숙(본회 이사)

- 배석: 김지호(총무국장), 류지연(서기)

3) 사업내용

- (1) 제1차: 2/4(수). 1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2015년 운영이사회 운영방식 논의건, 총회 위임 사안/총회회의록 검토 논의(목적사업비 명칭 및 내역 적시 등 수정보완 건, 평화 여성회 2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정기총회 평가, 2-3월 사업계획 검토 건, 기타(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인권센터와의 협조/진행 건, 행정자치부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관한 건, 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2) 제2차: 3/11(수). 2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3-4월 사업계획 검토, 평화 여성회 2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3) 제3차: 4/8(수). 3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4-5월 사업계획 검토, 2015 WomenCrossDMZ 조직위 정식 창기의 건.
- (4) 제4차: 5/13(수). 4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5-6월 사업계획 검토, 2015 WomenCross DMZ 국제여성평화회의의 계획의 건
- (5) 제5차: 7/8(수). 5-6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7-8월 사업계획 검토, 2015년 상반기 사업평가 건, 2015 평화여성회 후원행사 건, 갈등해결센터 교부금 지급 기준 변경의 건, 2015 하반기 운영이사의 일정 정하기, 통일뉴스 기고건 등.
- (6) 제6차: 9/2(수). 7-8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9-10월 사업계획 검토, 2015 평화여성회 후원행사 건,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UN안보리 결의 1325호 발표 15주년 기념 세미나 제안의 건, 대통령 방미 기간 남-해의 여성평화선언 제안의 건.
- (7) 10, 11, 12월은 이사회, 총회준비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함

4) 평가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 2015년에 임시적으로 운영했던 운영이사회는 해지하고, 2016년부터는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하다.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본회 사업진행에 필요한 시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2) 구성: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안김정애(상임대표), 김지호(총무국장), 류지연(활동가)

3) 내용: 주 1회 시행

4) 평가

- 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여, 일정공유와 진행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조직 내의 진행일정 파악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하였다.

2. 법인.행정

2-1. 감사

1) 역할: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2) 구성: 사업감사 (배삼희 변호사), 회계감사 (윤수경 전 공동대표)

3) 결과: 감사보고서 참조

2-2. 법인, 행정, 사무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통일부 법인 업무

(1) 통일부 단체운영현황 제출

- 일시: 2015년 2월 17일

- 내용: 2014년도 평화여성회 법인운영현황 전체를 문서로 보고(2014년 사업내용, 결산, 임원 현황, 2015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

(2) 개인정보 자율정경표 제출

- 일시: 2015년 6월 18일

- 제출처 : 통일부

3) 법인 세무 업무

- (1) 2014년 기부금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 일시: 2015년 1월 5일(월)
- (2) 2014년 원천세 내역 신고 및 납부
 - 일시: 2015년 1월 7일, 2015년 2월 6일 납부
 - 납부처: 국세청
- (3) 2014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 일시: 2015년 2월 6일(금)
 - 신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수액 적용기간: 2015년 4월 ~ 2016년 3월
- (4)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일시: 2015년 2월 6일(금)
 -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 그 외는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과 동일
- (5) 2015년 국민연금보험료 계속지원 사업장 여부 통부
 - 일시: 2015년 2월 6일(금)
 - 내용: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월 135만원 미만(2015년 월140만원)의 근로자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
- (6) 4대보험 자격상실 신청
 - 일시: 2015년 4월 7일(화)
 - 내용: 최민정부장 3월31일자 사직에 따른 4대 보험자격 상실신고
- (7) 2014년 기부금 내역서 신고
 - 일시: 2015년 6월 22일(월)
 -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
- (8)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통보
 - 일시: 2015년 6월 2일(화)
 - 대상: 유지연 활동가
 - 내용: 2014년 12월~ 2015년 5월말 계약직 근무(6개월)후 정규직 채용 확인
- (10)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 일시: 2015년 8월 13일(목)
 -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
 - 내용: 이주원 활동가 2015. 7. 31일자 사직
- (11) 2014년도 기부금 내역서 제출

- 일시: 2015년 8월 28일(금)
- 제출처: 영등포세무서
- (12)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신청
 - 업체: 벤처기업협회
 - 기간: 2014년 12월~ 2015년 5월 (6개월간)
- (13)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 일시: 2015년 11월 5일(목)
 -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
 - 내용: 명희 부장 2015. 10. 31일자 사직
- (14)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 일시: 2015년 11월 5일(목)
 -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
 - 내용: 성연진 활동가 2015. 10. 26일자 채용

2) 인사 업무

- (1) 최민정부장 사직
 - 근무기간: 2012년 2월 21일 ~ 2015년 3월 31일 (3년 1개월)
 - 지급: 2015년 4월 14일(화)
- (2) 이주원 활동가 사직
 - 근무기간: 2013년 2월 1일 ~ 2015년 7월 31일 (2년 5개월)
 - 지급: 2015년 9월 22일 (9/11. 반상근 근무하여 9월22일에 퇴직금 지급)
- (3) 명희부장 사직
 - 근무기간: 2012년 6월 11일 ~ 2015년 10월 31일 (3년 4개월)
 - 지급: 2015년 11월 14일(토)
- (4) 성연진 활동가 채용
 - 채용일: 2015년 10월 26일(월)

3) 행정 업무

- (1) 오즈메일러 사용본 결제
 - 기간: 2015년 6월 11일 ~ 2016년 6월 10일
- (2)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도메인 계약 연장
 - 업체: 야사달
 - 약정 기간: 3년 약정 (2015. 4.19 ~ 2018. 4. 18)

(3) 아름다운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

- 신청서 제출: 2015년 3월 18일(수)
- 선정 발표: 2015년 5월 14일(목)
- 인프라 지원사업 내용: 사무용 기자재 구입
- 신청내용 및 금액

구분	항목	수량	금액(원)	
			예산지원	비고
사업비	컴퓨터본체	2		
	컬러레이저 프린터기	1		
	23" 모니터	4		
	메모리카드	2		
	노트북	1		
	사무용의자	5		
총 계			4,042,170	

- 위 지원사업으로 사무기개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사무용의자)를 교체하여 사무실 근무환경이 좋아졌음

3. 위원회

3-1. 정책위원회

- 1) 구성: 김성은, 김정수, 안김정애, 여혜숙, 윤경원, 조영희
- 2) 활동: 운영이사회에서 논의하였음

3-2. 국제협력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정경란

2) 활동

(1)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관련활동

가. GPPAC(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지구촌 시민사회를 이끄는 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 내용: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 No rtheast Asia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the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 일시: 2015년 4월 13일(수)

(2) 2015 올란바토르 프로세스(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관련

가. 2015 올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

- 일시: 2015년 6월 23-24일

- 장소: 몽골 올란바토르

- 참석: 정경관

- 발표: Gender Mainstreaming in Regional Dialogue & Cooperation on Peace and Security

- 내용: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및 몽고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올란바토르 프로세스를 공식 결성함. 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비핵시대 건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의 이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함.

- 참관기 언론 기고: 통일뉴스 2015.07.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48>

나. 2015 올란바토르 프로세스 보고회

- 일시: 2015년 7월 23일(월) 10:00~12:30

- 장소: 참여연대 아움드라홀

- 주최: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 참석: 안김정애, 명희

- 사업개요: 발제1 올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상상하기/ 구갑우(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

발제2 올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과 구성/ 정경관

발제3 올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미와 전망/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회: 이미연(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

(3)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가.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Survey, Global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 설문 참가: 정경란
- 내용: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15주년을 맞아 1325호 이행에 대한 전지구적 연구(Global Study)를 위해 진행된 시민사회 설문조사에 응답함. 이 설문조사는 과거 1325 이행 평가와 향후 제안을 만들기 위해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ction Network (ICAN) the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NGO WG on WPS), Cordaid와 협력하여 the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가 진행함.

나. 1325호 관련 여성가족부 주최 전문기회의

- 일시: 2015년 5월 29일(금)
- 장소: 여성가족부
- 내용: 여성가족부 주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전문기회의 참석, 보고서 작성, 1325호 네트워크 관계 단체와 공유

다. 1325호 관련 국제협의회

- 일시: 2015년 6월 30일 - 7월 2일
- 장소: 네덜란드 헤이그
- 주최: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 여성평화조성자프로그램(WFP), 코데이드(Cordaid)
- 주제: 현장에서로부터 솔직한 목소리-여성,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안보리 결의 1325의 실제적인 이행에 대한 방해물들
- 참가: 정경란
- 내용: 이 협의회는 평화와 안보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주요한 방해물, 여성, 평화, 안보 의제를 통하여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환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근본적인 방해물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세계 각지에서 30여명이 참석하여 방해물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온 제안들은 2015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15주년에 맞추어 "Candid Voices from the field: Obstacles to transformativ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

da and to meaningful participation in building peace and security”
로 출판됨.

- 기타

가) GPPAC 사무실 방문하여 사무총장과 대화: 7월 2일

나) WomenCrossDMZ 참가한 WPP 자문위원과 대화: 이 자문위원은 이 행
사에 계속 참가할 의향이 있으며, 남북간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
고있다. 평화여성회에서 WomenCrossDmz 올 해 행사에 대한 평가(긍
정성과 부정성)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다) 참관기 언론기고: 여성신문 1347호 [오피니언] (2015-07-08)

<http://www.womennews.co.kr/news/84894>

라. 여성안보 관련 토론회 발표

- 일시: 2015년 5월 28일(목) 9:30~12:00

- 장소: 대전. 대흥동주민센터 다목적실

- 발표: 정경란

- 내용: 대전평화여성회 주최. 평화통일과 여성안보 실현을 위한 여성평화활동
가 컨퍼런스에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하여 발표

3) 기타

(1) 2015 WomenCrossDMZ 관련 참가 및 의견 교류

- 일시: 2015년 5월 24-25일

- 장소: WCD 국제여성평화경개(임진각), WCD 국제여성평화회의의 참가

- 내용: 행사 참가 및 행사전후 의견 교환

- 특이사항: Meri Joyce(GPPAC 동북아연락코디네이터), Cora Weiss(Hague Ap
peal for Peace)와 수지 김 등과 의견 교류

4) 평가

- 한국정부의 국가행동계획 평가모임, 설문조사, 국제회의, 토론회에 참가하여 유
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안하는 등 국내외 여성,
평화, 안보의제 확대에 기여함.

- 북한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민사회의 네트워크인 올린바르프 프로세스 결성에 주
도적으로 참가하고 이 프로세스에 센터 의제가 주요의제로 정해지는 데 기여함으로
써, 향후 동북아시아민사회의 등록어 평화, 비핵화, 센터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3-3. 지역위원회

1) 구성 (3월 운영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로서 지역위원회를 구성)

- 이해숙, 조명희, 윤수경, 안김정애

2) 역할

- 지역위원회는 평화여성회 활동을 지역사회에 확장하고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플로서 구성하기로 하다.

3) 활동

- 김포시 평화문화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 이해숙

【2】 평화·통일 사업

1.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2015년 사업계획>

동아시아의 정세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한다.

- 1) 광복70년, 분단 70년: 여성들의 평화통일의지 고취
- 2) 군사비 감축 활동: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3)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분석 활동
- 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 5) 핵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탈핵, 탈원전 운동

1-1. 평화통일운동 개발 및 실천

1) “여성, 광복70주년 분단 70년을 말하다” 세대를 넘어 분단체제의 여심을 만나다 - 한국여성재단 <상평등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1) <성평등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 사업기간: 2015년 3월~11월

- 지원금액: 14,000,000원

- 사업명: 여성, 광복70년,분단 70년을 일하다 - 세대를 넘어 분단체제의 여성을 만나다

- 사업목적: 올해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로서, 그동안 남성들과 비교하여 드러나지 않고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기록/기억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여성의 경험이 무시/폐기되는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주요내용

가. 기획회의(2회) 및 평가워크숍(1회)

나. 사진 인터뷰: 라운드테이블대상참가자 인터뷰 (분단체제 70년을 경험한 여성-미군 기지촌 여성, 전쟁기 민간인 집단학살 생존 여성, 월남 여성, 7~80년대 여성노동자)

다. 라운드테이블(4회): 각 대상과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라운드테이블 진행, 광복과 분단, 전쟁에서의 여성의 경험이야기하기, 듣기, 공유하기 등

라. 자료집 및 영상자료 제작

(2) 한국여성재단 심사 및 보고회의

가. 2차 Presentation 심사

- 일시: 2015년 2월 12일(목) 17:00 ~ 17:20

- 장소: 한국여성재단

-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해설과 질의응답

- 참석: 안김정애(프레젠테이션 발표)

- 비고: 2월 24일 여성재단으로부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결과 받음.

나.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워크숍 1차

- 일시: 2015년 3월 4일(수) 14:00 ~ 17:00

- 장소: 한국여성재단 박명숙홀

- 내용: 한국여성재단 및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소개, 사업수행 및 회계 안내, 분임토의 등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다.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중간 워크숍

- 일시: 2015년 8월 26일(수) 14:00~16:00

- 장소: 한국여성재단 1층 박명숙홀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 내용: 중간 활동 보고 워크숍

(3) 기획회의

가. 1차 기획회의

- 일시: 2015년 3월 18일 18:00~20:00
- 장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 참석: 안김정애, 김선혜, 김정수, 안김정애, 여혜숙, 윤경원, 류지연
- 내용: 사업 기초 공유, 라운드 테이블 기획 초안에 대한 형식 및 방법 검토 토론, 담당 모듬 분배 등

나. 2차 기획회의

- 일시: 2015년 4월 21일 18:00~20: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선혜, 김정수, 안김정애, 여혜숙, 변유리
- 내용: 주제 및 날짜, 장소 확정 및 프로그램 진행 등 기타 의견 토론.

(4) 라운드테이블 준비 사전 인터뷰 및 영상 작업

가. 기지촌 여성 인터뷰 1차

- 일시: 2014년 4월 7일 10:00~17:00
- 장소: 평택 햇살 사회복지센터
- 참석: 안김정애, 장수정, 변유리
- 내용: 발표자 김숙자 인터뷰

나. 기지촌 여성 2차 인터뷰 및 영상 촬영

- 일시: 2015년 4월 14일 11:00~17:00
- 장소: 의정부 두레방
- 참석: 안김정애, 장수정, 변유리
- 내용: 발표자 김숙자 인터뷰 및 영상

다. 전쟁기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생존여성 인터뷰

- 일시: 2015년 5월 2일 ~ 5월 5일
- 장소: 경남 산청군, 함양군 일대
- 참석: 안김정애, 안지영
- 내용: 발표자 김갑순, 우기묘 면담 및 영상 작업

라. 월남민 여성 인터뷰 및 영상촬영

- 일시: 2015년 6월 22(일) ~ 6월 23(화)
- 장소: 속초
- 참석: 안김정애, 장수정

- 내용: 당사자 인터뷰 및 영상촬영
- 바. 70년~80년대 여성노동자 인터뷰 및 영상촬영
 - 일시: 2015년 7월 4일 (토) 9:00~12:00
 -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큰 사랑방
 - 참석: 여혜숙, 장수정
 - 내용: 송효순 인터뷰 및 영상촬영
- 바. 70년~80년대 여성노동자 인터뷰 및 영상촬영
 - 일시: 2015년 8월 27일 (목) 15:00~18:00
 -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큰 사랑방
 - 참석: 여혜숙
 - 내용: 김연자 인터뷰 및 영상촬영
- 사. 월남인 여성 인터뷰
 - 일시: 2015년 9월 30일 (수) 14:00~18:00
 - 장소: 당사자 자택
 - 참석: 여혜숙
 - 내용: 손옥자 인터뷰

(5) 라운드테이블 - 총 4회 개최

- 가. 1차 라운드테이블: '기지촌 여성의 목소리'
 - 일시: 2015년 6월 10일 14:00~17:00
 - 장소: 영등포 산업선교회 2층 큰사랑방
 - 참석: 안김장애, 김선훈, 여혜숙, 김지호, 명희, 류지연 등 총 21명
 - 내용: 기지촌 여성 증언(박인순) 및 영상 증언(김숙자), 햇살 사회복지센터 대 표(우순덕), 두레방 원장(유영님)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지촌여성관련 활동 소개, 질의응답 및 소감 나눔
- 나. 2차 라운드테이블: '한국 전쟁기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생존 여성의 목소리'
 - 일시: 2015년 7월 17일(금) ~ 7월 18일(토)
 - 장소: 경남 산청군, 함양군 일대
 - 참석: 안정애, 김성은, 박유희, 김지호, 류지연, 오경진, 설지혜(이상 여세연 활동가 2명), 변유리, 통일뉴스 기자, 신청함양사건 유족회원 등.
 - 내용: 생존자 여성 2인(김갑순, 우기묘) 증언, 신청 함양일대 학살지 답사 등
- 다. 3차 라운드테이블: "70~80년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
 - 일시: 2015년 9월 10일(수) 14:00~16:00
 - 장소: 영등포 산업선교회 2층 큰사랑방

- 참석: 안김정애, 김지호, 류지연 등 총 14여명
- 내용: 여성노동자 2인(김연자, 송효순) 증언, 산업선교회와 관련한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 질의응답 및 소감 나눔 등.

라. 4차 라운드테이블: '전쟁기 월남 여성의 목소리'

- 일시: 2015년 10월 7일(수) 14:00~16:00
- 장소: 영등포 산업선교회 2층 큰사랑방
- 참석: 안김정애, 김지호, 류지연, 여혜숙, 박유희 등 12명
- 내용: 월남 여성 증인(손옥자) 및 영상증인(최춘자), 전쟁기 월남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소감 나눔 등.

(6) 평가워크숍

- 일시: 2015년 10월 21일(수)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안김정애, 박현선, 김지호, 류지연, 오경진, 남궁희수
- 내용: 프로그램 기획 목적 및 목표 상기 발제, 참가자 의견 정리 발제 및 의의 토론, 제언 수렴 등

(7) 자료집 발간 : 200부 발간

1-2. 군사비 감축 활동

1) 제 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1) 회의

가. 준비회의(참석: 류지연)

- 1차: 2/10(화) 16:00~18:00, 국제캠페인 사무국 회의내용 공유, 주제 등 논의
- 2차: 2/26(목) 16:00~18:00, 캠페인 방법 구체화 논의
- 3차: 3/9(월) 16:00~18:00,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개설, 평화 캠페인 방법 논의
- 4차: 4/13(월) 11:00~12:00, 세계군축행동주간 홍보방안 논의

나. 평가회의(참석: 류지연)

- 일시: 2015년 4월 27일(월) 10:00~12:00
- 내용: 세계군축행동주간 및 기자회견 등 전체 평가회의

(2) 사업 및 행사

- 일시: 2015년 4월 13일 (월) 10:0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 내용: 군사비 축소요구 퍼포먼스('우리세금을 무기대신 -에' 피케팅) 및 국회의원

원 연대 공동선언 기자회견 등

- 비고: 김지호, 류지연(성명서남독)

- 연대: 공동주최(가나다순)

가. 참가단체 (총 32개): (사)경실련통일협회, ODA Watch, 경계물넘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기지평화네트워크,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연대, 성골물반외방선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덕평화센터, 평화교육 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 마음한몸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나. 국회의원 (총 15명): 권은희, 김성근, 남윤인순, 도종환, 박수현, 서명교, 이목희,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순옥, 정호준, 조장식, 한명숙(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정의당)

2) 2015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대응행동

(1) 회의 (참석: 류지연)

- 1차: 6/22(월) 16:00~18:30, 대응행동의 성과 목표 논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등
- 2차: 7/29(수) 15:00~18:00, ADEX 대응 행동의 승조건 정하기, 자료조사
- 3차: 8/17(월) 10:30~13:00, 사전 조사 자료 내용 검토 등
- 4차: 9/2(수) 15:00~18:00, ADEX 대응 행동 세부 설계 및 일정 수립 등

(2) 행동

- 1차: 웰컴라업선데이 10/19(월) 16:00~20:00, 무기상인 참석 VIP 접대 만찬호텔 앞 집회, 호텔 내부 시위 등 'You are not welcome here'
- 2차: 비즈니스데이 10/22(목) 14:30, 3분 가량 장례식 퍼포먼스
- 3차: 피블릭데이 10/25(일) 10:00~17:00, Art for Peace 전시, 평화메시지, 리본 꽃배포, 피스타그램, 판넬 전시, 리플렛 배포, 공연, 퍼포먼스
(참석: 안김정애, 명희, 류지연)

1-3. 2015 WomenCrossDMZ

- 2015년 국제여성평화건설기 프로젝트로 남북해외여성이 북에서 남으로 DMZ를 횡

게 걸으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된 프로젝트

• 국제여성평화결기와 국제여성평화회의로 구성된 행사에서 평화여성회는 실행위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 회의

(1) 2015 WomenCrossDMZ 실행위원회 회의(참석: 안김정애)

- 2/26(목) 18:00-20:00. 관련 진행 사항 논의 및 계획 공유 등
- 3/8(일) 17:00-19:00. 3월 11일(수)에 New York UN 본부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관련 내용 및 상황 공유
- 3/24(화) 18:00-20:00. 관련 진행 사항 논의 및 계획 공유 등
- 4/6(일) 17:00-19:00. 관련 진행 사항 논의 및 계획 공유 등
- 4/13(월) 17:00-19:00. 기획안 제출 관련 논의 및 예산안 수정 등
- 4/20(월) 16:00-18:00. 행사 전반에 관한 토의
- 5/11(월) 16:00-18:00. 전체 행사 일정 토의 및 수정

(2) 2015 WomenCrossDMZ, 국제여성평화회의의 기획회의

(안김정애, 김지호, 여해숙, 류지연, 이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 4/21(화) 19:00-21:00. 2015국제여성평화회의의 관련 기획안 검토
- 5/11(월) 12:30-14:00. 국제여성평화회의의 관련 실무 진행사항 공유 및 논의
- 5/18(월) 11:00-13:00. 실무 점검 회의
- 5/21(목) 15:00-17:00. 국제여성평화회의의 최종 점검 회의

2) 유관 기관 방문 및 면담(참석: 안김정애)

1) 서울시 면담

- 일시: 2015년 3월 31일(화) 15:00-16:00
- 장소: 서울시장
- 내용: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조현옥), 팀장(김미령) 면담. 예산안 관련 협의.

(2) 국회의원 나경원 보좌관 면담

- 일시: 2015년 4월 2일(목) 17:00-17:30
- 장소: 국회의원사당 본관 403호
- 내용: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의원 기획서 전달 및 협조 요청

(3) 서울시청 사전답사

- 일시: 2015년 4월 13일(월) 15:00-17:00
- 장소: 서울시청 다목적홀
- 내용: WCD 국제여성평화회의의 관련 행사장 답사 및 서울시 여성정책과 방문

(4) 서울시청 여성정책과 면담

- 일시: 2015년 4월 23일(목) 18:00~20:00
- 장소: 서울시청 여성정책과
- 내용: 조현옥 실장, 김미령 팀장 등과 서울시 예산지원 관련 논의

(5) 통일준비위원회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10:00~12:00
- 장소: 통일준비위원회
- 내용: 통준위 방문, 위원장 정종욱, 사회문화분과장 김성재 면담 및 협조요청

(6) 통일부 회의

- 일시: 2015년 5월 20일(수) 12:00~13:00
- 장소: 통일부
- 참석: 안김정애, 한미미(실행위원), 최인숙(실행위원)
- 내용: 통일부 WCD 협조 요청관련 건

(7) 주한미대사관

- 일시: 2015년 5월 21일(목) 11:00~12:00
- 장소: 주한미대사관
- 참석: 안김정애, 이진옥(여세연), Hope May
- 내용: WCD 협조 요청관련

3) 관련 기자회견

(1)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4월 23일(목) 11:00~13: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Women Cross DMZ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 행사 발표 기자회견

(2) WomenCrossDMZ 지지를 위한 여성정치연맹 기자회견, 심포지움

- 일시: 2015년 5월 20일(수) 10:00~14:00
- 장소: 국회의원 회관 2층 세미나실
- 참석: 안김정애, 김종대, 이장희 등
- 내용: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분단과 통일" 발표

4) 사업 및 행사

(1) WomenCrossDMZ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

- 일시: 2015년 5월 24일(일)
-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 민통선 DMZ 일부 구간
- 내용: 출입국 관리사무소 기자회견 사회(안김정애), 통일대로 남단걷기, 한영행 사, 남산 한옥마을 서울시장 주최만찬 참석 등
- 참석: 김성은 (이사장), 안김정애, 김선혜, 김정수, 여해숙, 한정숙, 정경란

(2) WomenCrossDMZ 2015 국제여성평화회의

- 일시: 2015년 5월 25일(월) 9:30~17:00
- 장소: 서울시청 다목적홀, 정동 어반가든
- 주최: 평화통만드는여성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프로그램

10:00-10:20	<p>개회 행사 사회: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상임대표)</p>
10:20-10:50	<p>개회 선언 2015 WCD 한국위원회 공동대표단</p>
	<p>개회사 이연숙 (2015 WCD 한국위원회 공동대표)</p>
	<p>축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p>
	<p>환영사 이이효재 (여성학자)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p>
10:50-11:50	<p>기초발제 1. 나는 왜 걷는가 - 글로리아 스타이넴 (WCD 공동영예위원장)</p> <p>기초발제 2. Between and Beyond: 한국여성평화통일의 과거 현재 미래 -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대표)</p>
<p>1부 각국에서 갈등과 분쟁을 끝내기 위해 여성을 조직한 경험 나누기 (13:30-14:50) 사회자: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p>	
13:30-14:30	<p>발제 1. 여성 평화 만들기 - 메어리드 맥과이어 (북아일랜드, 노벨평화상 수상자)</p>
	<p>발제 2. 작은 실천 하나가 세계를 바꾼다 - 리마 보위 (리베리아, 노벨평화상 수상자)</p>

	발제 3. 네, 우리는 평화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조디 에반스 (미국, 코드핑크 공동창립자)
14:30-14:50	질의 응답
2부 현재 갈등지역 국가의 여성과 조직과 대응 현황 (15:00-16:40) 사회자: 김엘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15:00-16:20	발제 1 필리핀에서의 평화를 위한 여성 조직의 경험 - 리자 L. 마사 (前 필리핀 가브리엘라여성연맹 명예의장)
	발제 2 희망과 공감의 여성평화 건기 - 타카사토 슌즈요 (일본, 오키나와 여성활동가)
	발제 3 2015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 건기 - 테트리샤 게레로 (인권변호사, 리가르레스 콜롬비아 설립자 겸 이사) 월남민/이산가족 여성, 기지촌 여성 영상 상영
	발제 4 한국 기지촌 여성의 경험 - 김숙자 (햇살사회복지회)
16:20-16:40	질의 응답
16:40-17:00	폐회 행사사회자: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2015 WCD 선언서 낭독 - 폐회선언

5) 내부 평가

• 평가의 기준

- 목표의 성취 여부.
- 평화여성회가 initiative를 갖고 주최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에 평화여성회 고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했음.
- WCD 국제위원회가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본 행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
 - 2)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 확대
 - 3)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지지 촉구 등이다.

가. 긍정적인 면

(1) 국제적인 측면

- 창의성과 추진력: 여성들이 판문점은 아니지만 개성을 통해 한반도를 실제로 종단하여 평화의 힘으로서 여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국제여성운동 차원에서 한반도 이슈, 특히 평화협정을 주제로 국제연대를 한 점.
-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해 주요 인사와 주요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폭 넓은 국제연대가 이루어진 점.
- 국제대표들은 남북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남북 여성들과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제대표단의 남북한의 민감성을 인식하는 계기 제공.
- 많은 국제 언론이 관심을 가진 점.
- 평화여성회의 활동이 국제여성인사에게 긍정적으로 알려진 점.

(2) 국내적인 측면

- 평화의 힘으로 여성들의 창의성과 추진력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제공
- 국내외 어려운 조건 속에서 평화여성회를 비롯해 이 행사를 위해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행사를 마무리한 점.
- 한국에서 다수 여성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점(첫째 날 행사).
- 한국 국제연대의 폭 확장-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국제연대의 기회기 이루어진 점.

(3) 내부적인 측면(WCD 국제여성평화회의의 행사진행 관련)

- 큐시트 작업과 행사 총괄의 역할이 잘 선행되었음.
- 여세연과 여연 등 단체간의 실무협조 과정이 적극적이었으며, 각 단체의 노력이 보였음.
- 기초 발제(이김현숙)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을 간략하게 잘 정리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진행 관련 시간이 크게 연기되지 않았음.
- 참가자의 활발 행동 과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준 판단이 좋았음.
- 참석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동으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됨.

나. 부정적인 측면

(1) 목표와 관련하여

- 남북의 사고로서 역할: 여성들이 남북화해협력의 다리를 놓고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려는 행진단의 목표와 달리, 친북논란으로 그 취지가 약화됨.
- 이번 총단행진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음. 북한발언의 진위에 대한 논란으로 국제 코디네이터가 북한당국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참여한 행진에서 인터뷰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 이 행사를 둘러싼 남북정부의 대응이 나타남.

북한, 위민크로스DMZ 행사 남한이 방해했다고 비난(연합뉴스, 2015/05/28)

(2) 국제대표단의 중립성과 능력/준비 문제

- 중립성: 참가자 대다수가 중립적이라고 판단되나, 친북논란으로 앞으로 중립적인 활동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임.
- 참가자 개인 각각은 평화운동과 여성운동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지만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한반도 상황, 남북관계, 남북의 민감성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국제참가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보다는 남한에서 친북물이 하는 것에 더 놀라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음. 남북의 화해역할을 하는 대표단이 해당지역의 맥락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임.

(3) 국제코디네이터

- 이번 논란의 당사자가 국제행진단의 코디네이터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코디네이터가 북한의 언론의 성격이나 상황을 잘 모르고, 남한의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북한에서 발언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남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가 남북관련 문제를 남북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한국이 심리 전쟁중인 것을 모르고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코디네이터가 나이브naive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
'김일성 천양' 논란... "남북 모두 정치적 악용" 오마이뉴스, 2015-05-26
[단독] DMZ 평화행진 기획자 크리스틴 안 인터뷰... "한국은 심리전쟁 중"
- 여성프라자에서 시청으로 긴급하게 장소변경이 되어 보수단체의 집결과 항의 등에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서울시장에 대한 총복몰이여 빌미로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예견 됨. 장소 변경 과정이 국내 정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의견이 있음.

(4) 정치적 문제

- 극우보수단체, 탈북단체의 공간 확장. 위민크로스DMZ행사를 친북행사로 선전하며 자신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며 세력 확장. 국제대표단과 국내단체 모두 공격, 행사 공격, 서울시 공격하며 자신의 영역을 높이고 있음. 나아가 국제대

표단의 한국 입국 금지운동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사 피력.

-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평화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극우보수단체의 질적 수준을 스스로 낮추었다는 의견도 있음.
- 극우보수단체가 WCD 행사를 계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보임.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에 대한 종북몰이도 일부 있었음.

(5) 국내 연대

- 준비과정, 주제 등이 정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혼선이 있었음.
- 시간상의 제약으로 행사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 함.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협력에서 급하게 장소와 방식이 바뀌면서 업무 처리와 결제 방식 등 혼선이 있었음.
- WCD 국제여성평화회의의 경우, 사회자와 발표자 구성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판'으로 밀려질 수 있는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됨. 발표와 발제를 고르게 분배하여 다른 단체에도 임파워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WCD 국제여성평화회의의 경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 위상을 고려하여 역할을 게이트 통제 뿐만이 아닌 일정한 역할을 부여했어야 한다고 판단.

(6) WCD 국제여성평화회의의 행사 진행과정의 문제

- 총괄 및 긴급 대응회의의 과정에서 소통구조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길현숙의 발제에서 한국여성평화운동의 더 깊은 맥락과 역사성을 국제대표단 및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어야한다는 의견과 '6사회의' 등에 대한 추가적 교양과 설명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보수단체의 서한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것이 민주적이었다는 의견.
- 오프닝에 원로들이 오랜 시간 조각보를 들고 있는 상황이나 연딩 세레머니에서 한 개인의 평화 운동사를 듣는 것과 개인의 소감을 장시간 듣는 것이 무리라고 적합하지 않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음. 이는 행사 전의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으나 국제 대표단이 북 입국 이후 연락과 소통의 방법이 어려워 미리 프로그램 진행자와 사전 논의와 수정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됨.

다. 향후 전망

- 유엔 인권사무국 한국 사무소가 6월말 개설되면 보수단체와 탈북단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북한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앞으로 국내에서는 보수단체들이 이 행사를 친북행사로 규정할 것임.

- 내년 이 행사에 대해 남한정부 대응은 부정적, 북한은 올해보다는 더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해외 참가자들이 올해처럼 많이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대표팀이 이 행사를 계속하고 코디네이터를 평화여성회에 요청하면, 국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고려해, 평화여성회는 그 요청을 역량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내년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남북해의 여성들이 함께 남에서 북으로 판문점 통과를 전제로 한 2차 걷기 희망 사항.

6) 통일부 평가회의

- 일시: 2015년 6월 5일(금) 12:00~14:00
- 장소: 통일부
- 참석: 안김정애, 최인숙(실행위원)

7) WCD 국내 실행위원회 평가회의

- 일시: 2015년 9월 9일(수) 18:00~20:00
- 참석: 안김정애

8) WomenCrossDMZ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 사진전

- 1차: 12/3~12/8, 서울 명동성당 1898 갤러리
- 2차: 12/10~12/30, 파주 민족화해센터 전시홀
- 내용: WCD 활동 사진 보고
- 주최: 2015 WCD 한국위원회
- 후원: 아름다운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

9) WomenCrossDMZ 2016 준비위원회 출범

- 일시 : 2015년 10월 21일
- 장소 : 2015WCD한국위원회 사무실
- 참석 : 안김정애
- 내용 : 2016년 WCD 행사 계속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결성(준비위원장으로 피선), WCD 사진전 기획 및 아름다운 재단에 기금 신청 건 논의

1-4.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분석 활동

1)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수여 주창자 '다카시 나옴이'와의 간담회

- 일시: 2015년 8월 12일 (수) 14:00~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내용: 진선미의원과 공동 주최한 간담회로 일본의 평화운동 활동 등기와 평화여성회 소개, 공개질의 응답 등
- 참석: 김성은 이사장 외 30여명

1-5.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1)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대중홍보용 리플렛제작

- 내용: UN안보리 1325호 결의안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리플렛 제작
- 제작: 유지연
- 활용: 2015 3.8 여성의 날 행진에서 시민대상 200부 배포

2)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1) 준비 회의

- 1차: 9/3(목) 14:00-14:30, 여성평화외교포럼의 제안으로 박차옥경(여인 사무처장)과 초기 기획
- 2차: 9/14(월) 14:00-16:00, 전체 프로그램 골子和 발제자 구성, 날짜장소 선정
- 3차: 10/28(수) 10:00-11:30, 사업 사전 점검 회의

(2) 행사

- 일시: 2015년 10월 29일(목) 17:30 ~ 21:30
- 제목: UN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 내용: '여성없이 평화없다' 주제로 각국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이행사항,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결의 사항 발표 등
- 주최: 평화플랜트여성회,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이미경, 여성평화외교포럼,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한국YWCA 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석: 김성은 외 120여명

- 프로그램

17:30	접수 및 식사	
18:30	개회식	<p>사회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p> <p>개회사 나경원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국회의원(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p> <p>축사 대표인사 신낙균 전 국회의원(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차경애 회장(한국YWCA연합회)</p>
18:50	주제발표	<p>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진화와 과제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전 부총재</p>
19:10	Session 1 각국 사례	<p>사회 이명선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p> <p>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이행</p> <p>미국 Booyeon Lee Allen (Political officer of the US Embassy) 노르웨이 Joon Grane Hetland (First Secretary of Royal Norwegian Embassy in Seoul) 한국 정희진 서기관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p> <p>Q / A</p>
20:20	휴식	
20:30	Session 2 통합토론	<p>사회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p> <p>유엔결의안 1325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p> <p>강선미, 김은경, 김은주, 김정수, 여혜숙, 원영희, 이미경, 이정록, 장미란, 차옥송, 한국영</p>
21:30	폐회 및 기념촬영	장철영(사진작가)

1-6. 평가

- 한국여성재단 <성평등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으로 진행된 '여성, 광복70년,분단 70년을 말한다 - 세대를 넘어 분단체제의 여성을 만나다'는 제목의 프로젝트는 애초의 사업 목적, 즉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에, 그동안 남성들과

비교하여 드러나지 않고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기록/기억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여성의 경험이 무시/폐기되는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 이루어 냈다. 본단의 피해와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지촌 여성, 한국전쟁기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생존자, 월남민 여성, 70~80년대 여성 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본 행사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자료화/archive 구축 등의 숙제를 해결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 군축행동의 난을 통해 군축의 필요성과 복지비로의 환원 필요성, 그리고 전쟁 중단의 필요성을 잘 부각시켰다. 앞으로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WCD 행사는 한반도 본단의 상징인 DMZ를 종단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한반도 통일 필요성과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평화여성회는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극우층의 반대공세에도 WCD 행사 자체를 유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인 국제회의행사 마무리까지 도맡아 행정사무와 실무 책임을 총괄하였다. 실무역의 한계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자원봉사자와 실무진의 노력으로 역할이 때때로 지기도 했다.

- 일본의 평화운동가 다카시 나오미 초청 행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내 평화헌법9조 지키기 운동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화여성회의 활동도 소개되었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시민단체의 연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연대를 위한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 38여성대회 시 경기 행사를 통해 UNSCR1325 리플렛 제작으로 대중에게 알리 내기를 시도 하였으며,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도 12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었는데 일반인, 특히 대학생들에게 1325의 의미와 취지를 잘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남북여성협력사업

<2015년 사업계획>

남북여성들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1)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1)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

- 일시: 2015년 12월 2일(목) 7:30-18:00

- 장소: 개성 고려민속여관

- 내용: 공동모임 성사를 위한 실무 협의

- 참석

가. 남측: 류지연(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주은애(한국천주교수녀회 장상연합회)

나. 북측: 박영태(조선카톨릭교회협의회), 이선옥(북남여성통일대회), 조준희(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사무국), 리금경(민족화해협의회), 최춘영(조선민주여성동맹), 김선이(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사무국)

- 협의

가. 광복70·분단70년인 2015년 연내에 여성공동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을 합의함

나. 행사 명칭 논의: 북측 '민족 화해의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 모임'을 제안, 남측 '남북여성한마당'을 제안함. 큰 차이가 없어 추후 맥스를 통해 협의하기로 함.

다. 장소 및 일정 논의: 남측 금강산 혹은 평양 2박3일 혹은 3박 4일 12월 말 즈음을 제안함. 북측은 개성 당일 행사를 제안함. 관련해서 긴 논의가 이어졌고, 각자 돌아가서 관계단체 및 당국과 협의 이후에 맥스를 통해서 확정하기로 함.

라. 행사 내용

가) 공동행사 자리에서 남북 공동 사회, 남북 각3인 연설, 공동문건 발표에 대한 것은 추후 협의하기로 함.

나) 남북 여성 전래놀이 한마당 등의 문화프로그램 개최

다) 남북 여성 수작업 공예 작품 전시 교류

(2) 통일부 연담 (참석: 류지연 및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수녀회 실무자)

- 1차: 11/13(금), 통일부 김용규과장, 서영신 사무관, 북측 맥스 답신에 대한 내용 협의

- 2차: 11/30(월), 통일부 김용규과장, 서영신 사무관, 개성 실무접촉 회의 내용 사전 협의

(3) 본 행사

- 일시: 2015년 12월 23일(수)

- 행사 내용

가. 진행 사항

- 오전 9시(복측시간 8시 30분) : 남북출입사무소 출경
 - 이하 복측 시간(남측보다 30분 늦음)
- 오전 9시: 북측 출입사무소 도착(방북승인서, 사진첨부 자료, 짐 검사 등)
- 오전 9시45분경: 개성민속여관 도착
- 복측이 준비한 환영 꽃다발 증정

행사 주관 4단체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상임 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이광옥 회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김정애 상임대표), 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사)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 남측 대표단 총 6인이 북측에서 증정하는 꽃다발 받고 참가자 전원인 인사 나누는 간단한 행사

- 오전 10시~10시 45분 :개성민속여관 연회장/백송식당

▲1부 만남의 장

- 사회: 북측 박영희, 남측 최진미
- 인사말 (남북 각 3인씩)
 - 북측: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단장)
 - 남측: 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 김금옥(단장)
 - 북측: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육자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 김형직사범대학 총장 변규순
 - 남측: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차진숙 수녀
 - 북측: 조선천주교협회 여성부 회장 리산옥
 - 남측: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김정애

- 공동보도문 형식의 호소문 낭독(예정에 없던 순서로 당일 진행하게 됨.)
- 10:45분 1부 행사 마치고, 단체 촬영, 단체별 촬영 휴식
- 오전 11시~11시 50분 :개성민속여관 연회장/백송식당

▲2부 문화예술교류의 장 (사회: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

- 전국여성연대 합주와 중창단 (지니에게, 경의선 타고)
- 가수 강허 달링(기다림 설레임, 홀로아리랑, 꼭 안아주세요)
- 북측 공연 / 사회자 없이 바로 공연
- 통일음악단 공연자 3인이 번갈아 가면서 독창과 중창으로 진행

- 매월의 형식으로 7곡. (반갑습니다. 번지 없는 주막, 다시 만나요 등)
- 오후 12시-1시30분: 개성지구 역사유적 참관 (선죽교, 표충비, 고려박물관)
- 오후 1시 30분~3시: 연회 / 동석식사
 - 좌석배치: 9개 테이블 (남북 같은 테이블에 있음)
- 견배사 발원 남북 측 각각 1인
 남측: (사)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
 북측: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단장)
- 오후 3시- 3시 50분 : 남북여성공동전시를 관람. 민속여관 19호동 마당
 - 작품 소개 -남북 측, 각 1인
 남측: 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북측: 오은별(화가)
- 오후 4시- : 북측 출입국사무소로 출발

2) 평가

- 남북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여성본부들 중심으로 통일부에 대해 남북여성 교류 압박과 1인 피켓시위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광복 70년 분단70년인 2015년을 넘기지 않고 남북여성교류가 성사될 수 있었으며, 이는 더 많은 시민사회계의 남북교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되었다.

- 교류에서 평화여성회는 적극적으로 실무에 결합하여 모임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점, 남북여성교류에 있어서 평화여성회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교류를 통해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감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평화통일예의 희망과 확신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대중교육

<2015년 사업계획>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여성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평화운동을 알리는 대중교육을 진행한다.

- 1) 여성평화모임: 여성평화수다방
- 2) 청년들을 위한 여성평화 강의, 교육: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

3-1. 여성평화수다방

• 목표:

- 여성의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평화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일상에서 평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탐구.
- 여성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모색.
- 여성이 평화로운 입상, 사회,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각과 대응방식이 필요한지 논의.
- 젠더적 관점을 통한 한국사회 고찰

• 방식:

- 여성과 평화 관련된 영화나 책, 강의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주의, 여성주의적 평화, 평화운동 안에서의 여성주의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고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눔.
- 꾸준한 참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성장하고, 관심을 확장시키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감.

1) 모임

(1) 6번째 모임

- 일시: 2015년 1월 11일(토) 11:00-14:00
- 장소: 숙대입구역 근처
- 내용: 2015년 여성평화수다방 향후 계획 및 진행 방법 논의 등
- 참석: 김손경미, 조혜민, 오경진, 이주원, 최민정, 류지연

(2) 7번째 모임

- 일시: 2015년 3월 28일 12:00-13:00

- 장소: 여성물리자 4층 컨퍼런스룸
- 참석: 여혜숙, 류지연, 최민정, 오경진, 초록, 고래, 설지혜
- 내용: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관람 및 소감 나누기. 여성 노동자의 일차리와 생활 그리고 연대와 싸움의 시작. 한정된 일차리를 두고 '남성성'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 나눔.

(3) 8번째 모임

- 일시: 2015년 5월 30일(토) 11:00~15: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류지연, 이주원, 여혜숙, 최민정, 오경진, 고래
- 내용: 영화 '클리무트오보실스마리아' 감상 및 소감 나누기. 중년여성의 인생과 삶에 대한 인정에 대한 이야기 등

(4) 점심 모임

- 일시: 2015년 7월 1일(수) 12:00~13: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류지연, 이주원, 최민정, 오경진, 고래, 설지혜
- 내용: 7월 MT 준비논의 및 친목 등

(5) 9번째 모임

- 일시: 2015년 7월 25일(토) 11:00~15:00
- 장소: 종로 인디스페이스
- 참석: 여혜숙, 오경진, 해안, 류지연
- 내용: 영화 '레드룸: 빨강이 무덤'(2014) 상영작 감상 및 소감 나누기. '보도연행' 사건과 학교에서의 군사주의적 교육, 인상깊었던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 등

(6) 10번째 모임

- 일시: 2015년 9월 19일(토) 11:00~14: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 참석: 여혜숙, 오경진, 최민정, 고래, 류지연
- 내용: 영화 '엘르'(2013) 감상 및 소감 나누기. 성매매에 대한 입장과 장면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야기, 여성혐오 이야기 등

(7) 11번째 모임

- 일시: 2015년 12월 12일(토) 10:00~14:30
- 장소: 최민정 회원의 집
- 참석: 오경진, 최민정, 주원, 고래, 류지연
- 내용: 2015년을 보내는 송년회 겸 드라마 감상 및 소감나누기, 선물교류 등.

2) 평가

- 작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참가자들의 결합도와 질적인 내용교류가 많아졌다. 참가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며, 새로운 참가자의 참여는 더 이상 없는 편이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있으므로 더욱 확장해서 평화여성회 회원들의 소모임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담당 활동가의 실무역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4.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

<2015년 사업계획>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적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상에서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1) 대중캠페인 활동
- 2) 회원교육 및 소모임을 통한 활동

5. 기타

5-1.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대응

• 연대단체: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비폭력 평화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등,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신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1) 군 안보교육 영상 관련 행정심판 심리기일 즈음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4월 20일(월) 11:00-12:00
- 장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 내용: 군 안보교육 영상 관련 행정심판 심리기일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촉구
- 참석: 류지연
- 참고: 군 안보교육 영상자료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심판 청구 경과

2014. 08. 05 군 안보교육 영상 정보공개 청구

2014. 08. 28 국방부 비공개 결정 통보

2014. 10. 27 행정심판 청구

2015. 01. 05 국방부 1차 답변서 수취

2015. 01. 20 참여연대 반박문 제출

2015. 02. 10 국방부 2차 답변서 수취

2015. 04. 21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 진행 경과: 2016. 01. 21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원고승소

5-2 미군기지 문제해결

1)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및 평화순례

- 일시: 2015년 9월 4일(금) ~ 9월 5일(토)

- 장소: 국회의원회관

- 내용: 오키나와 평화활동가와 함께 하는 미군주둔기지 문제 심포지엄 및 평화순례

- 공동주최: 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 한국진보연대, 국북평동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참여연대, 강정마을회, 작은형제회 등

[3]정보·홍보 사업

<2015년 사업계획>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소식지 발송

3) 정기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을 전달

1. 온라인소식지 발송

• 담당: 류지연,

1) 2월호

- 발송일: 2015년 2월 4일(수)

- 내용: 제19차 정기총회 보고, 1월 활동보고(신임 상임대표 인사, 신입활동가 소개, 여성평화수다방 첫 번째 모임, 신년기자회견, 재정사업 곳감판매 안내, '백

있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내), 2-3월 활동 알림, 월 회비 후원회원 명단

2) 3월호

- 발송일: 2015년 3월 3일(화)
- 내용: 2월 활동보고(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공모 선정 알림, 6.15공동선언 남측 위원회 여성본부 총회 알림, 3월 활동알림,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3) 4월호

- 발송일: 2015년 3월 31일(화)
- 내용: 3월 활동보고(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여성,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말한다' 프로젝트, 여성평화수다방), 4월 활동알림, 주요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목록, 사무국 소식,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4) 5월호

- 발송일: 2015년 5월 11일(월)
- 내용: 4월 활동보고(수요시위 1117차 주관 보고), 5월 활동알림, 2015 Women CrossDMZ 행사 정부 허가를 위한 서명안내, 회원 소식 알림,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5) 6월호

- 발송일: 2015년 6월 17일(수)
- 내용: 5월-6월 활동보고(2015 WomenCrossDMZ 개최, '여성,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말한다'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 진행, 여성평화수다방 8번째 모임 보고, 6.15 민족통일대회 참가 보고), 7월 활동 알림, 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 규탄 국민고발단 모집 내용, 월회비 후원 회원 명단

6) 7월호

- 발송일: 2015년 7월 8일(수)
- 내용: 6월 활동보고(탄저균 불법반입 미군 규탄 기자회견 참가), 7월 활동 알림,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6) 8월호

- 발송일: 2015년 8월 3일(월)
- 내용: 7월 활동보고('여성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말한다'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 진행, 동북아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대화-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 후기, 여성평화수다방, 강정생명평화대행진), 8월 활동 알림, 월회비 후원회원 명단

7) 9월호

- 발송일: 2015년 9월 7일(월)
- 내용: 8월 12일 수요집회 분신 최현열 선생 추모글, 8월 활동보고(8.15 민족통

알대회 보고, 단저급 불법살형 규탄 행동, 일본 평화헌법 노벨평화상 추진 '다카슈 나오미' 국회 간담회), 9월 활동 알림, 월회비 후원회원 감사

8) 10월호

- 발송일: 2015년 10월 12일(월)
- 내용: 후원의밤 홍보, 9월 활동보고(역자와 함께 읽는 책수다회, '여성,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말한다' 세 번째 라운드테이블, 네 번째 라운드 테이블, 여성평화수다밤 열 번째 모임, '유전자 비례성 확대! 여성대표성 강화! 김무성 규탄' 기자회견 및 행동), 10월 활동 알림, 월회비 후원회원 평단

9) 11월호

- 발송일: 2015년 10월 29일(목)
- 내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촛불 참여 호소, 10월 활동보고(남북여성교류 요구 1인 피케팅, '밤위산업천지회' 반대 행동 알림, 길음중학교 내방 및 1200차 수요 시위 참가보고), 11월 활동 알림, 월회비 후원회원 감사

10) 12월호

- 발송일: 2015년 12월 9일(수)
- 내용: 백남기 농민 재운 기원 서명 및 3차 민중총궐기 안내, 11월 활동보고(남북여성 개성 접촉 알림, 후원의밤 사진 공유, 북중접경지역 방문연수 답사기), 12월 활동알림(WPP-Women Peacemaker Program) 국제 회의 참석, 굿감판 때 재정사업 추진불가 알림,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송년의밤 안내), 월회비 후원회원 감사

2.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1) 홈페이지-페이스북 업데이트

- 내용: 본 회 활동 알림, 사업 공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함.
- 비고: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 수 527명
(2015년 10월 기준/2015년 1월 기준 337명)

3. 평화여성회 소개 및 방문 인터뷰

1) 길음중학교 방문

- 일시: 2015년 10월 14일(수) 10:00-13: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내용: 평화여성회 소개(프레지 활용), 일본군 '위안부'문제 프레젠테이션, 피켓

만들기, 1200차 수요시위 참가

- 대상: 길음중학교 학생, 인솔교사 총 30명
- 참석: 안김정애, 김지호, 류지연

4. 평가

- 온라인소식지의 형식을 정형화 하여, 글은 줄이고 정보는 링크로 연결하여, 줄여 들고 있는 홈페이지 방문에 대한 유도를 하였다. 페이스북의 활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으며 많은 수의 페이지 구독 수가 늘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와의 꾸준한 연계성을 높여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소식지 배포 등의 역할을 모색해야하며, 시기적으로 적합한 입장 발표 및 의견을 페이스북으로 활발하게 하여 더 많은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추후 목표로 해야 한다. 홈페이지의 경우 오래된 디자인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추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난해로부터 두 번째 방문 중인 길음중학교 학생들의 NGO 기관 탐방은 지난해와 다른 방식으로 함께 이슈를 탐색하고, 자기주장을 정리하고, 연대하여 함께 행동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평화여성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연대하는 1200차 수요시위를 통해 인권교육과 연대 실천의 경험을 줄 수 있었으며, 실천과 경험으로 정리된 하루기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평화 교육과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더욱 모색하여 평화여성회에 적합한 홍보 교육 및 평화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4] 회원 사업

<2015년 사업계획>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모임을 진행한다.

- 1) 작은 바자회: 년 1회
- 2) 평화영화보기
- 3) 송년회

1. 회원가입 및 탈퇴현황

- 1) 회원 가입

(1) 회비증액: 8명

오재림, 박순성, 김선혜, 양승광, 이덕경, 전상희, 유은주, 정용수

(2) 가입: 56명

1월- 배현주

2월- 이수우, 왕영선, 류순희, 안영미, 이향림

3월- 최병욱, 최인숙, 장근식, 박선숙, 정종관, 이현주, 정경실

4월- 이진우, 김순향, 백현주, 이진옥, 정정숙, 노혜은

5-6월- 윤은주, 장해영, 최진, 김민영, 이경숙

7-8월- 최경숙, 함정원, 강선미, 형성철, 김연수, 김명신, 황수연, 유기철, 김명미, 서대범, 정인석, 김임숙, 배찬수, 고유석

9월- 홍수정, 김정애, 박선경, 권덕철, 길준미, 김윤희, 김명희, 김현주, 박성욱

10월- 백명순, 신홍우, 문민영, 양미정, 이명선, 박명희, 홍연표, 전하얀, 이규상

2) 회원 탈퇴: 5명

(1) 탈퇴: 변경환, 이서지, 이현숙, 김달아, 이영희

2. 회원 책 모임

1) 김영래역자와 함께 읽는 오픈 책 수다회 (【8】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 참조)

【5】재정 사업

<2015년 사업계획(안)>

1) 꽃감판에 등

2) 후원행사: 6월 경

1. 꽃감판에

-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날씨가상으로 꽃감을 생산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아 올해 재정사업을 하지못함.

2. 후원의 밤

- 준비위원: 김지호(총괄), 김진희, 안김정애, 유은주, 류지연

1) 사무국 회의

- 일시: 2015년 9월 24일(화)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내용: 초청장 제작 논의-주문제작 및 발송, 홍보대일작성-전달, 후원의 밤 장소 논의-예약, 음식 논의-예약, 프로그램 논의, 탕구성(안) 논의
- 참석: 김지호, 류지연

2) 진행팀 회의

(1) 1차 회의

- 일시: 2015년 10월 1일(목)
-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김지호, 김진희, 류지연, 유은주,
- 내용: 프로그램 구성, 역할 분담, 자리배치 등 전체 논의

(2) 2차 회의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14: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김지호, 김진희, 류지연, 유은주
- 내용: 최종 실무 점검 회의

3) 전체 진행 일정

	티켓,초청장	홍보 및 조직	프로그램	바자회	비고
9/13	견적, 시안				
9/21	시안확정,발행				
10/1		준비위원회 1차	기획안 확정	기획안 확정	
10/5-10/8		공지,전세메일1차			
10/12-10/18	우편 발송				
10/19-10/23		공지,전세메일2차			
10/26-11/3		안내전화			
11/4		준비위원회 2차			
11/9-11/10	준비물 최종 점검				

11/11(행사)	
11/12~11/18	정산 및 평가, 감사연사 예정

4) 프로그램

- 제목: '이제, 평화로 만나자'
-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18:00~20:00
- 장소: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2층
- 내용: 회원들이 함께, 맛난 음식먹고 편하게 인사나누기

(1) 입장시 행사

- 가. 참석자 이름표 붙이기
- 나. Peace-Day 이미지를 활용하기
 - 색지에 "평화는 o o 다"를 떠오를 출력해서 책상위에 필기구와 함께 비치.
 - 3회 정도의 홍보로 개인이 적어서 붙이게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주기

(2) 공간 구성

- 가. 전체 배경 꾸미기
 - 포트존 만들기
 - 바자회: 화장품, 악세사리, 비누 등 (부피큰 의류는 하지않기로 함)
 - 추억놀이 (부호, 원판 돌리기 등)
 - 타로 (이향림 회원, 꿈찾기통합예술치유센터장)

(3) 진행 프로그램

- 가. 사회자 (전상희 회원, 갈등해결센터 부소장)
- 나. 인사말 - 안감정애, 김선혜, 김정수(대표 부설기구장)
 - 축하말 - 김금옥 여연대표, 오경진 여세연 사무국장, 김금주 친학 상담실장
- 라. 평화여성회 2015년 활동영상 - 영상물 속에서 퀴즈 맞추기
- 마. 평화메세지 잘 쓰신분 골라서 선물주기
- 바. 참가자 소개 (방명록순으로 자막 띄움 예정)
- 사. 70세 평화원니들 축하 (이김현숙, 윤수경, 김성은, 박예경) + 선물증정
 - 떡케익 커빙, 전 참가자 와인 건배
- 아. 축하공연 (한정숙 이사-노래, 사무국 식구들+ 70원니들의 노래)

(4) 평가

- 무엇보다도 70세를 맞이하는 여성명화운동 선배님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조촐하

게 마련되어 뜻 깊었다. 축하공연을 해주신 한정숙이사와 지인께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셨고, 후배활동가들이 선배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았다. 매년 활성화된 바자회를 하다보니 참가자들이 바자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미리 홍보하여 물건 확보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행사를 잘 진행 할 수 있었으며, 작년의 경험에 힘입어 더욱 활동력 있는 역할들을 보여주었다. 후원행사 장소는 넓었으나, 가격대비 음식이 조금 부실해서 아쉬웠다.

【6】연대 및 협력사업

1. 국내 상설연대

- 1)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주관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본부
-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담당

- 이사, 통일평화위원장,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 안김장애
- 사무국장연석회의,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김지호, 최민정
- 여성미래센터 임주년제 공동체회의: 김지호

1) 회의

(1) 제1차 정책기획위원 회의

- 일시: 2015년 2월 25일(수) 10:00 ~ 14: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참석: 안김장애
- 내용: 2015년 활동 논의, 제2차 이사회 정책토의 의견, 여성가족부 명칭에 관한 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검토, 보육관련 사안 등

(2) 제2차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 일시: 2015년 4월 28일(화) 10:00~14: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히스토리홀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가. 보고 및 공유: 59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 NGO 포럼평가 보고, 총선 TF 활동 및 총선 대응 워크숍

나. 안건: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의 발전-이나영, 2015 평화통일위원회 활동과 과제-안김정애,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여성운동의 방향과 임윤옥,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성매매전국연대 정미래, 59차 UN CSW Post 2015 지속가능발전 목표-여연 국제인대센터 조영숙)

다. 2016년 총선 대응 활동: 선거제도 개선 및 활동 계획 논의

(3) 이사회

- 일시: 2015년 2월 12일(목) 14: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교육장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이사 소개, 2015년 사업계획 보고 등

(4)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2015년 2월 10일(화) 11:00~15: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김지호

- 내용: 비영리법인 회계 공유, 사업계획 공유, 회의일정 정하기 등

(5) 제20대 총선 의제 및 정부 측 CEDAW(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보고서 반박을 위한 준비 워크숍

- 일시: 2015년 9월 9일(수) 15:00 - 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교육장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20대 총선 의제 만들기 사업 논의, 정부측 CEDAW 보고서 반박 보고서 논의

(6) 여성미래센터

가. 운영위원회 (참석: 안김정애)

- 1차: 6/24(수) 17:00~18:00, 여성미래센터 사업현황과 보고 등 회의자료 검토

나. 입주단체 공동체회의 (참석: 김지호)

- 1차: 2/23(월) 15:00-16:30, 소통방 임대에 따른 회의공간 변동사항에 대한 공유 등
- 2차: 3/23(월) 15:00-16:30, 소통방 임대에 따른 회의공간 변동사항에 대한 공유 등
- 미래센터 입주단체 공동체 점심식사 및 바자회: 4/24(목) 11:00-14:00
- 3차: 9/7(월) 15:00-17:00, 사업현황 공유, 회장실청소조건, 소방교육 일정 공유 등
- 4차: 12/7(월) 15:00-17:00 사업현황 공유, 장소임대현황, 결산 보고 등

2)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21일(월), 11:30-12:30
- 장소: 국회 청문 앞, 새누리 당사 앞
- 참석: 안김정애, 김지호
- 내용: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퍼포먼스, 비례대표 축소 시도하는 새누리당과 여성비하 발언 일삼는 김우성 대표 규탄

3) 행사 및 활동

(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가. 기획회의

- 1차: 1/6(화) 10:00-12:00, 여성대회 사업내용 논의 등
- 3차: 2/24(화) 10:30-12:00, 행사 퍼포먼스, 일정 등의 구체화 논의

나. 제31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 일시: 2015년 3월 8일(토) 11:50-15:00
- 장소: 서대문역(피플워킹), 청계광장
- 내용: SNS사전참여활동 '성평등은 □다', 행진 '피플워킹', 시민참여부스'피플난장', 기념식
- 참석: 안김정애 외 15명

(2)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28주년 기념 후원행사

-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18:00-20:00
- 장소: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석: 안김정애, 김지호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회의

(1) 대표자회의(총회)

- 일시: 2015년 2월 10일(화) 15:00 ~ 17:00
- 장소: 정대협 교육관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2014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 회
원상 수여 등

2) 행사 및 활동

(1) 1177차 수요시위 주관

- 일시: 2015년 5월 6일 (수) 11:30-15:00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 진행: 이권명희
- 참석: 김성은, 김지호, 이권명희, 이덕경, 안김정애, 이주원, 류지연
- 내용: 평화적인 쫓다지기, 여성운동 선배들에게 카네이션 달기, '잔심은 침울하
지 않는다' 퍼포먼스 등.

(2) 1193차 수요시위 및 고 최현열 선생 추모제

- 일시: 2015년 8월 26일(수) 12:00-13:00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 내용: 최현열 열사 추모 및 수요시위 참가

(3) 1200차 수요시위 참가 (【2】 정보홍보사업 창조)

(4) 1211차 추모 수요시위

- 일시: 2015년 12월 30일(수) 12:00-13:00
- 장소: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 내용: 2015 직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한일 위안부 협정 규탄 등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1-3.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담당

- 남측위원회 운영위원, 여성본부: 안김정애(상임대표), 류지연(집행위원)

1) 회의

(1) 상임대표단 회의

- 일시: 2015년 2월 27일(금) 08:00 - 10:00
- 장소: 6·15 남북위원회 사무실
- 내용: 6·15인족공동위원회 실무점검 보고, 사업보고
- 참석: 안김정애

(2) 6기 1차 운영위원회

- 일시: 2015년 3월 20일(금) 15:00~17:00
- 장소: 6·15 남북위원회 사무실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6·15인족공동위원회 실무점검 보고, 사업보고

(3) 대표자 회의

- 일시: 2015년 4월 1일(수) 10:00~11:00
-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광복 70돌 민족 공동행사 준비의 발족식 추진, 사업보고 및 공유

(4) 6기 2차 운영위원회

- 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8:00~9:30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총회 후원의밤 결정(1월 28일 3pm 총회, 5pm 후원의밤) 여부, 내년 평화협정 체결 추진 논의, 한해 평가 등

2) 여성본부

(1) 6.15 여성본부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연석회의

- 일시: 2015년 1월 26일(월) 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히스토리움
- 내용: 6.15 여성본부 총회준비위원회 및 총회 일정 수립
- 참석: 안김정애, 여혜숙, 최민정, 류지연

(2) 총회준비위원회

- 1차: 2/11(수) 10:00~12:00, 총회 일정, 총회 내용 토론, 업무 분담 등
- 2차: 2/26(목) 10:00~11:00, 총회 내용 점검 및 사전 토론 등

(3) 2015년 1차 운영위원회(총회)

- 일시: 2015년 2월 26일(목) 11:00 ~ 13: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내용: 2014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안김정애 상임 대표 선출), 회원상 수여 등

(4) 여성본부 회의

- 1차: 3/31(화) 10:00~12:00, 총회 평가, 북측 실무접촉 제안 공문 용대방안 검토 등.
- 2차: 4/13(월) 10:00~12:00, 심양회의 관련 안전정리 및 상황공유등
- 3차: 5/8(금) 9:00~11:00, 심양 6.15 행사 대표단 실무회의 결과 보고 및 공유 등
- 4차: 8/5(수) 11:00~12:00, 8.15 민족통일대회 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토론 등

(5) 6.15 여성본부 실무회의

- 일시: 2016년 12월 26일(화) 1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 내용: 남북여성들의 모임 건 실무 마무리 회의
- 참석: 류지연

3) 행사 및 활동

(1) 6.15 남측위원회 총회 및 후원의 밤

- 일시: 2015년 1월 30일(금) 16:00
- 장소: 한국노총 6층 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여혜숙

(2)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광복과 분단 70년 맞이 제 단체 간담회(4차)

- 일시: 2015년 3월 4일(수) 11:00 ~ 13: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진행상황공유 및 토론

(3) 남북측 여성본부/여성분과위원회, 3·8여성의 날 공동호소문 발표

- 일시: 2015년 3월 8일(일) 11:00
- 제목: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형식: 보도자료 배포

(4) 광복 70돌 민족 공동행사 준비위 발족식

- 일시: 2015년 4월 1일(수) 11:00~12:00
 -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2015년 사업 계획 공개발표 기자회견
- (5) 6.15 평화통일콘서트
- 일시: 2015년 4월 2일(목) 19:00~21:00
 - 장소: 시청 다목적홀
 - 참석: 류지연
 - 내용: 4.2 남북공동성명 기념 및 평화통일 기념 콘서트
- (6)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 일시: 2015년 5월 9일(토) 16:00~18:00
 - 장소: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참석: 류지연
 - 내용: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상사 축구 토론대회
- (7) 광복 70돌-6.15 15돌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6.15여성본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일시: 2015년 6월 9일(화) 11:00~12:00
 -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 내용: 정부 개입 규탄 및 6.15 민족공동행사 협조 촉구 등
- (8)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농성 참여
- 일시: 2015년 6월 8일(월)
 -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정부 개입 규탄 및 6.15 민족공동행사 협조 촉구 등
- (9) 6.15 공동선언 15돌기념 민족통일대회
- 일시: 2015년 6월 14일(일) 16:00~20:00
 - 장소: 천도교 수운회관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 내용: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및 실질적 통일 노력 촉구 행진 등
- (10) 8.15 광복70주년 평화통일선언 모집
- 내용: 8.15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평화통일선언에 함께하는 시인 연명 모집
 - 참가: 평화여성회 동참 회원 50여명

- 비고: 1천원 선언기금으로 8.15민족통일대회 광고비용, 대회계획비용으로 사용.
한겨레 신문 광고 실림.

(11) 8.15 민족통일대회

- 일시: 2015년 8월 15일(토) 15:00~16:30
- 장소: 대학로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 내용: 서울시민 8.15 시민 합창, 한미일 군사협력 규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군사적 충돌 방지방안 촉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요구 등

(12) 8.15 반전평화 범국민대회

- 일시: 2015년 8월 15일(토) 16:30~19:00
- 장소: 대학로~종각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 내용: 일본 재무장 규탄 및 미군 탄저균 불법반입, 사드배치 규탄, 반전 평화 행진 등

(13) 통일부 관계자와의 면담

- 일시: 2015년 9월 23일(수) 09:00- 10:00.
- 장소: 통일부
- 참석자: 교류협력과장 김용규, 유재운 사무관, 안김정애 평여 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 최진미 615여성본부 집행위원장
- 내용: 9월 18일에 접수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의 실무접촉 서한에 대한 회신 조치 건. 통일부 입장은 타 기관과 협의 후 다시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결국 실무접촉 불허 입장 확인.

(14) 남북여성공동 행사 불허 통일부 규탄 1인시위

- 일시: 2015년 10월 15일~10월 31일 11:30~12:30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참석자: 안김정애, 김지호, 류지연 등 6.15 공동단위 총 12인
- 피켓 내용: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남·북 여성들의 만남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만남을 기원하는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담당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1) 회의

(1) 대의원총회

- 일시: 2015년 2월 26일(목) 15:00-17:00
- 장소: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김지호
- 내용: 2014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15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 회원상 수여 등

(2) 여성위원회 회의

가. 1차

- 일시: 2015년 3월 17일(화) 11:00-13:00
- 장소: 민화협 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여혜숙
- 내용: 신임회장단 선출, 2015년 사업계획 공유

나. 2차

- 일시: 2015년 11월 6일(금) 11:00-13:00
- 장소: 민화협 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사업 보고 및 여성위 하반기 사업논의 등

(3) 여성위원회 소위원회

-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10:30-12:30
- 장소: 민화협 회의실
- 참가단위: 본회,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계평화여성연합, 평화동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2015년 활동평가 및 2016년 사업 계획 발표 및 논의, 각 단위 2015년 활동내용 공유 및 2016년 구체 행동 계획 제시 등.

2) 행사 및 활동

(1) 여성위원회 워크숍

- 일시: 2015년 7월 20일(월) 15:00-19:00
- 장소: 뉴국제호텔 두메라룸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강연(본단시대 극복을 위한 여성의 역할-조명주 발제), 라운드테이블, 식사

- (2) 회원단체와 함께하는 통일기행
- 일시: 2015년 9월 9일(수) 9:00~17:00
 - 장소: 판문점 및 파주 민통선 일대
 - 참석: 김지호
- (3) 통일문화축제
- 일시: 2015년 10월 9일 12:00~10월 11일 12:00
 - 장소: 경기도 연천군 '땅에 미소' 오토 캠핑장
 - 참석: 안김정애
- (4) 후원의 밤
- 일시: 2015년 11월 16일(월) 17:00~19:00
 - 장소: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참석: 안김정애
- (5) 회원단체와 함께하는 통일기행-2차
-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9:00~17:00
 - 장소: 판문점 및 파주 민통선 일대
 - 참석: 김성은, 안김정애
- (6) 북중 접경지역 실무자 연수
- 일시: 2015년 12월 3일~ 12월 6일
 - 장소: 단동 및 심양
 - 참석: 김지호
- (7) 여성위원회 여성 평화통일 대화머당
-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14:00~16:00
 - 장소: 뉴국제호텔 두메라룸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주제발표 및 사례발표본 회 소개 포함)
- (8) 북중 접경지역 실무자연수 평가회의
- 일시: 12월 29일(화) 17:00~19:00
 - 장소: 민화협 회의실
 - 참가: 김지호

2. 국내 사안별 연대

<2015년 계획>

- 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 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2-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활동 없음.

2-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1)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안전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2월 9일(월) 11:00~12: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가 현재 수명연장 심사에 들어가 원전 규제감독기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월12일 예정된 공식 회의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 하지만 원안위 심사는 기술적 안전성에 맞춰져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 요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 이에 월성1호기 폐쇄를 국민들의 요구로 요청. 성명서 연대에 참여함.

2-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 1) 강정마을 후원주점 연대 자원봉사
 - 일시: 2015년 5월 23일(금) 15:00~23:00
 - 장소: 울지로 태성골뱅이
 - 참석: 류지연
 - 내용: 강정마을 후원 주점 연대 자원봉사활동
- 2)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 일시: 2015년 7월 27일(월) ~ 8월 1일(토)
 - 장소: 제주도 일대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중단 요구 행진, 강정마을 3000일 투쟁 경과보고 등

3) 2015 강정 3000일 경과 광고 후원에 동참

2-4. 기타

1) 평화·통일운동, 여성운동, 군속활동 등 관련 활동

(1) 시민병화포럼 운영위원회 회의

- 일시: 2015년 3월 19일(목) 16:00~18:00
- 장소: 서울시 NPO 센터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2015년 사업계획 공유, 활동가대회 공지, 예비트제단 책 발간기념회

(2) 한국여성재단 기부일레이 발대식

- 일시: 2015년 3월 26일 (목) 10:30-13:00
-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 참석: 안김정애, 최민정
- 내용: 기부일레이 발대식 참가

(3) 여성단체-서울시장과의 간담회

- 일시: 2015년 3월 27일(금) 19:00~20:30
- 장소: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여성단체들 사업 내용 공유, 시장에게 건의사항 제시 및 의견수렴.

2) 미군 탄저균 무단 반입 대응 건

가. 기자회견

가) 탄저균 무단 반입, 불평등 한미관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6월 1일(월) 14:00~16:00
- 장소: 평택, 오산 미군기지 앞
- 참석: 유지연
- 내용: 미군의 탄저균 무단 반입 및 불평등 한미관계 규탄 기자회견, 미 오산 기지 철조망에 미군에게 보내는 편지 달기 퍼포먼스 등.

나)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6월 16일(화) 11:00-12:00

- 장소: 주한미대사관 앞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규탄 및 국민고발단 모집

나. 행동 및 실천

가) 서울시민공동행동

- 일시: 2015년 7월 25일(토) 15:00~17:00
- 장소: 전쟁기념관, 용산미군기지
- 참석: 유지연
- 내용: 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규탄 및 평화협정 체결 요구 집회, 행진 등

나) 군산 미군기지 탄저균 불법반입 항의행동

- 일시: 2015년 8월 11일(화) 14:00~18:00
- 장소: 군산 미군기지 앞
- 참석: 유지연
- 내용: 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규탄 리본 걸기, 행진, 항의서한 전달 등

다) 평택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불법반입 항의행동

- 일시: 2015년 8월 14일(금) 14:00~18:00
- 장소: 평택 오산미군기지
- 참석: 유지연
- 내용: 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규탄, 한미일 군사 동맹 규탄 행진 및 오염경고 리본과 명함 던지기 퍼포먼스 등

(6) 기독교연합회 주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동북아 정세" 토론회

- 일시: 2015년 6월 3일(수) 11:00~13:00
- 장소: 기독교 회관 901호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최근 미국과 일본의 밀월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

(7)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 필요성과 과제' 집담회

- 일시: 2015년 7월 14일 (화) 14:00~17:00
- 장소: 경기도 의회 소회의실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경기도에서의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및 조례안 검토, 기지촌 여성의 목

소리 듣기

(8) 통일준비위원회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 일시: 2015년 9월 2일(수) 14:3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김은주) 발제에 토론회로 참석

(9) 아이효재 선생 제언, '박근혜 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여성평화선언' 검토 회의

- 일시: 2014년 9월 10일(목) 14:3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여성평화선언 배경 공유 및 내용상 수정 제안 부분 제안, 선언 방식 검토

(10) 기지촌여성인간관련대 국가소송 5차 방청

- 일시: 2015년 9월 11일(금) 14:00~16:00
- 장소: 서울지방법원 466호 방청

2) 세월호 참사 대응

(1) 세월호 1주기 여성단체 릴레이 단식농성

- 일시: 2015년 4월 15일(수) 16:00~20:00
- 장소: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 내용: 동조 단식 및 리본 만들기

(2) 세월호 1주기 추모 문화제

- 일시: 2015년 4월 16일(목) 18:00
- 장소: 시청광장, 광화문 일대
- 참석: 안김정애, 김성은, 류지연, 김선혜, 명희
- 내용: 세월호 인양요구, 진상규명, 시행령 폐기 요구 문화제 및 행진

(3) 세월호 1주기 추모 행동

- 일시: 2015년 4월 18일(토) 18:00
- 장소: 광화문 일대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 내용: 세월호 인양요구, 진상규명, 시행령 폐기 요구 행진

(4) 세월호 진상규명 문화제

- 일시: 2015년 4월 25일(토) 18:00

- 장소: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참석: 류지연

(5) 세월호 진상규명 범국민 철야 행동

- 일시: 2015년 5월 1일(금) ~ 2일(토)
- 장소: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참석: 안김정애, 류지연

(6) 세월호 시행령 강행처리 규탄촛불

- 일시: 2015년 5월 9일(토) 18:00-20:00
- 장소: 광화문 농성장
- 참석: 류지연

(7)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 조사 보고대회

- 일시: 2015년 7월 15일(수) 10:00-10:30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0호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구조대원, 관계자들의 인권침해/피해와 관련한 육성 증언의 영상화, 녹취, 평가 등을 수록한 조사보고서 발표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1) 촛불 집회 참가

- 일시: 10/12(월), 10/14(수), 10/15(목), 10/17(토), 10/20(화), 10/21(수), 10/23(금), 10/24(토), 10/31(토), 11/3(화)

(2) 기자회견 참가

- 일시: 2015년 10월 12일(월)
- 장소: 청운동 사무소 앞
- 내용: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저지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4) 민중총궐기

(1) 1차 민중총궐기

- 일시: 2015년 11월 14일(토)
- 장소: 광화문 일대
- 내용: 노동개약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11대 요구인 부문별 신별 집회 후 광화문대로 행진

(2) 2차 민중총궐기

- 일시: 2015년 12월 5일(토)
- 장소: 청계광장부터 종로 대학로 일대
- 내용: 백남기농민 괴우 및 공권력 과잉 대응 규탄, 노동계약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집회 후 행진

(3) 3차 민중총궐기

- 일시: 2015년 12월 19일(토)
- 장소: 광화문 광장
- 내용: 한상균 민주노동 위원장 구속 규탄, 소묘죄 적용에 대한 규탄 소묘 시위

4) 기타 연대단체 후원 및 모금활동

- (1) 6/1(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후원행사
- (2) 8/20(목)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면 후원행사
- (3) 7/8(수) 전국여성연대 후원행사
- (4) 9/10(금) 홍시단 후원행사
- (5) 9/14(일) 참여연대 후원행사
- (6) 11/15(일) 정대협 후원행사
- (7) 12/20(수) 한국여성재단 후원행사

3. 국제연대

<2015년 계획>

- 1) GPPAC
- 2) Women Peacemaker Program

3-1. 무력 갈등 예방 국제 연대 GPPAC 활동

1) GPPAC 워크숍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예방' (【1】조직사업의 3-2. 국제협력위원회 활동 참조)

3-2. 도쿄 ZENKO(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전국-일본 교류회) 회의

- 일시: 2015년 7월 31일(금) ~ 8월 2일(일)
- 장소: 일본 도쿄

- 참석: 평화
- 내용: 전쟁-원전-빈곤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제 연대 활동, 평화본과 평화여성회의 평화통일운동 소개 및 공유 등

3-3. Women Peacemakers Program

-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 9일(수)
- 장소: 필리핀 마닐라
- 참석: 안김정애
- 내용: <The Asia Consultation on Gender and Militarism>
 - 가. The Asia Consultation on Gender and Militarism
 - 나. The Glorification of War in the Asia Region
 - 다. How Counterterrorism Measures contributes to Militarization, and the Effects on (women's) civil organizations
 - 라. Countering Religious Extremism in Asia
 - 마. Weapons as drivers of war - a Global Problem needs a Global Solution
 - 바. Changing militarized Societies through Peace Education
 - 사. A Feminist Analysis of Macroeconomics, Gender and Conflict

4. 평가

- 연대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경험과 평화여성회에 대한 인지를 넓힐 수 있었다. 시국 정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활동가 개인의 역량에 치우쳐서 개인의 창기에 불과했던 점을 빌어 평화여성회 차원의 조직적인 연대에 대한 기민함과 평화여성회 만이 이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국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 기초적인 역할도 다른 단위의 주체적인 역량에 기대어 목소리와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한다.

【7】부설 갈등해결센터

1. 조직

1) 구성

- 소장: 김선혜
- 부소장: 이덕경, 전상희
- 운영위원회: 김선혜(소장), 김명진, 김진희, 김지호(본회 총무국장), 명희, 양승광, 유은주, 이덕경, 전상희
- 자문위원: 강순원(한신대 교수), 김차연(변호사)
- 전문위원: 박수선, 박인혜, 여해숙, 이경순, 조영희
- 사무국: 명희(부장), 이주원(활동가), 성연진(활동가)

2) 운영위원회의

- (1) 1차: 1/21(금) 13:30~15:30. 운영규정 개정안, 강사관리 시스템,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운영위원 선출 등
- (2) 2차: 1/26(월) 19:00~22:00.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정하기. 부소장 선출, 강사관리 시스템, 회원공부모임 주제, 도래조정사업 관련 토론회, 프로젝트 사업 논의 등
- (3) 3차: 3/27(금) 19:15~22:00. 토론회 평가, 도래조정 교육에 관한 논의, R1대화 모임 진행자 모임 등
- (4) 4차: 5/22(금) 19:15~21:30. 활동보고, 갈등해결센터 재정구조에 관한 논의, 심화이론과정 개설 논의 등
- (5) 제5차: 7/24(금) 19:15~22:00. 갈등해결센터 상반기 사업평가, 갈등해결센터 재정 논의 등
- (6) 제6차: 8/13(목) 19:30~21:30. 갈등해결센터 상반기 사업 평가
- (7) 제7차: 9/18(금) 19:15~21:30. 활동보고, 모금기획 관련 논의, 하반기 사업 진행 논의 등
- (8) 제8차: 11/13(금) 19:15~21:30. 활동보고, 모금기획 관련 논의 공유, 운영위원회 MT논의
- (9) 제9차: 12/4~5(금~토) 운영위원회의 MT 2015년 활동 평가
- (10) 제10차: 12/18(금) 19:15~21:30 2016년 사업계획 아이디어 모으기, 운영위원 선임

3) 소장단회의

- 일시: 수시
- 참석: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4) 사무국회의

- 일시: 매주 1회
- 참석: 김선혜, 명희, 성연진, 이주원

5) 전문-자문위원 간담회

- 일시: 2015년 7월 21일(화) 16: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미래방
- 참석: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여혜숙, 김차연, 명희, 이주원
- 내용: 갈등해결센터 상반기 활동 보고

6) 청소년교육 진행사 모임

(1) 1차 회의

- 일시: 2015년 7월 24일(금) 15: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영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채지영, 명희, 이주원
- 내용: 청소년 교육 현황과 현장의 변화, 교육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인트라넷 개설 등

(2) 2차 회의

- 일시: 2015년 12월 28일(월) 14:00~16: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영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채지영
- 내용: 교육진행자 역량 강화 방안과 학습 계획, 도래조정 해외연수 논의

7) 모금기획팀 회의

(1) 1차

- 일시: 2015년 8월 21일(금) 19:00~21: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유은주, 양승광, 명희
- 내용: 신규 회원 확대 및 관리에 관한 논의

(2) 2차

- 일시: 2015년 10월 20일(화) 19:30~21:30

- 장소: 종로 민동래영도
- 참석: 김선혜, 전상희, 김진희, 유은주, 양승광
- 내용: 회원 확대 상황 점검 및 방향 논의

8)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강사시연

1) 기획회의

- 1차: 7/15(수) 15:00~17:00. 김선혜,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명희, 시연 평가 기준 논의
- 2차: 8/18(화) 19:00~22:00.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명희, 시연에 대한 평가
- 3차: 9/1(화) 17:00~18:00.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명희, 시연 후 과정 논의

2) 시연

- 일시: 2015년 8월 18일(화) 10: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김민영 외 7명 시연
- 결과: 시연 참가자 각각 시연평가서 개별 송부

9) 평가

- 조직적으로 부소장체계 신설하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다양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그간 갈등해결센터 시연을 학교와 지역사회 부문으로 나누었으나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한 결과 사업을 두 부문으로 나누고 조직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활동회원을 모두 아우르는 조직체계의 필요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운영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하고 운용한 것이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질 필요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각 단위별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하반기에는 사무국 활동가의 퇴직과 채용의 어려움으로 안정적 사무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모금기획팀의 운영으로 후원회원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2. 학교평화커뮤니티 사업

<2015년 사업 계획>

- 1) 학교별 평화커뮤니티 사업: 평화교육, 토래조성,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을 학

교별로 코디네이터가 추진(연중)

2) 청소년 평화감수성 교육프로그램(연1회)

2-1. 교사·학부모 대상 평화교육

연번	지역	기관/학교	대상	회차	시간	인원	주제	강사	교육일자											
									3	5	6	7	8	9	10	11	12			
1	강원	현천고	교사	1		16	갈등해결 (워크숍)	이혜숙, 전상희						28, 29, 30						
2	경기	동곡초	학부모	1	1.5	3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영진	25											
3	경기	여주 회복적정신 교육연구회	교사	2	6	23	회복적정신 조정사 훈련과 서술	박주선, 김영진, 전상희, 이혜숙, 전상희				10							23	
4	경기	운산고	교사	2	6	15	회복적 생활지도	김선애			24									28
5	경기	산동학교	교사	1	12	15	회복적정신 기대대화모임	김선애, 이혜숙						13, 14						
6	경기	산동학교	교사	1	7	20	회복적정신 실습	이혜숙, 박연애, 김진희						17						
7	경기	도래울초	학부모	1	2	23	부모교육	전상희												4
8	서울	구로초	학부모	1	1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영진						9						
9	한국 청소년 재단	가양초	교사	1	1	3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17									
10		동명초	학부모	1	1	2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영진						14						
11		배경중	교사	1	1	47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8						
12		상희초	교사	1	1	3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전상희						6						
13		장안초	교사	1	1	3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6						
14		장안초	학부모	1	1	5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박연애						21						
15		구로초	학부모	1	1	3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김영진						7						

16	백석초	학부모	1	1	4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박인혜			13			
17	도성초	교사	1	1	58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7			
18	대암초	교사	1	1	3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박인혜			7			
19	대암초	학부모	1	1	6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9			
20	도성초	학부모	1	1	15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14			
21	산재초	학부모	1	1	15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박인혜			16			
22	세강초	학부모	1	2	10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23			
23	봉천초	학부모	1	1	8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덕경			6			
24	오현초	학부모	1	1	40	이북적 생활교육	전상희			13			
25	석촌초	학부모	1	1	70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전상희					3	
26	민천	연월초	교사	1	2	22	교실 내 갈등다루기	김영진					11
27	경기	흥도초	학부모	1	2	20	지녀와 의사소통	강신혜					1

2-2. 토리조정

연번	지역	급별	학교	회사	시간	연원	강사	교육일자											
								1	3	4	5	6	7	8	9	10	11	12	
1	민천	중	신용중	5	15	32	김영진, 김인희	6.23 30	6.13										
2	민천	초	신송초	12	24	18	김영진		21	12.2 6	9.23		8		16.2 3				
3	경기	중	과현중	10	22	20	이덕경, 김인희		29.1 6	7.14 21.2 8	4.11 18								
4	경기	고	불곡고	5	15	19	김영진, 김지영		24	22	19	17	21						
5	서울	중	관악중	6	18	19	김영진, 이덕경		2		4	9		3					
6	경기	초	역북초	10	20	16	유은주		1.8.1	13.2	17.1								

								5,232.29	7	8.29							
7	경기	초	하안북초	3	6	12	유은주	30	28	25							
8	경기	중	성주중	2	12	15	이덕경, 김인희	10.11									
9	경기	중	청송중	7	14	12	유은주	16	21	18	16	27	3	15			
10	서울	초	봉은초	5	10	19	이덕경		22.29	26	3.10						
11	인천	초	능이다초	4	16	20	이덕경		20.27	3.10					19		
12	경기	고	성남방송고	4	12	21	유은주			19		21	18	20		18	
13	인천	초	청일초	8	16		김인희		3.81	0.15	16.1	7.32					
14	경기	중	명륜중	6	12	13	유은주		5.22	26	3.13	17					
15	한양 대학교 신촌 대학 재단	중	명지중	2	4	18	전상희, 김인희		12.19								
16		중	성원중	2	4	16	유은주		11.12								
17		중	성일중	2	4	15	유은주				6.10						
18	서울	고	신림고	1	8	20	이덕경				25						
19	경기	동	교림중	4	15	60	유은주, 이은영, 김인희				22.29	2.5					
20	경기	중	반월중	10	10	19	유은주	12.13			10.11	1.12	13.14				
21	서울	초	광명남초	6	12	15	김영민				10.11	1.12	17.19				
22	서울	초	당곡초	5	20	20	이덕경				3.45	.6					
23	경기	고	퇴계원고	1	3	22	이덕경				28						
24	서울	고	신서고	5	15	20	이덕경						25	16.30	6.27		
25	경기	초	벽곡초	6	12	21	유은주, 이덕경						30	7.14	21.2	11	

26	서울	초	오봉초	10	10	21	이은영				8	
										10.17	8.15	
										24		
27	한양대학교 스포츠센터 레단	초	시정초	2	4	27	유은주, 전상희				19.20	
28		중	방원중 2개반	2	4	26	유은주				30	27
29		중		2	4	27	김영진, 이은영				30	27
30		경기	중	부흥중	4	8	20	이덕경			13.20	3.10
31		경기	초	인덕원초	5	10	8	이은영			7.14	4.11
										21		
32	한양대학교 스포츠센터 CC	초	원효초 2개반	2	4	23	이덕경				5.12	
33		초		2	4	23	채지영				5.12	
34		초	영남초 2개반	2	4	18	이덕경				13.20	
35		초		2	4	19	이은영, 전상희				13.20	
36		초	망명초 2개반	2	4	21	전상희				15.22	
37		초		2	4	20	김영진				15.22	
38		초	구로남초	2	4	20	전상희					10
39		초	수암초	2	4	29	김영진					2.9
40		초	개운초 2개반	2	4	27	김진희					26
41		초		2	4	27	이덕경					26
42		중	용문초	2	4	23	김진희					4.11
43		초	무송초 2개반	2	4	24	이덕경					4.11
44		초		2	4	25	김진희					4.11
45		초	영목초	2	4	25	이은영					3.5

46	초 영종초	2	4	21	전상희															20
47	초	2	4	23	김영진															17
	김영초																			
48	초	2	4	24	이덕경															17
49	초 양목초	2	4	28	이덕경															3, 5
50	초	2	4	20	전상희															17
	구로남초																			
51	경기 중 남양중	1	2	20	유은주															13
52	경기 고 덕산고	1	3	30	이덕경, 김진희															7

2-3. 청소년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연번	지역	기관	대상	회차	시간	주제	강사	교육일자													
								2	3	4	5	6	7	8	9	10	11	12			
1	강원	동학민족 통일회	초중	1	1.5	갈등해결과 평화	김영진, 유은주														30
2	경기	광운초	5학년 5계반	1	2	갈등해결과 평화	김영진, 이영희, 유은주, 이덕경				16										
3	경기	송은중	중2 여학생	6	12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은영							3	3						
4	경기	모동여림터	중학생	1	3	갈등해결과 평화	김영진														16
5	서울	오문초	도제 상담반	10	5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은영						2	3							
6	서울	자오나학교	중고생 일반	2	4	의사소통	이혜숙, 김진희							26	2						
7	서울	한경은중연합	중고생	1	2	갈등해결과 평화	김영진			7											
8	서울	오문초	도제 상담반	10	5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은영														3
9	서울	윤중중	3학년 9학년	1	2	평화로운 갈등해결	김영진, 김진희, 이덕경														19, 20
10	서	성광갈리교	초등반	1	1	분노와	김영진														25

순	회				의사소통									
11	서울	영등포고	학생	6	16	피실리레이터	전상희					29	10 13	8
12	서울	수락중	학생	1	2	외복직 소통	이덕경					31		
13	인천	대안교육센터 더 에디스쿨	재일학 중고생	5	15	평화로운 공동체 구성	유근우, 김민희, 김민정, 김민서, 김민서	4.6 11.3 13.3						
14		위례초 4개반	5.6학 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김민정,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16 17 18		
15		중앙초 2개반	6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김정아, 김상희					22		
16		서초초 2개반	6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이은영, 채지영					22		
17		강산초 2개반	5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김진희, 신수희, 김소영					23		
18		충명초	5.6학 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엄금옥					23		
19		경신초 2개반	6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유은주, 김은영					23		
20		정일초 4개반	6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유은주, 채지영, 유은주, 김은영					24 25 26		
21	인천	동담초 2개반	6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채지영, 김상희					25		
22		남일사초 2개반	5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엄금옥, 김은영					26		
23		양정초	5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이은영					29		
24		대곡초 2개반	5학년	1	1.5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유은주, 이은영					30		
25		용마초	6학년	1	1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채지영					1		
26		남성초 2개반	6학년	1	1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엄금옥, 채지영					2		
27		분당초	4학년	1	1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유은주					2		
28		서강초	5학년	1	1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김진희					3		
29		송천초 4개반	5, 6학년	1	1	공동체결과 의사소통	전상희, 김진희					6 7		

					영 미 영 영					
30	삼천초	3학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김정아			7	
31	봉성초 2개반	4. 5학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임금옥 채지영			7	
32	개동초	4.5.6학 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임금옥			8	
33	서빙고초 2개반	4.5학 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이은영, 유은주			9	
34	동명초 2개반	5학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김진희, 채지영			10	
35	백석초 2개반	5학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이은영, 채지영			10	
36	신봉초 2개반	6학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임금옥, 유은주			15	
37	명덕초	6학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이은영			16	
38	당서초	5학년	1	1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김진희			16	
39	우솔초 2개반	5학년	1	2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이은영, 채지영			1	
40	정목초	6학년	1	2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채지영			1	
41	침봉초	5학년	1	2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채지영			7	
42	도곡초 2개반	5학년	1	2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임금옥, 이은영			9	
43	축석초	6학년	1	2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김진희			11	
44	문덕초 2개반	6학년	1	2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임금옥, 김진희			14	
45	은천초	5학년	1	2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유은주			15	
46	경 기	동명초	4.5학 년 각 2개 반	1	2	강동해경	김진희, 임금옥			14 21
47	경 기	역곡초	4.5학 년 각 1개반	2	4	평화로운 의사소통	이덕경, 유은주			28 29

2-4. 학교 내 대화모임

- 1) 서울시 **중학교 대화모임
 - 일시: 2015년 4월 15일, 16일
 - 장소: **중학교 wee클래스실
 - 진행: 여혜숙, 이덕경, 이주원(기록)
- 2) 고양시 **중학교 대화모임
 - 일시: 2015년 5월 29일, 31일
 - 장소: **중학교 wee클래스실
 - 진행: 여혜숙, 김금주, 전상희(기록)
- 3) 남양주시 **학교 대화모임
 - 일시: 2015년 6월 30일(화), 7월 6일(월)
 - 진행: 여혜숙, 김진희, 정종민(기록)
- 4) 강원도 **학교 대화모임
 -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 12월 4일(월) 12월 21일(월)
 - 진행: 김선혜, 전상희

2-5. 교육부 토래조정 운영사업

- 1) 토래조정 지원단회의
 - 일시: 2015년 1월 17일(토) 16:00~19:00
 - 장소: 대전 유성호텔
 - 내용: 2014년 토래조정 사업 지역별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
 - 참석: 김선혜, 김영진, 유은주, 이덕경, 전상희, 명희
- 2) 2014년 토래조정 우수사례 시상식
 - 일시: 2015년 1월 28일(수) 14:00~18:00
 - 장소: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참석: 김선혜, 명희

2-6. 청소년 평화 감수성프로그램

- 1) 포물양국지역아동센터 갈등해결 교육
 - 일시: 2015년 2월 6일, 3월 6일 오후4시~6시
 - 장소: 포물양국지역아동센터(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 참석: 중학생 4~7명

- 진행: 김영진, 김진희

2) 청소년 평화감수성프로그램 개발팀 평가회의

- 일시: 2015년 3월 25일(수) 13:30-15:00

- 장소: 국회 안 카페

- 참석: 김진희, 유은주, 이덕경, 명희, 이주원

- 내용: 포탈왕국지역아동센터 교육 평가 및 향후 진행방안 논의

2-7. 평가

- 학교단위의 수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의뢰한 교육의 영향으로 학부모교육, 도래조정 교육,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모든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교육부 도래조정 시범사업이 종료된 첫 해로 도래조정 교육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교육 횟수로는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교육내용이 짧은 시간 도래조정을 소개하거나, 장시간 교육에도 학교 시스템과 관계없이 교육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선 '도래조정자'를 훈련하고 양성하기보다, 중립적 3자 역할로 도래조정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내용을 수정해 진행하였다.

- 청소년평화리더십 캠프를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평화감수성 프로그램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교육 기관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센터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정부가 도래조정을 학교폭력 방지대책으로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자율적 갈등해결방법으로서 도래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만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2015년 사업 계획>

1)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연1회)

2) 활동배우기 워크숍(연1회)

3) 회의진행자 훈련(연1회)

4) 조정자 훈련(연1회)

5)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연1회)

6)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연중)

3-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1) 12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 일시: 2015년 4월 24일(금)-25일(토), 4월 29일-6월 3일 매주(화,목)
18:30-21:30 (총 42시간)
- 장소: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자: 27명(수료: 21명)
- 진행: 김선혜, 김영진, 박수선, 이경순, 이덕경, 전상희, 원윤미, 강순원, 김영자, 명희, 이주원
- 후원: 서울시여성발전기금

(1) 기획회의

- 1차: 3/9(월) 14:00-17:00,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명희, 이주원, 12기 강사트레이닝 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팀 구성, 활동배우기 워크숍 기획팀 구성,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도래초점 강사양성과정 논의
- 2차: 4/23(목) 10:30-12:00, 김선혜, 류순희, 박혜연, 이경숙, 명희, 이주원, 11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이후 변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 3차: 6/1(수) 19:00-20:30,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서민화, 이진우, 장해영, 정종란, 명희, 이주원, 12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과정 평가
- 4차: 6/23(화) 14:00-16:00, 김선혜, 김영진, 박수선, 이덕경, 전상희, 명희, 이주원, 12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과정 평가 및 개선방향 논의

2)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1) 1차

- 일시: 2015년 7월 15일(수) 18:30-21: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지하 교육장
- 진행: 박보영
- 내용: 평화교육의 다양한 접근과 교육 방법론
- 참석: 김진희 외 26명
- 후원: 서울시여성발전기금

(2) 2차

- 일시: 2015년 8월 26일(수) 18:30-21:3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NGO열린마당

- 진행: 이대훈
- 주제: 평화교육 진행자의 평화감수성
- 참석: 김선훈 외 22명
- 후원: 서울시여성발전기금

(3) 3차

- 일시: 2015년 10월 3일(수) 18:30-21:3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NGO얼린마당
- 진행: 정진
- 주제: 지역사회와 평화교육
- 참석: 김선훈 외 14명
- 후원: 서울시여성발전기금

3)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토래조청 감사양성과정

- 일시: 2015년 5월 27일(수) ~ 7월 24일(금) 09:00~13:00
- 장소: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참석: 14명
- 진행: 김선훈, 김영진, 이덕경, 여혜숙, 전상희

(1) 기획회의(구성: 김선훈, 김영진,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 1차: 4/10(금) 16:00, 강사드레이닝 교육 교안 협의

3-2.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활동배우기

- 일시: 2015년 6월 27일~7월 18일 매주 토요일 13:00~18: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 NGO얼린마당
 - 참가: 22명(부분 참가자 포함/수료: 17명)
 - 진행: 김영진,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 1) 기획회의(구성: 김선훈, 김영진, 박인혜,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명희)
- 1차: 3/26(목) 14:30~16:30, 활동배우기워크숍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논의
 - 2차: 4/12(일) 15:00~17:00, 활동배우기워크숍 프로그램 교육계획안 시연과 진행방식 논의, 역할분담 등
 - 3차: 5/11(월) 14:00~14:00, 활동배우기 워크숍 사전 논의
 - 4차: 6/14(일) 14:00~17:00, 활동배우기 교안 협의
 - 5차: 7/1(수) 14:00~15:00, 1강 평가를 기초로 이후 강령 논의
 - 평가회의: 7/18(토) 19:00~21:00, 활동배우기 과정평가 및 개선방향 논의

3-3 회의진행자훈련

- 센터 별도의 회의진행자 훈련은 개설하지 못하였고, 사회적경제 종사자(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한국방송광고공사 주관)와 마을활동기(성북구), 교육종사자(금천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아울러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사업 200 인회의 진행자 교육을 별도 실시하였음

3-4. 회복적정의 조정자훈련

1) 제 8기 회복적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조정자훈련

- 일시: 2015년 3월 7일, 14일, 21일, 28일 09:00~18:00 (총 30시간)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NGO열린마당
- 참석: 총 23명(신규:18명/재참가:5명)
- 진행: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이경순, 전상희, 이주원
- (1) 기획·평가회의(구성: 김선혜, 박수선, 이경순, 이덕경, 전상희, 이주원)
 - 1차: 2/2(월) 13:30~15:10, 수업의 목표와 내용, 감사진 구성 등
 - 2차: 2/28(토) 10:00, 세부교육프로그램 검토, 교재구성 및 시나리오, 평가 설문, 예산점검, 후속모임에 관한 건 등
 - 3차: 4/6(월) 19:00~20:00, 전체 교육과정 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등

2) 회복적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심화워크숍

(1) 1차

- 일시: 2015년 5월 26일 10:00~17:00
- 장소: 마포청소년문화의집
- 참석: 최진 외 8명
- 진행: 김선혜, 박인혜, 여혜숙, 이주원

(2) 2차

- 일시: 2015년 10월 24일 10:00~17: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열린마당
- 참석: 김경연 외 5명
- 진행: 김선혜, 전상희, 유은주

3-5. 마포 평화커뮤니티 만들기 사업

1) 하늘초등학교 갈등해결 교육

- 일시: 2015년 5월 일, 6월, 7월 13일(월요일 1~2교시)
- 대상: 하늘초등학교 4학년 7개반 중 6개반
- 장소: 4학년 각 반 교실
- 진행
 - 코디네이터 : 전상희
 - 문경아, 김영진, 김진희, 이덕경, 유은주, 엄금옥/ 김영신, 박혜연, 이경숙, 이문희, 한영리, 함정원
 - 참여관찰 강순원 지은위원

2) 청소년 감동해결교육 및 도래조정

연월	기관	대상	회차	시간	주제	현원	강사	교육일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하늘초	4학년 6개 반	10	20	감동해결	문경아, 엄금옥, 이덕경, 김영진, 김진희, 유은주, 박혜연, 함정원, 한영리, 이문희, 김영신	11 18	1.15 29	13	21	7	5.12		
			6	12	도래조정	전상희			7.14	1	8.15	6		
3	상암중	2학년 12개 반	6	6	감동해결	이은영, 전상희, 김진희, 채지영, 엄금옥				7.8 9.10 11.1 4.15 16.17 18	2.12 13.1 6.19 20.2 1.26 27.2 3.30	4.5.6 .11		
							4	4-6학년	8	16	감동해결	15	전상희	
5	상원초	4-6학년	1	2	도래조정 목감		김진희				24			
6	용강초	6학년 4개 반	4	4	감동해결		이은영, 채지영, 엄금옥, 김진희				15.2 2	6.13		
7	황천초		2	2	도래조정	10	전상희				18.2 5	2.16 23.3 0	13	
8	성서초		2	6	도래조정	20	김진희				16.2 330			
9	신수중	2학년 5개 반	2	4	감동해결		채지영, 엄금옥, 이은영, 유은주, 김진희					1.2		
10	중앙중	1.2학년 각 2개 반	4	4	감동해결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전상희					5.7.8 12.2 3		

3) 학부모 교육

(1) 강사트레이닝 입문과정

- 일시: 2015년 6월 3,10,17,24일, 7월 1,8,15,22일
오전 10시~13시 (2시간 총 8회,16시간)
- 대상: 학부모
- 장소: 마포 청소년 수련관 3층
- 진행: 김선혜, 박수선, 여혜숙, 전상희
- 주관: 마포청소년수련관

(2) 강사트레이닝 심화과정

- 일시: 2015년 9월 2일 ~ 11월 11일 (총 10회, 총 30시간)
- 대상: 강사트레이닝 입문과정 수료생
- 장소: 마포청소년문화의집 4층
- 진행: 김선혜, 박수선, 전상희
- 주관: 마포 청소년문화의집

4) 교사 교육

- 제목: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위한 교사 워크숍
- 일시: 2015년 10월 31일(토)오전 9시 30분~14시 (4시간)
- 대상: 교사
- 장소: 마포 청소년 수련관
- 진행: 김선혜, 전상희
- 주관: 마포청소년수련관

5) 회의

(1) 기획 회의

- 1차: 4/13(월) 10:00-13:00,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하늘초 수업 교육안 논의
- 2차: 4/23(목) 13:00-15:00,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하늘초 수업 교육안 논의
- 3차: 5/25(월) 19:00-21:30 김선혜, 이덕경, 전상희, 하늘초 수업 교육안 논의

(2) 하늘초등학교 감사회의

- 주강사: 김영진, 김진희, 문경아, 임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 보조강사: 김명신, 박혜련, 백미사, 이경숙, 이문희, 한영리, 함정은
- ① 1차: 4/15(수) 10:00-12:00, 진행자의 역할, 하늘초등학교 수업 계획안 공유
- ② 2차: 4/27(월) 10:00-13:00, 갈등해결과 평화커뮤니티 사업의 목적과 개요 소개, 역할분담, 하늘초등학교 갈등해결교육 교안 공유 등
- ③ 3차: 5/7(화) 12:30-13:30, 1차 수업 교안 협의

- ㉔ 4차: 5/18(월) 11:00~13:30. 수업 교안협의
- ㉕ 5차: 6/1(월) 11:00~ , 수업 내용, 프로그램, 진행자 평가
- ㉖ 6차: 7/18(토) 10:30~12:30. 보조 강사, 상반기 수업 진행 관련 공유 및 보조강사 역할에 대한 의견 나눔
- ㉗ 7차: 7/27(일) 14:00~17:00. 전체강사, 상반기 평가
- ㉘ 8차: 8/19(수) 17:00~21. 주강사, 하반기 갈등해결교육 기획안 논의(논의결과 첨부)
- ㉙ 9차: 8/24(일) 10:30~13:00. 전체강사, 하반기 하늘초등학교 갈등해결교육 논의
- ㉚ 10차 :10/21(수) 16:00~19:00. 전체강사, 하늘초 갈등해결교육 수업 평가 회의

(3) 마포평화씨앗 강사회의

- 1차: 9/3(목) 10:00~13:00. 김진희, 채지영, 엄금옥, 이은영, 전상희, 마포평화씨앗 일정 공유 및 상암중 교안 회의
- 2차: 9/14(월) 15:30~18:00. 김진희, 채지영, 유은주, 엄금옥, 이은영, 전상희, 용강초 및 신수중 교안회의

(4) 사문회의

- 일시: 2015년 4월 27일(월) 9:30~10:30
- 장소: 마포청소년문화의집
- 참석: 강순원, 김선혜, 전상희
- 내용: 연구방법론 협의

6) 토론회

- 주제: 학교폭력예방의 대안적 접근, 지역거점과 통합교육모델
- 일시: 12월 3일(목) 오후 3시~5시
- 장소: 마포구청 1층 구의회 대독적실
- 주최: 마포구
- 주관: 갈등해결센터,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 발표: 전상희(마포구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운영 사례)
- 참석: 김선혜, 김진희, 이덕경, 김태형, 강은지

7) 업무협약 체결

-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과 업무협약 체결(2015.4.1.)

3-6. 서대문구 혁신교육사업 '갈등해결 프로젝트'

1) 회의

(1) 1차 준비회의

- 일시: 2015년 10월 25일(일) 17:00-21:00
- 장소: 와우카페
- 참석: 김선혜, 이덕경, 김영진, 김진희, 박인혜, 엄금옥, 이은영, 유은주, 채지영
- 내용: 서대문 혁신교육사업 교육 논의

(2) 2차 준비회의

- 일시: 2015년 11월 15일(일) 16:00-19:00
- 장소: 두드림비전코칭센터
- 참석: 김영진,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이덕경, 채지영
- 내용: 서대문 혁신교육사업 교육 논의

(3) 3차 준비회의

-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10:00-13:00
- 장소: 토즈
- 참석: 김영진, 김진희, 박혜련,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이덕경, 채지영, 성연진
- 내용: 서대문 혁신교육사업 교육계획안 논의 및 체험교육 시연 / 학교별 논의

(4) 평가회의

- 일시: 2015년 12월 23일(수) 17:00~ 19:30
- 장소: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참석: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이덕경, 채지영, 박혜련
(협력교사) 권경임, 김진희, 반인숙, 엄재인, 윤수애, 차은영, 허양미
- 내용: 갈등해결 교육 평가 및 제안

2) 교육

연 번	학교	회 차	시 간	대 상	주 제	연 원	강 사	교육일시
								12월
1	연북중	3	6	1, 2 학년 6개 반	갈등해결과 평화	300	김영진, 김진희 박혜련, 이덕경 이은영, 채지영	15, 17, 18
2	명지중	3	6	2학년 2개 반	갈등해결과 평화	50	김영진, 엄금옥 유은주	16, 21, 22
3	명지고	3	6	1학년 4개 반	갈등해결과 평화		김진희, 유은주 이덕경, 채지영	10, 11, 14

3-7. 갈등해결과 평화 심화이론과정 - 평화적 갈등해결 넓고 깊게 배우기

- 일시: 2015년 10월 5일-11월 23일 매주 월요일 19:00-21:00 (총 16시간)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여성미래센터

- 참석: 김선혜 외 13명
- 진행: 정주진

3-B.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

1) 교육활동

연번	지역	기관	대상	회차	시간	주제	인원	강사	교육일시													
									1	3	4	5	6	7	8	9	10	11	12			
1	경기	경기교육청	교사	3	3	평화리더 양성과정	30	김선혜				16										
2	경기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활동조합 총사자	8	23	회의진행자 훈련	18	김선혜, 박수선							26	2,9	16					
3	경기	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	4	12	회복적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진행자 입문	5명	김선혜, 여혜숙, 박수선							31	1~	5,6	12	13			
4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부모	4	12	회복적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진행자 입문	5명	김선혜, 박수선							7~	3~	17	22				
5	광주	인문중재위원회	교사	1	4	조정리 초청심습	30	김선혜												19		
6	부산	인문중재위원회	교사	1	4	조정리 초청심습	30	김선혜												12		
7	서울	구로시활센터	실무자	4	8	조정심회	8	이덕경	12	13	14	15										
8	서울	구로시활센터	실무자	2	4	기초과정	25	이덕경					28	30								
9	서울	구로시활센터	실무자	3	6	심화과정	14	이덕경							12	13	14					
10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동아리원	2	6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5	김명진												13	20	

11	서울	서울대공 원	대공원 직원	1	2	강동해결과 의사소통	50	김선혜	6		
12	서울	서울시마 울공동체 지원센터	청년활 동가	1	4	강동해결과 의사소통	50	전상희 명희	5		
13	서울	서울시마 울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1	1.5	생명통교육	50	김영진 박인혜		20	
14	서울	성북구청	마을계 획참가 자	3	3		60	박수선 김선혜			
15	서울	연은중재 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1	2		14	김선혜	16	8	
16	서울	은평구마 울지원센 터	마을 활동가	12	12		30	김선혜			2.9 16 23
17	서울	인생이모 작센터	경로당 코다네 미리	5	15	경로당코다 네미리	90	김선혜 여혜숙 박인혜	9- 26	9.1 41 5 16	
18	서울	재미난장 외	축제기 회사업 성다카 데이참 가자	1	2		20	여혜숙		29	
19	서울	지역사회 교육협의 회	만전교 육 참가자	3	3		30	김선혜		16	
20	서울	마을공동 체지원센 터	마을활 동기	3	3			박수선		18	
21	서울	민주라기 년사업회	현장해 결학습 강사	1	5	민주주의 현장 질라방어의 역할		여혜숙		14 15	
22	서울	광진자생 단	마을활 동가	5	15	마을자생지 기 설립교육	15	김선혜 전상희		25	1.8 15
23	서울	녹색마을 주부	주부	1	1.5	강동해결과 의사소통	5	김영진			9
24	서울	서울시심 대안학	학	5	20	회복적	12	김선혜			3.4

	청소년드림센터	교과사		생활교육을 비행으로 명확로운 학교 만들기	전상희					6,727	
25	서울 마포자활센터	장애인단체	2	4	강동해경과 의사소통	박민혜				1012	
26	서울 인생이모작센터	사레오피서포터즈	2	4	의사소통	박민혜				1924	
27	서울 꿈진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1	2	센터소통	박민혜				8	
28	인천 인천교육생	야부모	2	6	학부모 여광김화 교육	김선혜				2728	
29	전주 전북어연	평화교육참가자	6	36		김선혜 김영진 이덕경 여혜숙		7,142,421,528			
30	충남 당진 YMCA	당진시민	2	2	강동과 강동해경	20 김선혜		18			
31	경기 고양교육지원청	외복직장의 피가해대 화모임	4	12	외복직장의 피가해대 화모임	김선혜 박수선 전상희				5,219,26	
32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인문수료자	4	12	상화과정	김선혜 박수선 박민혜				203,2710	
33	서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회적 기업직 원	2	16	진행자훈련	김선혜 박수선				56	
34	서울 한국강동해경센터	조정지 훈련참 가자	1	3	학교내강동 다루기와 도래조절	김선혜				4	
35	서울 도봉여성센터	장애인 질병성	2	6	강동해경과 평화교육	20 김선혜				1213	
36	서울 상복향학예술크터	예술인	3	12	강동해경과 평화	박민혜 이덕경				4,111,816	
37	전남 함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나주 장암	4	24	외복직장의 피가해대 화모임 진행자 훈련	김선혜 이덕경 여혜숙 조영희				171,237,248,30	
38	서울 여성민력	인력개	1	4	2015사업	40 김선혜				19	

순	개발센터 연합	발언터 관장	평가와 계획세우기 회의진행	전상희					
39	경기 시흥시청	시흥시 민	1 5	회의진행자 윤연	12	박수선			24
40	경기 삼산도서 관	도서관 종사자	1 7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40	박수선 박인혜			27
41	서울 성북구청	마을 계획단	3 6	의사소통과 회의진행	80	김선혜 박수선			9.11 11 6 19 15
42	서울 성북구청	마을활 동가	4 12	회의진행자 윤연	40	김선혜			16 22 23 3.1
43	서울 강동구 마을	마을활 동가	3 8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20	김선혜			01 7

2) 현장활동

(1) 사범영역에서 회복직정의 실천활동

가. 화해권고위원

-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박상희, 박수선, 박인혜, 박희진, 안향숙, 여혜숙,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정현주, 조영희, 채지영

나. 가사조정위원

-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2) 안산 대화모임 진행 (시민평화대학준비위원회 연대활동)

가. 조식내 대화모임

- 일시: 2015년 5월 15일, 22일(금) 9:30~12:30
- 장소: 안산여성노동자회 돌봄센터
- 진행: 여혜숙, 이은영(22일)

나. 유가족 대화모임

- 일시: 2015년 8월 17.24일 | 15:00~18:00
- 장소: 안산
- 내용: 세월호 침몰이후 일어난 변화와 현재
- 진행: 김선혜, 전상희

(3) 진행

가.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 혁신교육 200인 이야기

①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 혁신교육 200인 이야기

- 일시: 2015년 9월 11일(금) 16:00~19:20

- 장소: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참석: 약 200여명

(퍼실리테이터 16명, 기록원 16명, 분석팀 4명, 참가자 150여명)

- 진행: 김선혜, 박수선(전체 진행), 김지선, 박지호, 이진우, 김광수(분석팀),
명희, 이주원, 김지호, 류지연 (행사진행)

②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 혁신교육 200인 이야기 1차 후속 회의

- 일시: 2015년 10월 15일(목) 17:10~19:30

- 장소: 서대문보건소 8층 미소지움

- 참석: 17명

- 진행: 김선혜, 박수선, 이주원

③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 혁신교육 200인 이야기 2차 후속 회의

-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00~12:00

- 장소: 흥은청소년문화의집

- 참석: 30명

- 진행: 박수선, 상연진

나. 서울시 열린 대화, '이웃 간 분쟁 어떻게 해결하세요?'

- 일시: 2015년 7월 16일(목) 15:00~18:00

- 장소: 서울YMCA 2층 강당

- 참석: 전채진행-김선혜 /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김지선, 이진우, 명희

- 주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서울YMCA 이웃분쟁해결센터, 서울시, 서울
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3-9. 평가

-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을 제안한 이래 처음으로 특정 지역, 미포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평화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갈등해결과 평화, 노래조성, 교실내 갈등다루기 등의 주제로 회복적점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의 거점기관과 협력해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였다. 다만 사업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 조직적 지원과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교 단위 주체들의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향후 지역평

화커뮤니티 사업에서 개선해야할 점이다.

- 처음 개설한 '활동배우기 워크숍', '갈등해결 이은 심화과정', '회복적정의 피카해 대화모임 진행자훈련 심화과정' 은 그간 현장경험을 체계화하는 교육과정으로 적절하였다.
- 예정하였던 조정자 훈련과 토래조정강사 훈련을 위한 공개강좌는 참가자가 부족해 개설하지 못하였다. 각 과정을 인동해서 개설하면서 강좌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예정했던 토래조정강사 시연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각 과정이 연결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1년 과정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강사트레이닝 참여자의 인적 구성이 처음 개설할 당시의 달라지는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센터 자체의 강사트레이닝 과정 개설은 하지 않고, 활동 강사의 시연은 별도의 과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센터가 자체 주관하는 진행자 훈련은 개설하지 못하였으나 시흥사회복지경제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 마을공동체에서 교육훈련이 활발하였고 서대문구의 200인 이야기 등으로 현장 실천으로 내용이 풍부하게 진행되었다.
- 경기도 수원과 고양교육지원청의 학폭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복적정의 피카해 대화모임 진행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두 교육지원청 관내 각 5개 권역에서 기본과정을 진행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내 학폭위원들이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라남도 나주와 광양지역에서도 같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후속모임을 조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4. 연구·정책사업

<2015년 사업 계획>

- 1) 평화교육(토래조정, 회복적 정의 활동 등)과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지원 정책화를 위한 홍보 및 연대
- 2) 평화교육 강사 워크숍(2회)
- 3) 활동배우기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 4) 회복적정의 현장 활동 백서 등 연구자료 발간
- 5) 학교 내 갈등해결 경험 토론회 개최

4-1. 회복적정의 현장 활동 백서 발간

- 1) 기획회의

- 1차: 2/2(월) 15:00~17:00,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전상희, 명희, 이주원, 책 발간에 대한 의견 나누기, 세부 주제와 질문, 기획논의 등
- 2차: 2/9(월) 9:30~12:00,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명희, 이주원, 주제별 질문과 사례 등
- 3차: 2/23(월) 14:00~17:00, 김선혜, 박수선,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전상희, 명희, 이주원, 주제별 질문과 사례, 구성과 집필방식에 대한 의견 등
- 4차: 3/5(목) 10:30~12:00,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이주원, 책 구성에 관한 논의, 진행과 역할분담
- 12월 현재 출판사와 출판 협의 중

4-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갈등해결의 발전 방향 토론회

- 일시: 2015년 3월 25(일)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발표자: 강순원(주제발표1), 김선혜(주제발표2)
- 참석: 김영진, 김수현, 김정아, 김진희, 김차연, 류순희, 명희,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이주원, 이항림, 전상희
- 주최: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국회의원 이충훈, 국회의원 도충환

1) 기획회의

- 일시: 2015년 1월 15(일) 16: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이덕경, 전상희, 명희, 이주원

4-3. 요구제작

1) 사진카드 사이사이 제작(6/2): 200세트

(1) 기획회의(구성: 김진희, 명희, 유은주, 전상희)

- 1차: 1/27(화) 14:00~16:00, 사진카드와 감정카드 제작방안 논의
- 2차: 3/2(월) 14:00~15:00, 사진카드 제작을 위한 자료 추가 수집 및 선정방안 논의
- 3차: 3/13(금) 11:00~14:00, 사진카드에 필요한 설정사진 촬영
- 4차: 3/24(화) 15:30~17:00, 사진 선정
- 5차: 4/7(화), 사진카드 이름 짓기, 사용설명서, 케이스 표지 논의

- 2) 포스트잇 제작
- 수량 : 1,000세트

4-4. 기타

- 1) 한국강동학회 동계학술대회
- 일시: 2015년 2월 27일(금) 10:30~18:00
- 장소: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대회의실
- 발표: 박수선(발표-신화리 원전주변지역 갈등조정사례), 김선혜(지정도론)
- 참석: 이덕경, 전상희, 명희
- 2)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
- 제목: 범죄와 피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 일시: 2015년 1월 6일(화) 19:00~21:30
- 장소: 경기예술고등학교
- 참석: 김선혜 (도론)
- 3) 회복적 생활 교육 콘퍼런스 - 좋은교사가 말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 일시: 2015년 12월19일 10시-16시
- 장소: 덕성여고
- 주제발표 : 김선혜(지역사회 운동으로서의 회복적 정의)
- 참석: 김진희, 유은주, 이덕경, 전상희, 채지영

4-5. 평가

- 피카해 대화모임 진행자의 활동경험을 정리하는 책자 발간 논의가 진전이 있었으나, 책자 발간은 차기 년도로 이월 진행하게 되었다.
- 교구 제작을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진카드와 포스트잇을 제작하였다.

5. 연대사업

<2015년 사업 계획>

- 1)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 2) 시민평화대학 준비위원회
- 3) 사안별 연대추진

5-1.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1) 회복적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간담회 '회복적 정의-회복적 생활교육을 진단하다'

- 일시 : 2015년 1월 10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여성플라자 NGO열린마당
- 참석자: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박희진, 이덕경, 전상희

2) 회복적정의시민사회네트워크 회의

- (1) 1차: 3/16(월) 10:00, NVC센터 신촌 교육장, 김선혜, 안산지역 R진행자 훈련 프로그램 논의, 안산지역 단체와 회의후 결정
- (2) 2차: 5/11(월) 10:30-12:30, 비록력대학센터 신촌교육장, 김선혜, 회복적정의 실천가대회와 포럼 동시 개최 논의(11월 27-28일)

3) 이웃 대화모임 진행자 양성과정(입문)

- 일시: 2015년 5월 26일, 6월 13일(총 18시간, KOPI와 협력 진행)
- 장소: 0416 산나는 마을학교(안산)
- 참여: 안산지역 시민
- 진행: 김선혜

5-2. 시민평화대학 준비위원회

1) 회의

- 1/26(월), 김선혜,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사업 세부 논의
- 5/11(월), 김선혜, 여혜숙
- 6/11(월), 김선혜, 여혜숙, 안산 이웃간 대화모임 진행 설계 및 평가
- 6/22(월), 김선혜, 안산 이웃 간 대화모임 입문과정 평가 및 심화과정 논의 진행
- 8/31(월), 김선혜, 안산 이웃대화모임 진행자 훈련 논의
- 9/23(수), 김선혜, 안산 이웃대화모임 진행자 훈련 경과, 이후 사업 논의
- 12/14(월), 김선혜, 여혜숙 2015사업 평가 및 2016년 계획

2) 토론회 '평화심천을 위한 전략포럼으로의 초대 - 네트워크형 시민평화대학의 가능성을 향하여'

- 일시: 11월 5일 2시-5시

- 장소: 스페이스 노아 컨택트룸
- 참석자: 김선혜, 여혜숙

5-3. 사안별 연대

- 1) 3-8 여성대회: 3/8(토),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명희, 박수선, 이주원, 전상희
- 2) 세월호 1주기 추모 문화제: 4/16(목), 김선혜, 김성은,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명희, 박희진, 유은주, 이덕경, 이주원, 전상희
- 3) 부평구청 공공갈등 관리 분야 업무 협약식: 5/21(목) 11:00~12:30, 부평구청, 김선혜, 명희
-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6/26
 - (2) 예술인파견지원사업: 5월~10월
 - 최인혜(동화작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평화만들기 - 조정 시나리오 수정 작업
 - 윤수영(드러머):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뮤직비디오 제작 - 틀리다와 다르다
- 5) 고령사회고용진흥원 - 사회공헌활동사업: 7/17~10/21, 한미덕, 노래조정 영문자로 번역
- 6)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상호협약체결: 12월 18일

5-4. 평가

- 평화시민대학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안산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과 대화모임 진행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안산지역 대화모임 진행자 그룹을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같은 외부 지원단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센터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6. 회원활동

<2015년 사업 계획>

- 1) 학습소모임
 - 평강공주
 - 학습모임운영
- 2) 회원월례공부모임

6-1. 학습소모임

1) 평강공주모임

(구성: 김진희, 박재신, 명희,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전상희, 채지영)

- 1차: 1/27(화), 2014년 평가와 2015년 계획, 역할분담
- 2차: 2/24(화), '갈등 이해' PPT공유 및 활용방법 소개, 상호 피드백
- 3차: 3/24(화), 의사소통 수업 자료 공유 및 피드백
- 4차: 4/28(화), 분노다루기 수업 자료 공유 및 피드백
- 5차: 6/23(화), '고정관념과 편견' 등 활동 나누기
- 6차: 8/25(화), 자유주제 시연 및 토론

2) 강독모임

(1) 「갈등전환」읽기

- 일시: 2015년 1월 12일(월) 15:00~17:00, 1월 26일(월) 16: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명희, 박희진, 방송희, 여혜숙, 이덕경

(2) 「우리 시민교육 해볼래요?」읽기

- 일시: 2015년 1월 19일(월)~22일(목) 10:00~12:00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선혜, 김영진, 명희, 이주원

(3)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읽기

- 일시: 2015년 2월 9일(월) 16:00~18:00, 2월 26일(목)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김선혜, 김영진, 김진희, 명희, 박인혜, 오은숙, 이덕경, 전상희

(4)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읽기

- 일시: 3월 12일(목)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오은숙, 이덕경, 이주원

(5) 12기 책임기 모임

- 일시: 2015년 7월 23일(목) 18:3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동아리방
- 참석: 박소영, 이진우, 이향림, 정승희, 최병옥, 허주리, 명희
- 내용: 「공동체를 세우는 대학기술」발제 및 토론

6-2. 회원월례공부모임

1) 2월 공부모임

- 일시: 2015년 2월 9일(월) 19: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진행: 박숙영(좋은교사운동)
- 내용: 회복적생활교육

2) 4월 공부모임

- 일시: 2015년 4월 3일(금) 19: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진행: 박수선
- 내용: 공동감동 조정사레-신한울원전 건설 신화1리 주민갈등

* 6.8.10 회원활례공부모임은 평화교육진행자 네트워크로 대체함

6-3. 회복적 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진행자 모임

- 일시: 2015년 5월 26일(화) 16: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여: 김선혜, 김진희, 여해숙, 전상희, 이은영
- 내용: 각 법원별 동향과 대화모임 및 학교에서 진행 경험 공유

6-4. 회복적 서클 워크숍

- 일시: 2015년 5월 4일(월)~5일(화) (총 15시간)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NGO열린마당
- 참가자: 김선혜 외 11명
- 진행: 박성용, 김석봉(비폭력평화물결)
- 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6-5. 회원 관리

- 신규 후원 회원에게 감사인사와 센터 발행 자료 소개 글, 홍보책갈피 발송

6-6. 기타

1) 회원 송년의 밤

- 일시 : 12월 28일(월) 17:00-20:00
- 장소 : 영등포 산업선교회 1층

- 참석 :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등 22명

6-7 평가

-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부모임이 활성화되었고, 신규후원회원도 증가하였다.

7. 홍보·출판 활동

<2015 사업 계획>

- 1) 홈페이지 관리 및 SNS를 이용한 일상적 사업 홍보
- 2) 회원 소식 나눔의 정리화
 - 온라인 소식지 격월 발송

7-1. 홈페이지 관리 및 SNS를 이용한 일상적 사업홍보

- 일시: 상시
- 내용: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센터활동 공지 및 홍보, 게시글 관리

7-2. 온라인 소식지 발송

- 일시: 2015년 2/16, 4/14, 6/15, 8/20, 12/29 송년편지 총 5차례 발송
- 내용: 센터 활동 보고 및 계획 안내

7-3. 홍보 책갈피 제작

- 일시: 2015년 8월 31일, 10월 27일
- 내용: 홍보 책갈피 200대씩 2회 제작, 배포

7-4 평가

- 일상적인 홍보활동으로 회원 및 교육 수요자와 소통하였고, 홍보책갈피를 만들어 새로운 후원에게 발송하는 등 센터 활동을 알리는 노력을 하였다.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조직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젠더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 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원장: 김정수
- 실무담당자: 류지연

2. 연구위원회 회의/세미나

1) 연구원 운영을 위한 논의

- 일시: 2015년 3월 10일(화)
- 장소: 여성미래센터 바오밥나무
- 참석: 안강징애, 김정수
- 내용: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 논의 & 49 통일평화재단 공모사업 브레인스트로밍 등

3. 프로그램

3-1. 역자와 함께 읽는 오픈 책 수다회

- 일시: 2015년 9월 15일(화) 18:30-20: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층 여성교회
- 참석: 김정수(진행), 김영리(매년), 안강징애, 김지호, 류지연 외 회원 등 총 13명
- 주제: [군사주의는 어떻게 재현이 되었나], 여성과 군사주의를 오래 연구해온 김영리 전 공동대표(역자)와 함께 하는 회원 책임기/대화 오픈 모임
- 내용: 저자인 신사아 인로의 군사주의와 여성주의에 대한 사상적 배경에 대한 발제와 책 전반의 내용의 요점 해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로서 고민해야할 군사주의와 여성의 참여 사이에서의 새로운 프레임을 짤 것에 대한 고민 나눔, 참가자들 각자가 삶에서 겪고 있는 군사주의와 내 삶에서의 여성주의와의 갈등 고민 등을 나눔

4. 연구

4-1. 경기도 교육청 평화시민교과서 연구 및 집필

- 기간: 2015년 5-12월
- 내용: 1) 경기도교육청 인정교과서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민교과서" 교재 내용연구
2) 중학교 교과서(교사용, 학생용) 집필 참여 (2016년도 까지 진행)
- 참여: 김정수 원장

4-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분단폭력> 연구팀 활동 & 집필작업 참여

- 기간: 2014년 5월-2015년 11월
- 내용: <분단폭력> 관련 워크샵-토론자 참여
<분단폭력> 관련 논문 2편 집필
(1) 일상화된 군사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2) 분단폭력과 통일교육의 관계성에 대한 일고(一考)
: 학교 통일-안보교육을 중심으로
- 참여: 김정수 원장
- 출판: 2016년 3월 '아카넷' 출판사 예정

5. 평가

- 연구원장과 연구위원들의 개별적 사정으로 연구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 2016년도에는 제한된 연구역량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여성평화운동에 뒷받침하는 연구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결산보고

1. 본 회

항목	수 입 부				지 출 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합 계	항목	일반 회계		특별 회계	합 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전년이월	102,064	102,064		102,064	사업비	20,600,000	15,201,233	18,042,170	33,243,408
회비	45,000,000	39,693,500		39,693,500	회의비	2,000,000	1,602,627		1,602,627
정기	30,000,000	23,993,500		23,993,500	평화통일사업	4,000,000	2,991,161	18,042,170	21,033,331
이사	15,000,000	10,700,000		10,700,000	후원행사	3,000,000	1,613,350		1,613,350
후원금	39,300,000	35,805,550		35,805,550	재정사업	4,800,000	2,307,000		2,307,000
개인	22,000,000	23,302,550		23,302,550	연대사업비	3,000,000	2,916,700		2,916,700
후원회	10,300,000	10,130,000		10,130,000	부설기구	3,800,000	3,770,400		3,770,400
재정모금	7,000,000	2,373,000		2,373,000	운영비	55,800,000	53,402,767		53,402,767
참가수입	100,000	0		0	업무추진비	6,000,000	6,000,000		6,000,000
자료제공	150,000	59,000		59,000	인건비	34,500,000	34,109,640		34,109,640
갑수입	47,936	3,771		3,771	사무행정비	15,300,000	13,293,127		13,293,127
차입금		1,000,000		1,000,000	미지급금(차입금)	3,500,000	3,500,000		3,500,000
사업후원1			14,000,000	14,000,000	적립금(퇴직적립금)	3,300,000	3,300,000		3,300,000
사업후원2			4,042,170	4,042,170	차년이월		759,880		759,880
합 계	84,700,000	76,663,835	18,042,170	94,706,055	합 계	84,700,000	76,663,835	18,042,170	94,706,055

* 사업후원1 : 한국여성재단/여성 광복70년 톤단70년을 말하다 (14,000,000원)

사업후원2 : 아름다운재단/인프라지원사업 (4,042,170원)

2. 부설 갈등해결센터

항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 계	항목	일반 회계		특별회계	합 계
	예산	결 산				예산	결 산		
전년이월	188,773	188,773		188,773	사업비	23,050,000	18,858,531	34,426,500	53,283,081
교부금	3,200,000	3,170,400		3,170,400	회의비	1,600,000	1,365,260		1,365,260
후원금	52,590,000	47,974,406		47,974,406	워크숍	10,500,000	7,231,045		7,231,045
참가수입	17,000,000	16,902,136		16,902,136	프로젝트	3,250,000	3,213,390	34,426,500	37,639,890
자료제공	5,000,000	2,511,500		2,511,500	연대사업	700,000	508,720		508,720
잡수입	66,227	2,023		2,023	강사비	5,000,000	4,990,000		4,990,000
					국제교구제작	2,000,000	1,548,166		1,548,166
사업후원 1			11,000,000	11,000,000	운영비	50,615,000	46,094,847		46,094,847
사업후원 2			14,706,500	14,706,500	인건비	40,415,000	37,381,990		37,381,990
사업후원 3			8,720,000	8,720,000	업무추진비	4,400,000	4,400,000		4,400,000
					사무관리비	5,500,000	4,312,957		4,312,957
					퇴직적립금	3,380,000	3,380,000		3,380,000
					예비비	1,000,000			
					차년이월	0	2,417,810		2,417,810
합 계	78,045,000	70,749,238	34,426,500	105,175,738	합 계	78,045,000	70,749,238	34,426,500	105,175,738

* 사업후원1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갈등해결과 평화를 배우고 가르치다 (11,000,000원)

사업후원2 : 서대문구청 / 서대문 혁신교육 200인 이야기 (14,706,500원)

사업후원3 : 서대문구청 / 서울형혁신교육 갈등해결 프로젝트 (8,720,000원)

3.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입부				지출부			
관	항목	예산	결산	관	항목	예산	결산
일반	전년이월	537,412	537,412	일반	사업비	1,400,000	150,000
	교부금	600,000	600,000		회의비	200,000	-
	후원금	770,000			워크숍	600,000	150,000
	잡수입	92,588	590		자료제작비	600,000	-
회계				회계	운영비	600,000	450,000
					인건비	600,000	450,000
					차년이월		538,002
	소 계	2,000,000	1,138,002		소 계	2,000,000	1,138,002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 근거: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인선위원회 구성: 여혜숙(위원장), 김지호, 김진희, 김선혜, 유은주

○ 임원 선출 내용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정수 원장 임기만료
- 사업감사 배삼희, 회계감사 윤수경 임기만료
- 이사 추가 인선

○ 임원 선출 (안)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정수 원장 연임
- 사업감사....., 회계감사 윤수경 연임
- 이사 추가 인선 :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임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임원 임기 (안)

구분	명 단	임기	비 고	인선(안)
이사회	김성은(이사장)	2015~2017	해당없음	
	김선훈	2015~2017	해당없음	
	김정수	2014~2016	해당없음	
	김지명	2015~2017	해당없음	
	박유희	2015~2017	해당없음	
	박현선	2014~2016	해당없음	
	안김정애	2015~2017	해당없음	
	여혜숙	2014~2016	해당없음	
	이나영	2014~2016	해당없음	
	정현백	2014~2016	해당없음	
	조영희	2014~2016	해당없음	
한정숙	2015~2017	해당없음		
상임대표	안김정애	2015~2016	해당없음	
감 사	윤수경	2013-2015	임기만료	<u>윤 수 경</u>
	배삼희	2013-2015	임기만료	
부설기구	소장 김선훈	2015-2017		<u>김 정 수</u>
	원장 김정수	2016-2018	임기만료	
법정 동기 이사 (5인)	김성은(이사장) 김선훈 김정수 박유희 여혜숙	2015.1.21. - 2017.1.20		

2016년 사업계획안

I. 2016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II. 2016년 사업계획안



I. 2016년 사업 기조와 방향(안)

2016년은 평화여성회 창립 19주년의 해로서, 창립 초기의 정신과 비전을 되새기면서 2017년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다.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대로, 여성의 힘으로 분단/정전체제를 종식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와 평화여성회 창립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여성의 힘으로 이룩하려는 초심으로 돌아가, 여성이 분단해결과 갈등/분쟁해결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실제적인 남북한 여성의 통일 청사진 구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생각과 비전을 가진 조직, 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본 회의 창립 취지를 잘 살려 2016년도 사업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기로 한다.

1.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을 준비한다.

- 1) 창립 초기의 인물들과의 인터뷰
- 2) 영상기록화, 문서 정리, 사진 정리 등.

2.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 1) 남북여성교류를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 2) 개성과 금강산 등 인근 DMZ에 남북여성평화교류센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 남북여성의 정기적이고 평화적인 만남과 통일문제 토론 등을 위한 교류센터 개설을 위해 노력한다.

3.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캠페인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모색

- 1) 국내외 평화운동 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알려내고, 분단/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협조를 이끌어 낸다.

4.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계획수립 등 대응 모색

- 1) 1325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 2) 정부의 '1325국가행동계획' 실천과 이행을 촉구한다.
- 3) 정부와 국회 등에 통일, 국방,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의사결정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 과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갖도록 법적/제도적 보장을 촉구한다.

3. 회원 참여 구조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4. 여성의 일상적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 발굴과 평화적 갈등해결 교육과 훈련을 계속한다.

II. 2016년 사업계획(안)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1) 역할: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구성: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 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내용: 2016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1) 역할: 본 회의 사업 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구성: 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김성은
- 이사: 정현백, 김지영, 한정숙, 박유희, 박현선, 이나영, 김선애, 여혜숙, 김정수, 조영희, 안김정애

1-3. 운영위원회

1) 역할: 본 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 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된 본 회 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총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 회의

1) 역할: 본 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을 점검하고 공유한다.

2) 구성: 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안김장예(상임대표), 김지희(총무국장), 활동가

3)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또는 오후.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 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2) 구성: 김성은, 김정수, 김영리, 안김장예, 윤경원, 한정숙

2-2. 국제협력위원회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과 유엔안보리결의 1325 관련단체, WCD 국제대표단과의 국제연대를 진행한다.

2) 구성:

- 위원장: 정경란

2-3 지역위원회

2-4 20주년특별위원회

【2】 평화·통일 사업

1.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한반도의 평화조성과 동북아, 세계의 평화 만들기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한다.

1-1.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여성들의 평화통일여지의 역량 강화

1-2. 군사비 감축 활동: 군사비 동결을 위한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1-3.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분석 활동

1-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1-5. 핵 없는 세계를 위한 탈핵, 탈원전 활동 등.

2. 평화여성회 창립 20주년 준비

2-1. 2017년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준비

- 과거 돌아보기와 현재 진단 및 미래 그리기

- 창립 멤버들의 목소리 듣기

- 현재 평화여성회의 위상에 대한 평가 및

- 미래 평화통일 활동가 그룹의 목소리 듣기와 평화통일 청사진 만들기

2-2. 사진, 앨범, 자료 정리

3. 남북여성교류 및 협력사업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과의 교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만남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4. 대중교육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인재를 길러 내고, 여성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평화운동을 알리는 대중교육을 진행한다.

4-1. 청년들을 위한 여성평화 강의, 교육: 찾아가는 여성평화교실

5.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적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일상에서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한다.

5-1. 군사적 폭력 문화 대응

【3】 정보-홍보 사업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평화활동 등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 메일을 통해 본 회 소식 전달

【4】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1. 여성평화모임: 여성평화수다방

【5】 재정사업

1. 굿감 판매 등
2. 창립 20주년 기념 기금 마련

【6】 연대 및 협력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주관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측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2-2.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3. 국제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3-2. WomenCrossDMZ

3-3. Women Peacemakers Program

【7】부설 갈등해결센터

1. 조직

1) 구성

- 소장: 김선혜
- 부소장: 전상희
- 운영위원: 김영진, 김지호(본회 총무국장), 김진희, 양승광, 유은주, 이덕경, 전상희
- 사무국:
- 전문위원: 박수선, 박인혜, 이경순, 여해숙, 조영희.
- 자문위원: 강순원(한산대학교 교수), 김차연(변호사)

2) 회의

(1) 운영위원회

- 역할: 갈등해결센터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갈등해결센터의 주요 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구성: 소장, 부소장, 본회 사무총괄 담당자, 일반 운영위원
- 운영: 연 6회 정례회의

(2) 사무국회의

- 역할: 센터의 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을 점검하고 공유한다.
- 구성: 소장, 부소장, 활동가

2. 사업목표

한국사회의 평화적인 갈등해결 문화 확산을 위해

- 조직의 현장 경험을 체계화한다.
- 교육·조정 등 평화적 갈등해결을 실현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한다.
- 사업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힘쓴다.

3. 활동계획

1) 평화적 갈등해결교육

: 갈등해결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으로 각 과정의 특징과 공통점 등 연결되는 부분을 드러내도록 하며, 각 과정의 내용과 특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점을 짓는다.

- 조정자훈련
- R 파기해 대화모임 진행자 훈련 및 심화워크숍
- 청소년 교육 활동 배우기
- 갈등해결 이론심화

2) 사업

(1) 대화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화된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도록 한다.

- 회복적정의 파기해 대화모임
- (가칭) 변화를 위한 도전 - 대화
- 파킨슨 환자와 함께 하는 '덜엄이 있는 대화'
- 기타 분쟁 조정, 회의 진행 등

(2) 외부 교육

- 청소년, 학부모, 지역사회 등 대상에 따른 교육 진행

(3) 평화커뮤니티

학교와 지역단위에서 주체들의 연결, 내용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실천영역을 모색한다.

- 미포지역

: 여러 학교의 많은 교육보다 학교 단위의 통합적 교육이나 지역 평화커뮤니티 모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4) 바자회

: 회원들의 교류와 나눔을 목표로 개최하며, 북아일랜드 평화연수 보고회와 겸한다.

3) 정책연구

- 회복적정의 파기해 대화모임 책자 발간

- 평화교육 해외연수 : 북아일랜드 해외연수(Peace Study 연제나 어디서나)

4) 연대활동

- 시민평화대학준비위원회(갈등해결센터, NVC센터, KOPI, 비폭력평화물결, 개척자들)
- 회복적정의시민사회네트워크(갈등해결센터, NVC센터, KOPI, 비폭력평화물결, 평명교육연대, 좋은교사)

5) 홍보활동

- 홈페이지, 페이스북, 소식지

6) 조직관리

(1) 회원활동

- 회원 월례공부모임
- 명강공주
- 독서모임 등

(2) 청소년평화교육강사 모임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조직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쟁점과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 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원장: 김정수
- 연구위원: 조영희, 김정아 등 구성 중
- 실무(담당):

2. 사업계획

2-1. 평화도서 독서모임

- 1) 내용: 평화주의과 군사주의를 주제로 한 시의성 있는 서적을 중심으로 저자, 역자 등 초청 토론회 진행
- 2) 횟수: 년 4회

2-2. 연구위원 모임

2-3. 개별연구

- 1) 경기도 교육청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시민 교과서> 인정교과서 중등교재 집필 작업 - 2016년 말 참비교과서로 출판 예정
- 2) 평화 관련 연구 & 집필

2016년 예산(안)



1. 본 회

수입부			지출부		
관	항 목	예 산	관	항 목	예 산
일반 회계	전년이월	759,880	일반 회계	사업비	14,800,000
	회비	48,000,000		회박비	2,000,000
	정기	36,000,000		평화통일사업	3,200,000
	이사	12,000,000		면대사업비	3,000,000
	후원금	18,900,000		부설기구	6,600,000
	개인	16,400,000		운영비	47,600,000
	재정보금	2,500,000		업무추진비	6,000,000
	침각수입	100,000		인건비	28,000,000
	자료제공	150,000		관리비	6,500,000
	잡수입	90,120		사무행정비	7,100,000
	차입금			미지급금(15차입금)	1,000,000
				적립금(회직적립금)	3,600,000
				예비비	1,000,000
		자년이월			
합 계	68,000,000	합 계	68,000,000		

2. 부설 갈등해결센터

수입부			지출부		
관	항목	예산	관	항목	예산
일반	전년이월	2,417,810	일반	사업비	14,900,000
	교부금	6,000,000		회차비	1,400,000
	후원금	39,050,000		워크숍	5,000,000
	참가수임	16,000,000		프로젝트	1,000,000
	자료제공	2,500,000		연대사업	500,000
	집수입	32,190		강사비	5,000,000
회계			회계	자료제작	2,000,000
				운영비	46,500,000
				민건비	42,000,000
				사무관리비	4,500,000
				퇴직적립금	3,600,000
				차년이월	
	합 계	66,000,000		합 계	66,000,000

3.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수입부			지출부		
관	항목	예산	관	항목	예산
일반	전년이월	538,002	일반	사업비	1,300,000
	교부금	600,000		회차비	200,000
	후원금	770,000		워크숍	600,000
	집수입	91,998		자료제작비	500,000
회계			회계	운영비	700,000
				민건비	600,000
				사무비	100,000
				차년이월	
	합 계	2,000,000		합 계	2,000,000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2015년 성명서 목록
- 2015년 발간자료 목록
- 회원가입서



【 부칙 】 평화■만드는여성회 정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 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깊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리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경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손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규정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1.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잠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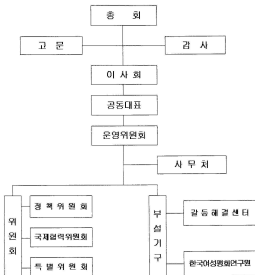
1997. 3. 28 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 록 】 평화■민드■여성회 조직 현황



【 부 록 】 2015년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50209	[선언문]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여,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150212	[기자회견] 수명끝난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라!
150227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150301	[기자회견]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서울입성 기자회견
150305	[선언문] 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150308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전세계 여성들에게 보내는 <남북여성 공동 호소문>
150312	서울대 강석진사건 탄원서
150413	[기자회견]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150420	[기자회견]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150606	[성명서] 1177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50525	2015 WCD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위한 국제여성경기 선언문
150529	[기자회견] '살아있는 단저군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즉각 SOFA 협정 개정해 나시라.
150610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획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한미 양국은 방미 계획 재검토하고 대북정책 전환에 착수하라
150609	[기자회견] 대북정책 전환,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150616	[기자회견]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단저군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150630	[기자회견]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 '함께 걸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날 짜	제 목
150828	[선언문] 광복 70년, 한일조약 50년, 헌법재판소 판결 4년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앞당겨라'
150919	[성명서] 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150921	[기자회견]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 19대 국회는 선거 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150921	[기자회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151014	[선언문] 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
151012	[기자회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서지네트워크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151012	[성명서] 심학봉 자진사퇴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151021	[성명서]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 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151021	[성명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 불허 규탄 성명
151030	[기자회견] 침략 역사 사죄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
151130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 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151209	[성명서] 정부와 경찰의 조계사 공권력 투입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 중단을 위한 각계 여성단체 규탄성명
151229	[기자회견]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 내행개천 일본군 '위안부' 문 제 굴욕 합의 규탄한다!

[선언문]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여,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지난 1월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0년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 심사 안전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 역시 월성1호기는 이제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조차 월성1호기는 최신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공개적인 토론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기준 만족', '평가기준 적합'을 주장하며 2월 12일 심의에서 수명연장 승인을 표결에 붙여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전의 안전성, 전력수급, 경제성, 주민의 수용성, 국민여론 등 어떤 것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1회 회의를 2회로 늘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빨리 결정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안해도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리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2. 수명연장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원 손해 보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수명연장을 하든 안하든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 결정도 되기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5천6백억원의 설비개선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책임질 못까지 수명연장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 노후원전은 안전에 취약해 핵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고,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고장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발생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4. 중주국 캐나다도 수영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주국 캐나다도 더 이상 중수로원전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의 정월리2호기 역시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경제성 문제로 최근에 수영연장을 포기했습니다.

5.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라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에서 실제 삼중수소가 34.1Bq/L(리터당 벵크렐)까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핵폐기물을 다량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1호기를 수영연장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 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나옵니다.

7. 국민 다수가 월성원전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71.2%가 월성1호기 수영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조사한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후원전의 수영연장을 반대하는 답변이 항상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를 연장해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사고와 같이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안전을 무시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월성1호기 수영연장을 반대합니다. 월성1호기의 폐쇄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2015년 2월 9일

월성원전 1호기 수영연장 반대 국민선언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수명끝난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라! 월성1호기와 같은 노형 원전리 2호기도 수명연장 포기, 원자력 전문가들조차 안전성 우려, 최신안전기술기준 적용 않고 적자가 변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근거 없다.

오늘(12일) 제34차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나고 멈춰 있던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심의가 진행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여러 차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단기 기술적인 안전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원전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미 국민들은 월성1호기가 안전하기도, 경제적이기도 않으며, 당장 폐쇄하더라도 천적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문가의 판단만을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월성1호기와 같은 노형인 캐나다의 켄딜리 2호기는 월성1호기와 같은 1983년에 상업시동하여 2012년에 설계수명을 만료했다. 캐나다는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 신규원전과 적용되는 기술기준으로 통합인정심판요구를 한 보고서와 설계개선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켄딜리 2호기는 이 과정에서 약 1호 관 가동으로 추정했던 설계계선비용이 4조원대로 증가하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월성1호기는 켄딜리 2호기와 같은 노형인데도 불구하고, 56%의 일회 비용만 절감된 뿐이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핵발전소에는 더욱더 최신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월성1호기 역시 최신안전기술을 적용하여 설계개선을 할 경우 기존 예상되는 수명연장 비용은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설계결함이 재기동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재동을 허용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우리나라의 전문가 그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스톡홀름연구소를 창시한 민간검증인은 “계속유연성 안전성 모형이 아쉽다”며 “고가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선 재기동, 후 설비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동제동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리가 완료되어야 다시 켤 수 있다. 허물여 수만개의 부품이 쓰이는 거대한 핵발전소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재기동 직전까지만 봐도 나갔다는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용한다면 스스로 손재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안이 만장일치로 결정·생전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험사항도 계속하자 많은 핵 전문가 강행하라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엔 반대파에 2명의 임원이 퇴장해있음에도 이윤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이 법을 지은의결과 상충되어 법적색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원전부시설팀위원으로 인해 위권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철정위원을 결정과정엔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시리를 강압하게 주장해온 조철정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행위를 독촉해 하였다.

더 큰 문제는 만천상에서 해결할 단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속문서 접수하지 않고 세 결정문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9년)에는 '국민적 권총부는 건담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 기가 벽을 축적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진기 독거순에 H-1이 작동이 안된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피력을 동여가기에만 하였다.

안전성 이해를 위해 원자력법개정과, 그간식유 위험 현에 놓여 심각한 문제도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시킨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원전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연설을 작성해 1-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을 핑계하고, 월성의 안전문제를 표적으로

[기자회견]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서울입성 기자회견

탈핵은 가능해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 정부 여당은 고리1호기 폐쇄를 명확히 천명하며, 같은 이유로 월성1호기 폐쇄를 천명하라!

오늘 3월 1일, 이곳 평화문은 96년 3.1절 바로 그 시간에서 멈춘 듯하다.

나라를 잃었기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생명을 안전을 담보 받지 못했다. 국민을 지켜줄 국가가 존재하지 못했기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 총알받이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최전선에 서야만 했고, 위안부도 끌려가야만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른기 묻지 않을 수 없다.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려는 현실이 배를 침몰시켰고, 국가가 한 명의 생명조차 제대로 구조해내지 못해 많은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여전히 왜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가족들이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이곳 평화문을 지키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월성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버리면서, 과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6년 전과 지금의 현실이 무엇이 다른가?

탈핵국토도보순례는 2013년 6월 6일부터 시작하여 고리에서 삼척, 삼척에서 서울광화문, 서울광화문에서 영광, 영광에서 고리, 그리고 다시 고리에서 대천유성까지 120일간 1,976Km를 순례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대천유성을 출발하여 오늘 바로 이곳 평화문 광장에 도착했다. 그 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과연 탈핵의 희망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과연 탈핵은 가능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는다. 96년 전, 우리 조상들은 대한민국의 독립 가능성을 타진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절박했기에, 그래서 내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기에, 맨손으로 거리에 나와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다.

핵발전소는 100%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만에 하나의 사고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에서 그 현실을 목도한다. 이것이 탈핵을 외치는 실막한 이유다. 탈핵은 가능하기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탈핵은 96년 전 조상들이 절박하게 외쳤던 대한민국의 독립처럼 우리 세대에 실현해야만 할 과제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처럼 수명이 끝난 원전을 하나하나 폐쇄해 나가고,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멀지않은 미래에 실현가능한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길 간절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96년 전 오뉴저절,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3월 1일

탈핵희망국도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선영문]

월성원전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수행 끝난 월성1호기 폐쇄, 정부가 결단하라!

1. 국민에게서,

이 3년 동안 국민 여러분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한 원자로 폐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로들은 물론 원자력 발전소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또다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월성1호기는 수중으로 폐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 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 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 폐기 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급의 움직임으로 국민소송, 주주, 발행행위의 실효 제의 등 각종 대응에 대한 의견을 함께 모일수면 좋습니다.

* 어떤 회원은 서로 한번 데이트 같이 간담회라도 주제로 선정해서 각자 발언하도록 하면
의사 소통은 더욱 쉽게 이뤄질수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5년 참여 링크 : <http://bit.ly/1D913> (2015.3.5) <http://bit.ly/1D913>

2015년 3월 5일

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호소문]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친제 여성들에게 보내는 <남북여성 공동 호소문>

이 전통동맹연합회 결성 2년 1개월이 넘어, 해를 거듭해오면서 날로 빽빽한 우리 여성들은
신뢰와 친척 관계로 무거운 역사의 지평선을 누리고

우리 민족 7천만도 원하지 않았던 3년 전쟁 동안 지속되었던 남과 북으로 갈라
진 나라의 격심하고도 비참한 분리를 겪어 왔으며, 그 고난과 투쟁의 역사가 새겨진 그 깊은 보
릿길의 고통을 수가 없습니다.

동족사촌의 불신과 대결의 고문 더욱 갈라만 푸른 임의로 인해 전쟁이 타협지 않는 형태로
고착화 되기에 친척연합은 '남'을 넘어가로 고쳐주어

남과 북에 남북여성의 대외적 친척연합회 임원 회의가 개최되고 남북 대화협상을 기대하
고 어느 때 보다 눈여겨보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의 원로 군인이 함께 그려일기를 맺습다
다

전쟁의 임박과 불만의 불꽃을 이 여인 군대들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모든 단과조직을 순
단하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평화와 번영을 여망하며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 여성들과 온 겨레의 한과같은 싸워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해외의 임박의 시기를 열고 남북친제 여성들 새 수호하며, 하하의 고향의 사
태를 알아보는 데 일한 북 고는 격파와 역사를 담아 온 자항에 호소합니다

남과 북, 해외의 친구 여성들여

남구별이 역사를 관통해 여성이 남북친제 여성이 조국을 위해 결집했다 우리 여성은 길과
달길을 새겨주고 친척의 힘집, 단결과 그대 직업을 대변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남북친제는 조국통일전선과 조국통일선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이해와 협력의 자금을 결집한 친척연합회 조국통일전선과 친척연합회 결성사업에
단결하여 대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선봉부가 결연히 싸워나갑니다

자신사기 넘 북, 갈라 버섯다하는 우리가 단결하여 조국통일전선과 함께 '자주'는 북고
여가 활동을 전개하며 더욱 단결하여 갑니다

민족의 대우를, 대단점은 곧 전하여서 호소드립니다.

신남해 연공대사 단결과 또 12차 역사로, '여성이' 남과 북은 한 민족을 누려 조국통일
고양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단결임을 다시 한 번 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과 북, 해외의 우

이 제재가 6.15사태와 같이 대외에 평정을 전이하고 교류와 민남의 길을 넓혀감다면 국시문
명문은 차라리 오래와 불신 다같이 잊어도 리문에서로 될 것입니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이들과는 친선과 친해와 다름, 평화와 휴식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사옵

동행는 일방이 식민지통치에서 광범위 시 30년이 국선-내압이다

일방은 자신에게 호 풍의 이질들에게 억압군의 횡포와와 상응하는 상응하를 끌어 내기의 정
조의 민권을 보장하 통일하는 헌정공식 명제를 저급한에 집행했음은 3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도 일본은 아예 대한 자귀는커녕 범죄시절까지도 권위부행하고 왜곡어떤의 국 30의 무한
과 독고장만, 백화화구어행을 침오하게 추궁하고 있음이다. 남과 북 30년이 오는 국선공
일방이 공국하는 무의의 해방의행하는 말대하고 우리 민족에게 어떤 국의의 공적 업적의 대
한 업적은 자귀의 제정을 받아들이 위한 후행에 가 : 김세나선안

일방군정노예법칙을 폭로하고 해대어의 각 계층을 잊은 역사나 나라들에 국제사공들 크고
제재의 인권을수안제들과 국제 연대하여 일방의 강노예법칙을 해대어 기 강한 노력을 지속해
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 여성들이 중단되었던 민간차별문화 교류를 내리 여어나고 국
기 국민이 역시 선문과 평화통일로 각기위한 공동행으로 힘 있게 참여하겠습니다.

2015. 3. 8.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분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기자회견문]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부산·원주·평택 지역 및 각계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동북아,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한중관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거부하라!

최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 미사일요격체계) 배치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오던 사드 부지 선정을 위한 비공식 탐사 사실을 전격 공개하였다. 이는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측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중국 정부가 이에 갈라져 우려를 제기하자 국방부는 '다른 나라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만보 이익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의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보여왔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사드배치를 위한 것이어 만연하여 드러난 것이다. 이에 사드 배치에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원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각계 평화단체들은 주한미군측의 일방적인 부지 조사와 국방부의 호응 등 사실상 사드 배치를 향한 본격적인 수순 발기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지 실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드배치 압박을 중단하라!

사드 배치 관련 부지 조사 의혹은 지난 해 5월 <워싱턴 포스트> 보도 이후 공공연하게 제기 되어 왔던 문제이다. 지난 해 9월 로버트 알코 국방부 부장관이, 올해 2월 세프 톰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관련 사실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부인해 왔는데, 미국측에서 공식 자료를 통해 부지 조사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정부는 겉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경성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음이 이번 사실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안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청와대가 '전략적 모호성'을 거론한 직후 부지 조사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노골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의 사드 배치 부지조사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12일에 알게 되었다'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지역에 주한미군기지 뿐 아니라 한국측 군사, 민간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지자체 관리들이 조사시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민감한 안보관련 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추진한 것인 만큼 국방부는 이에 대해 명중 형의하고 조치했어야 하니 그러시 않고 있다.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원주,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은 주한미

사는 무시한 채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단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이가 우리는 베이 후보지로 거론된 세 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 어느 지역이라도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사회의 물결은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부지 실사를 단행한 것을 사죄하고 사드 배치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배치 단호히 거부하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요청, 합의, 결정이 없었다'는 3NO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라셀 미 국무부 동이태 장관보의 일방 이후 국방부를 내세워 하소문하던 3NO 정책마저 벗어던지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을 겨냥할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대부분 500km 미량으로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어 전문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사드 배치의 효율성은 거의 없다. 이에 비하면 북한이 사거리 1,000km이상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위협을 내세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높이거나 날뿔 사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발사각을 높이면 탐지의 효력이 떨어지고 자재 체가가 어려워 탄두의 명중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 발사각을 낮추면 날뿔이 어려울 수 있지만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학현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없다.

결국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레이더(AN/TTY-2)를 통해 중국 동북부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 미일이 가지고 있는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적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미일이 추구하는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것이며,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하게 하여, 대중, 대라 압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국은 미국 MD에 깊숙이 편입되어 미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사드는 상대방의 보복을 무력화해 공격력을 높이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요 무기체계의 하나로, 경쟁적인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할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해소는 가장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그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중국, 러시아를 주변국과의 적대적인 관계형성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동북아 평화협력구

연주 1. 국민민주통일적분쟁을, 민주주의경쟁원리를 민주주의의 본질에 민주 이론이 있는 민주사상한다. 원
근적이며, 전국합동총회회의 민주주의 원리를 민주로 - 정치경제사상이다

정책 1. 국민민주통일적분쟁을-사상은 민주주의경쟁원리를, 전국합동총회회의, 정치경제사상, 정책
본질이, 정책민주주의, 국민민주통일적분쟁을, 정책민주주의이다. 정치경제사상, 정치경제사상이다

[단원서]

사건번호 : 2014고단4486

피고인 : 장 석 진

단 원 내 용

1. 본 사건은 서울대 교수인 피고인 장석진에게 다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응적인 불복적 태도를 일삼은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인위적이며 고강도인 학내 강제수용태도를 비롯한 한 이후 서울대 내 다수의 여학생들이 비슷한 불복적 태도를 일삼았다고 호소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2. 대학 내 교수라는 직위는 학생들의 학업과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와 권위를 가집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유일한 직업을 활용하여 여학생인 학생들을 상대로 인위적 불복종과 성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여학생인 학생들 등등은 인격으로 여기지 않는 철저한 불인식과 왜곡된 권력남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여의 같은 행위는 학생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여 고강도인 학내 행위로 법에 의하여 일괄하게 조사하여 상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3. 교수에 의하여 학생에게 불복적 태도가 발생한 경우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에 드러나기 쉽지 않고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교수가 학업과 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영어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014년 백악관 조사 결과 대학의 불복적 신고율은 12%에 불과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고발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모래리 피해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도 받게 되고, 2차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교수권 권 침해자들의 용기 있는 진술에 귀를 기울여 판결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피고인 장석진은 피해 여학생들에게 진상어린 사과를 하고 저임금 과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동료 교수와 남발 재기들에게 권위자를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행을 할지 위하여 영어를 무언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용기 내어 고소한 피해자들이 더욱 억압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대학 내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며 모욕과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5. 최근 교수에 의한 불복적 태도기 격화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121여명의 불복적태도수. 여섯 일간 3개 법원은 비롯한 많은 기관들도 본 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늘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외 내 불복적 태도의 예방과 대처에 이질

생활호 참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매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연 16조 원 가량,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구조 장비가 없어 국민들이 304명이 수선되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목격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이 생활호 지원 수송기 길어고 지체가 이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40이 열이 생사사 결단 생활호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면 노대해 3 일 또는 누구를 위한 안보의의의? 더욱이 생활호 참사 당시 아무런도 줄모지 않았던 동맹국은 만원만 방산마에의 안보실 보 여주었습니다. 생활호 이후의 지원은 이루어지려면, 이 거대한 모순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 발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안과 일치할때 군비를 줄이면 매력적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에 총 대파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국과의 군비를 제외한 수재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일치하는 이유는 도시의 군사비 결함이 될 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신뢰하지 더 많은 군비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처럼 동지 군비결함이 적발합니다. 한국도 이들에 지지 없으면 군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끌어야 첫 중간 국가 한국은 한미일 국제동맹처럼 넓은 대근근도기 아니라 평화의 원칙, 신장과 공동안보에 기대심을 발 위해야 합니다. 최근의 한반도, 특히 핵사 논란은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이 대권 경쟁과 경제적으로서는 매우 밀접하게 상호의존하나 군사·외교적으로는 갈라져 있기때 이서 이 패러독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GDP 대비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전 세계 15개 중에서 2014년 20개국 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직후였던 1990년대 8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냉전기 매년 전 세계 군사비의 50% 정도 지출을 위해 지출했습니다. 2015년까지 미국은 전년 전구 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한 일본의 재정년생명목표(MK20)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미라크와 이사나 5년이라는 두 번이 군 생명을 지르는 동안 그 약속은 결코 지키지지 못했습니다. 연 4월부 역시 전 세계 평균치에 비해 2014년까지 120 대의 0.25% 국방의 군비생명원 5000을 생권해왔다. 국민들이 지출이 부하로 그 부담 상당 한 탓에 군사비에 한 약속도 어리게 했습니다. 2015년 10년 재정을 제시한 그 군사 생명도 6000이라는 군사비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정치 개혁은 당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 증가의 상당 부분을 뒷받치고 있는 아시아, 그 중에서도 최근의 군사 상황 에 놓여 있는 분쟁지역인 한국에서, 45%의 세계군비지출에 많은 양한인 10만명이 아사라 변 화를 직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하는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년, 군사비 지출 은 40%가 20%를 줄여야 인 수 절반이 시민들에게 다스려 군이 생아입니다.

3. 우리는 영구화 해소, 사회 안정망 확충과 더 이상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군사비를 축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정된 국가 예산 노선이 군사비가 1.5%인다는 것은 다 른 지역을 개발 할 이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비 축소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시민들이 일괄

<기자회견문>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 '전례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월 21일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초등학교생도 상영된 영상을 비공개 처분한 국방부의 결정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처분의 취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4년 7월 강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수도권위성방위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 교육 시간에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공포정치로 영육된 북한'이라는 것으로, 국방부는 시민사회의 영상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국방부의 영상 비공개 처분은 사회적 통념과 상식, 그리고 법률에 어긋난다

초등학교생에게 상영한 영상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동양 언론 보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롯됨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전하철 의원은 해당 동영상 제출을 요구하며 '초등학교에서까지 상영한 영상물이어서 자료 대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영상 자료를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임내환 의원과 이춘석 의원 역시 국방부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초등학교생에게 상영되었던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완전히 어긋난다. 어떠한 법적 기준과 근거로 초등학교생도 본 영상에 일면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지도 않다. 게다가 '청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문건을 통해 해당 영상을 비롯 국방부가 제작한 5분 길이의 동영상 34편은 국방TV를 통해 상영되었는데, 이는 일반 시민도 시청이 가능한 채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국방부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말단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표명해하는 국방부의 상충적인 행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원칙이며, 비공개할 경우라도 시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의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안보교육 영상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초월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복합인권침해에 관한 해당 영상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의 송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재미가 이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역시 주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적 보복과 레코서는 북한의 강경 발언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단행해 왔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제기하며 관련 명상을 운라인으로 배포까지 해 왔기 때문이다. ‘상대적’ 시점에 관해서만 북한의 행위를 우려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정부 비공개를 일한 할 수 없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아직 군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방부의 ‘나라사랑 교육 추진지침 수정’과 ‘영양교육자료 심의위원회’ 운영은 시대적관심과 일치 과정일 뿐, 군 안보교육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영상을 시용하도록 허용한 군 책임자와 해당 자료를 제작한 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었고, 해당 문제가 관련한 직접적인 사과나 이와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에 대한 개별 등 어떠한 실제적인 후속조치 역시 없었다. 심지어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시유 공을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별다른 이 영장은 초등학생을 물론 성인인 군 일반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다. “법부는 장병 전용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초등학생용으로 잘못 사용된 것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행정심판 거부 답변서는 해당 영장이 대외기 일거나 문제가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직권 영장은 김정은을 ‘악마 악역’이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북한 정권이 ‘최고 손업’이라고 지칭하고 ‘저를 숭배’라고 명칭하게 여기고, 권력자에 대한 매우 심한 개인적 언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력남용 상황에 대한 역사 교육 ‘비밀지 교육’을 주는 장면, 김정은을 향해 사대사치는 악한 등 장엄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고, 그 표현도 ‘정실적’이라고 인식되어 공장에 대해 일어난 문제에 걸린 대안들은 모두 삭제하고 있다.”

이후 해당 영장을 시청과 같이 ‘법제아법제위원회’ 이혼시 여론권 “장병들한테도” “이 사대당 영장은 자기도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무용군 의원은 “사상이 추종하고 권력이 추종하다는 것을 교육’하면서 사금의 영장은 초등교육용으로도 사용할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3월 국방부를 요청한 정보기관의 안보교육 교재에 대해 일련성 보완성 관련 적정성을 확보시켜야 한다는 것도 지적을 해 왔다. “이것도 불구하고 국민” “외교교육을 도입하여 내국 시호명칭을 생으로 주지는 충분하며 군 안보교육에 대한 교육에 역시 불만도 있기 때문에 정보중심이 어렵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단” 이는 사적영적으로 일방적인 제작에 식 1기 않는다.

군 안보교육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정보공개이다

국방부는 안보교육 방향의 개선은 해당 입장을 공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픈 계획'이겠으니 시민사회는, 학부모도, 교육당국이든 더 이상 알기말부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국방부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비공개를 주장하여 문제의 영성을 끝까지 은폐하려는 것에서부터 국방부가 자신하는 '오픈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며 안보교육 나아가 정훈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성을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없어서 지적한 사실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국방부의 부당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이번 심리가 국방부의 삼습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 4. 20.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하여 세계일치를 사극민주로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적 약속이 담긴 결기이다. 실패하는 일로. 외교 전략, '평화'가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동일 전략은 사실상 미국의 해인주의에 한지리를 내주는 것에 불과하다. 분단 70주년, 이제는 '제'의 개혁의 힘으로 풀어갈 때이다. 15년 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최악의 상황을 없었던 것처럼 남북 비방과 국어전쟁을 중단하고 교류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라에 행동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1177년 혁의 수요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쟁을 버리고 평화를 역모해, 심장을 기억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불으로 비연하여 증명하는 위안? 피리시 갓자 15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꽃이 힘에 피었습니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일당기고 올바른 역사정산, 역사교육 이행하라!
- 일본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집단지위권 행사 중단하고 비핵 방위협력 지원 개성 중단하라!
- 우리는 여성폭력, 인권유린 자행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제 117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및 평화물민드는여성회**

[선언문]

2015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경기 선언문

2015년은 반세기 이상 피조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온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세계 대전 종전의 햇살 또한 70여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경이로운 100년은 새로운 모험을 위하여 앞장섭니다. 2015년은 또한 '여성 평화의 100년'을 위한 선언문과 함께 100여 개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1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1 영원적인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인 여성가족의 재건을 돕는다.

1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1 전 세계인들에게 무고한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핵테러를 철폐할 것을 호소한다.

1 여성과 소년·소녀에 대한 전시 폭력을 금지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모에었던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청약을 바로 세운다.

1 군비 경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의 복지과 환경 보호에 사용하도록 한다.

1 국제법에 따라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확대시킨다.

1 세계평화구축의 주축으로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전 세계인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이 선언은 2015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5년 8월 15일 100일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100여 개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선언은 2015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5년 8월 15일 100일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100여 개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이 경이로운 '100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도시가 100일이 되는 해입니다.

Whereas the year 2015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Korea and also the 70th year since Korea was divided by outside forces;

Whereas the tragedy suffered by the Korean people, the only nation to remain divided as a result of the Cold War, can no longer be ignored by the global community;

Whereas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most militarized and dangerous conflict areas in the world and the symbol of Korean division;

Whereas peace & stability is an essential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Whereas the year 2015 also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81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hich calls for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peace process' initiatives,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and in peace building;

Therefore, on this day, May 24,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we women, from North and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are walking to invite all concerned to begin a new chapter in Korean history, one marked by dialogue, reconciliation, mutual understanding & respect, and peaceful co-prosperity. As such, we are walking to:

- Call for the official end of the Korean War by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as stipulated in Article 4 Paragraph 3;

- Help reunite Korean families tragically separated by an artificial man-made division;

- Lessen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lift sanctions that harm innocent civilians;

- Deter wartime violence against women, children and young people by the "invaded nation" who received a red society label (RDP);

- Reflect funds donated to the arms race toward improving people's welfare and reducing the carbon footprint;

- Amplify women's leadership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 Challenge the world to support Korea's contribution to a world of peace & co-prosperity of building world peace.

We hereby declare our commitment to support the wishes of the Korean people and all people of conscience around the world to work towards peaceful reunific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a lasting peaceful security in Korea and the world. We working together with Korean women of all

levels, particularly from the grassroots, the International Women's Walk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mindful of Korean women's right to determine the future of a peaceful Korea, will continue its work until these aims are fully achieved.

1.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획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한미 양국은 방미 계획 재검토하고 대북정책 전환에 착수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12월부터 2016까지 내딛고 있는 방미 계획은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계획의 방미 계획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접근 정책 변화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공동성명(2014년 12월 24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계획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원시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북미공동성명 방미 15주년 기념행사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남북관계 정상화에 의하여 2015년 12월 15일 요양을 준비하고 미국 방문을 강행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보다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공동성명(2014년 12월 24일)에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정부 역시 어떤 관여성(성명서)을 제공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최근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최근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최근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최근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적성국가에게는 일정한 국제 규범의 한계를 통제한면서 스스로도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를 추켜세워 왔다. 그러한 처리가 어느 정도까지도 정당화받았는지 확실 할지라도, 그 타당하다는 것도 미국의 책무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결국군 요리는 '모역의 권태'로 대표되는 한미 적국의 대립정체도 적국의 태변의 후방의 의도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려는 미국의 정책은(1)수출 금지 확대에 의하는 고조되며(2)선언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신상국이다. 한편도 분명 재료가 원자력 국력이다. 한편도 하위체에서 총칙으로 입적'의 국력(정)과 신상국은 단락이 지어진다.

그런 후 수 조출이 불리. 후-수신(입)으로 국력이다. 그리고 그에 후방도 신상국(정)도 한 역할(정)으로 해오는 원천을 국의 책무(정)로 한다. 국력이 내향(정)에 입적'의 대북(정)으로 원자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2016년 6월 10일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국력(정)으로 국력(정)이다.

[기자회견]

대북정책 전환,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우리 여성분부는 재건 통일전선의 토대를 민족공동행사 정착을 주장합니다.

경제 지원, 문화 지원등 많은 공혜는 남북 공동 번영에 기여할 뿐임에도 각기 위한 민간차원의 발걸음이 끊어졌고 지난 남북관계 개선은 오히려 6.15 공동선언 이후 더욱 위축되어 온데 공동행사는 6.15에서 이전을 한 민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걸음이기 만큼 노력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부는 지난해 11월 31일 재외 여성단체들이 모여온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로 공동행사는 6.15에서 이전을 한 민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걸음이기 만큼 노력했습니다.

재외 우리 분부는 특히, 특히로 조건 없는 공동행사에 대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6.15 선언을 6.15 민족공동행사의 시작으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로 공동행사는 6.15에서 이전을 한 민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걸음이기 만큼 노력했습니다.

6.15 선언이 6.15 민족공동행사의 시작을 위한 첫걸음으로 여겨지고, 6.15 선언을 통해 남북은 민족공동행사의 시작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준비 작업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남북으로 연결된 6.15 공동행사의 시작을 위한 여정이 6.15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으로 연결된 여정은 6.15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분부, 발간계획도 없습니다.

11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도 지원으로 적어질수록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여정은 6.15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1 남북의 공동행사를 위한 여정은 6.15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으로 연결된 여정은 6.15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부는 남북공동행사의 시작을 위한 여정은 6.15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으로 연결된 여정은 6.15 선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6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여성분부

다시 구렁이 바위와 그 모든 썩어가는 생명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구렁이 바위에 다시 기슭을 묻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곳은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숨결, 평화의 기가이 채워졌던 그 구렁이 바위를 우리는 이제 다시 걸을 수 없습니다. 경쟁 주민들의 삶이 새겨져 있던 그 바위는 이제 거센도 달아져도 길었습니다. 작은 영명들을 품고 살아나던 생명들도, 불운과 광풍에도, 이름없는 연산호 군락도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국가 간보리는 결국 아래 주민이 행복로운 삶이 같잖아 먹거리고 슬픈 경쟁 바위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 생명들을, 그 모든 생명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해군기지 공사, 그 모든 공영마다 기록한 거짓과 폭력을 바로잡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철사, 채주해군기지 공사 가 숲과 문예원을 불합한 채로 마무리된다 해대기도 그것은 공이 아니라 채로군 갈등의 시작일 뿐이므로, 광역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평화로운 역량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는 한 걱정이 멎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영국복합형안방미방'의 이름도 사라지고, 감행어들은 물론, 채주도 전체를 복원적인 군사간호기지로 만들려는 또 다른 거짓과 폭력이 이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평화와 생명을 향한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의와 착이는 뚜렷뚜렷 새 길을 찾아가길 것이기에 그 길 위에 선 우리는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채주해군기지는 감정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비준, 남북 대결이 격화한 신 냉전적 대결 구도가 구조화되는 현재의 한반도 및 동북아 긴박상황에서 가장 해군기지 건설 유단이 갖는 정치 외교 군사적 장애적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애 기지에서 감정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와 반대는 목소리가 높아져 많은 눈빛은 더욱 뚜렷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감정생명평화대행진단 한국 대표격인 만기지 평화군축운동으로 발전시켜갈 것입니다.

말씀 평화의 이름으로 결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채주도민과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해군기지 반대 감정주민 투쟁 4000명을 가담하는 2015 감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3,000명을 가리는 감정주민들의 긴장한 외도에 함께하는 3000명이 해대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힘을 모아 감정주민들이 손을 잡아 주세요. 원된 평화로 가는 사람이 다, 생명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해군기지 반대 감정마을 투쟁 3000명, 2015 감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연서 100만 선언단 일동

<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전후 70년, 일본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정부
정(관원법안(안보법안))을 채택하여 역사에 단숨을 던졌다. 8월 17일 참의원 평화안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3월 19일 새벽시간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참의원이다기 강행 채택
으로 법안이 심의되었다. 2015년 아베총리 즉 '엘리치어 오베마' 대통령에게 약속한 '관원법안
올해 여름내 헌법'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제 일본은 법에 따라 미국 등 '맹목한 관계국'에 대한 무차별공격이 발생할 경우 등 '존엄위
기시태'라고 인정되는 순간 사태가 발생할면 시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헌법5조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였던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당당
하게 변천하게 됐다.

이 사태를 둘러싸고 일본의 결국 각지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솟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각 자에서 거리에 나와 또는 SNS를 통해 같은 반대의 의견을 표현했고 특히 학
생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변히 일어났다. 그럼
에도 이해당권은 헌법을 규탄하고 많은 일본국민의 의사를 직결하며 강행을 강행했다. 일본
의 민주주의가 산산 조각되고 흡사 독재정권이 기세를 떨치는 듯하다.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의 적인식자에 범죄를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을 정면로
일본이 대외 전쟁을 할때 폭주하는 직공의 사태는 거의 충격적이고 분노스럽게 느꼈다.
일본군의 분노해가 되기 전후국까지 철저히 인권을 고려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
구기 접수시 않고 추방은 전쟁의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아픔이 겪을수있는 일본 각종 일본
은 다시 전쟁을 하고 희생자를 만들어준다.

전후 일본은 전쟁국정에도 자국의 보호대권 강화전쟁을 만들어 공격을 가하지 않는 '원칙이
다대' 보기가 시급해 수어했다. '반면 전쟁과 식민지화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아' 등
에게는 일본정부를 위한 국제 구호에 재익을 취해왔고 많은 아픔자들은 '살아 눈을 구입
다. 일본이 '평화'는 수단은 희생자 권익을위한 보호를 후 보호활동, 평화결사단, 인적헌법은
권력으로는 자기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다에 채택되어서도 반가 이해 : 자유회
를 통해 평화주의 기본적 부합을 공하는 일본정부의 모습은 결코 책임을 갖지 못했었던 '역
변(변)'에서 손을 떼어 주. ('위'가'공통이 재발한 잘못없이정의를 직(직)하게 확인시켜주고
었다

/ 전국역사교과모임 / 전주 평화의소리신간편집위원회 / 정역당 여승회원회 / 초등학교외 방학하는
 시범을 중앙연합 / 지구출판리는청주여성모임 / 전주여성회 / 천안평화의소리중앙편집위원회 / 태
 평장간행의제자모임추진협의회 / 통일여성회 / 평화여성회 / 평화나미네트워킹서울/경기/인천/대구/
 부산/충청/충진/전주/제주 평화나미, 서울대평화나미,중앙대평화나미,서울연합평화나미,원혼연합평화
 나미,영리대평화나미,숙명여대농악나미,김곡대분리불교나미,서울여대슈어송자이교과대평화나미,성신여대
 평화나미, 나하가 및본교 '원인부' 운영 대상에 나하는 평화나미, 불교평화 평화나미 / 평화나미대전
 행동 / 과남여성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대연구소 / 워안여성회 / 협천여성회 / 화성여
 성회 / 후사단 / 대전여성단체연맹 / 대전여성회 / 대전여성청년회모임 / 대전여성상생모임연대 /
 대전청화여성회 / 여성민권이동 / 불후의여성비움 / 성천여성회 '문' / 쌍암학회복지회 / 군현서민
 연담

[성명서]

일본 70년, 관동군이 30년, 헌법재판소가 4년 4개월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앞당겨라!

오는 8월 30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적위'가 위헌이며,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임을 선고하고, 한국정부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처이행을 명령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새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광복 70년에 이른 오늘까지 여전히 진정한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2006년 7월, 109명의 피해자들이 생애 마지막 호소 수단이라 여기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그 판결이 내리지기까지 절반 가까이 온 피해자들이 눈을 감았고, 울려만 들어서도 벌써 여덟 분의 할머니들이 사망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25년 동안 191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이제 47명의 생존자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언제까지 일본정부가 해결책을 만들어 내오기를 기다리는 '일본바라기 외교'를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지행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의 성노예로 만든 것도 모자라 그 범죄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일본정부의 뻔뻔함이나 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를 방관하고 해결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능외교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여덟 차례의 한일국장급 협의를 이어왔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의욕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후 70년을 맞아 내놓은 아베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어도, 목적어도 없이 "전시 하에서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과거를 이 가슴에 연재까지니 새긴다."는 뻔뻔한 입장만으로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기망하였다. 돌아쳐보면 일본정부의 작태는 지난 2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반복이었다. "군은 관여하지 않았다." "군의 관여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강제성은 있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아시아여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도의적으로 민간인금을 통해 아시아여성국민기금을 만들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법적 책임도, 도의적인 책임도 다했다." "인신매매 희생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늘어놓은 말마따라 교묘한 범죄 부인이고 책임 회피였던 것이다. 그리고 때전 70년에 이르러 내놓은 것이 아베담화였다. 이제 수많은 일본군문서와 피해자들 그리고 당시 일본군 병사들의 증언 등으로 일본국가의 책임이 확인되었고, 법적 책임도 분명해졌지만 임기응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피하기며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인도주의적인 국가로 위장하고,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민간의 책임으로 돌려며 기망해 온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 말장난 담화를 납득 받아 연으며 미제사형적인 관계를 운운하고 있다. 식민지와 침략, 반성과 사과라는 단어는 들어갔으며, 주어도, 대상도, 목적어도 없이, 미국을 위시한 강한 나라에게는 감사할, 한반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식민지배 책임을 부정한 아베담화에 대해 외교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은 다시 멀어져만 갔고,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회의 대상에서도 배제당하는 외교적 굴욕을 당했음에도 말이다. 집권 이후 '위안부 문제 진정' 등을 한일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더니 부트레 외교, 실리외교를 틀어막으며 마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저 실리외교에 걸림돌에 불과했던 것 마냥 서둘러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부디 이 우리의 이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광복 70년, 한일조약 50년, 현재판결 4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무능 무대책 외교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도쿄에서 열린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와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재언(내용 별칭)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 및 배상, 재판 방지 조치 등을 즉각 이행하라!

2.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정부에게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아말로 진정한 실리외교임을 인식하고, 현재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에게 아시아의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요구한 재언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도록 요구하라!

아울러 현재판결 후 지난 4년 동안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피해자들에게 밝히고,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방지하지 않고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라!

3. 지난 2014년 6월,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했던 아시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재언을 제출하면서 일본군의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 53점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문서들에 대한 검토도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후 일본정부의 입장과 아베담화들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양 정부에게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조사하기 위한 한일합동 시민단체와 정부 합동조사연구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라!

4. 한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지적했듯,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은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이며,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도 모두 고령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묵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명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제인권법칙과 보편적 상식에서도 확인된 일본정부의 의무, 즉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판방지 조치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수단과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라.

2015년 8월 28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사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세계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외전화/한국여성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여성위원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 청년나비

[기차회견]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체제의 프레임타입인 헌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대형화 확정일 10월 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초저 위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행과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빗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지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지신들의 기득권을 시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를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제3장 제2절 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월 16일 발족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며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 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시표를 방치하고 유권자들이 역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시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년 9월 21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행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 발언을 '솔직하게' 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 운동의 솔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손비인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왜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매끄러운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에 많이 넣는 순서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원에 의해 뒤락하며 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피로몬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행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전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참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죄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공복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

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축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공든타입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때리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명동행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년 9월 21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선언문]

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

평화와 인성을 기원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분단된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호소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태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외면하며, 때로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과 군사적 비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상처받은 남북분단의 척박한 환경을 더 이상 유지시켜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돌보는 여성으로서, 귀하고 소중하게 태어나 자라고 있는 차세대에게 우리 여성들은 그들의 미래에 생명과 공존, 평화와 행복의 환경을 약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병들어 지치게 하는 척박한 삶의 환경, 특히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파괴하여 행복한 삶을 혼드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 군사적 행위도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평화와 상생 그리고 포용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조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 동안 뜻을 함께 해온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제안합니다.

-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안정하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
-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청정한 환경과 생태계 속에서 자유롭게 만나 댈 수 있게 DMZ를 개방하자.
- 남북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유라시안 경제를 살려 나가자.
-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오랜 70년간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
- 전쟁과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자.

2015년 10월 14일 오전 11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호소하는 여성 1,000인

[기자회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뒤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 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한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도를 국정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은 2014년 1월 13일 당정협의회에서였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회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 무어곡절 끝에 교과서 시장에 나왔지만 학교현장과 학부모들로부터 싸늘한 대접을 받아 재택률 0%대에 이르렀다. 이에 놀란 정부는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히는데 이어, 이마저 못미더웠던지 이에 국정화로의 전환방침을 밝혔다.

교회사 교과서 파동 당시 외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였다. 뉴욕타임즈(NYT)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설은 아베 총리가 침략역사를 회색시키는 우경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압력을 가한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 역시 "한국민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이어 NYT 사설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재강침기 재국 장교를 했고 1962년부터 79년까지 남한의 '군사독재자'였다고 지적하였다. 침략을 미화하는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전쟁범죄자라는 것과 교회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제에 협력했다는 배경이, 한일 양국에서 '정체기 역사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실해 기초한 서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 등을 국정제도의 전환 필요성으로 내걸었지만, 외국 언론은 친일-독재의 미화내지 은폐가 국정제로 전환의 본질이라고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사 교과서 파동 당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국정제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며 국정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의도연구원어 펴낸 보고서는 "국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가 일반적"이라며, "국정제보다 김민정제, 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고양할 것"이라고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문까지 인용했다. 보고서는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 교과서 '한국근현대사'가 국정 교과서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약의 여러 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정부가 국정화 여부를 9월 중에 발표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9월초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현장 역사교사 선언과 서울대 역사학 전공교수의 의견서 제출을 필두로 독립운동후손과 원로, 학부모, 시도교육감, 시의회, 각 대학 교수, 법학연구자, 예비 역사교사, 학생, 해외동포 등 지금까지 총 6만 여명이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의 사교백을 획일화·정형화시키는 교과서 국정화가 다원성·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 이 각계각층의 선언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론(公論)을 무시하고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10월 1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성명서]

심학봉 자진사퇴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오늘(12일) 오전,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고 사퇴를 지일미일 미루다,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현행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심학봉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아닌 '사회승인안'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는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장일지도 모르고서, 정치인의 성학봉,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만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0. 12.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 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1. 오늘(10/19)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전면적으로 봉쇄되는 상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억순환을 막기 위한 저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핵과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3.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여주인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4.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많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막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5.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상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제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

는가?

6.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건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끝.

* 어덱스저항행동은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현재 어덱스저항행동에는 국제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어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http://stopadex.org>)

* 영상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 전시회'>
<https://youtu.be/Xly4andVSDA>

[성명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 불허를 철회하라! 민간교류 활성화 합의를 이행하라!

통일부가 22일 개성에서 예정되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 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을 불허하였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불허하였다'면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협의하고도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왔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각계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축진하는 게 불가능하며, 오히려 불신과 대결, 군사적 긴장만 높아질 뿐이라는 것을 지난 8년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남북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이 미담에서까지 불허를 거듭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6.15남측, 북측위원회간 교류에 대해 '정치적 성격'을 운운하며 불허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선별적인 규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계 교류에 대해 정부가 '정치성'이라는 사외적 잣대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처리하겠다는 선언에 다른 아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위원회간 접촉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성의 있게 노력할 것인지를 가늠 할 시금석이다

통일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중단하고 지극이라도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8월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 부당한 통제와 불허조치에 맞서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0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기자회견]

침략 역사 사죄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아베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 정상회담에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아베 당회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감 표명을 일체외 모든 과거사 문제를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강행 처리를 전후하여 자위대의 대북신재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니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 재출병 관련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할발도에 자위대가 다시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여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죄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일군사협력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협조해 왔는데, 이는 침략전쟁의 피해국으로서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베,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피해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 재출병에 협력하는 한일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대현, 민족문제연구소, 항일독립운동기단체연합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한인족문둥단체연합, 단군인족명화통일협의회 등 민족단체,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연구소 백기완 소장, 이장의 한국외대 명예 교수, 홍희덕 전 국회의원, 한홍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천해 사회학명예 교수의 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단체와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2일에도 항의 기자회견 및 행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이베 총리 방향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 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회가 공멸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이베 총리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타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이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이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할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켄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집진식 한국 중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식과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음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우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도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과서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조하는 것도 오자와 학교인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 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공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우장에 박차를 가하는 시국,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에서 시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우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우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명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여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수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우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축노동자추진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과학포럼연대의회,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당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학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한평화여성회, 민기업당선수후원회,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금(재단)추진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위원회, 민족정신수호협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연국회의, 민주인생평화통일추진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전산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반핵평화실천연대, 배달공동체, 핵무산국인도, (사)산재산재호선생기림사업회, (사)방랑어우행선생기림사업회, (사)윤봉길절친회, 사할리명회, 사회당연대, 새로하나, 세상물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개척자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법제통일추진회의, 예수실기, 작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고려연대, 전국농민의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서, 전국민연합, 전국여성농민의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연성, 선량한대통령이살한국민행동, 친대일노동대익, 친대일재단, 초국통일법민족연합단체본부, 참어연대, 통일실

장, 통일외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정규노동센터, 한국전보연대, 한국장애인대중재활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국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통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연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농구를 위한 범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우리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2001년 9.11사건 전후, 미국이 주도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은 9.11 사건 피해자 수와 비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채 원천이 실패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극단주의 무장집단이 등장했다. IS라는 극단주의는 잘못된 테러와의 전쟁이 나온 사생아이다. '테러 근절'을 주장하기 전에 왜 범법한 사람들이 극단주의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유행처럼 도입된 '테러방지'제도는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고 통제하는데 이용되기 보다는 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며, 국가권력의 남용과 인종적 편향으로부터의 예외를 구조화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왔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나라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극단주의에 협력하는 내부세력들이 성장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파리테러'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파리테러'를 계기로 파리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의 악순환의 원인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취해온 대외정책, 특히 테러와의 전쟁 지원 정책 등은 성공했는지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 극단주의에 자양분을 제공할 불평등과 차별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이미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법과 제도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정전 상태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와의 전쟁' 이전부터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예방하고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추적할 무수히 많은 제도와 기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9.11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무수히 많은 '테러방지'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수준이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법외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추적하는 제도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만인권약법으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

인법, 선박위해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 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공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 결과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권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육안공격행위 등 국제적으로 공조가 요구되는 범죄행위들은 모두 국내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법위요소를 통합하는 통합방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도 유사한 취지의 제도다. 각종 인질 사태 폭발 위험 등에 대비해서는 경찰특공대를 두고 있다. 테러자금조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특정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합법목적등자금규제법, 외환관리법 등이 촘촘히 제정,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통신기밀 보호와 사이버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정부는 정보통신기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조항 등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사이버 사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셋째, 국가권력 남용 방지제도 마련과 불투명한 공안기구의 개혁이 우선이다.

한편,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명리히 적용되어야 할 형법상 내란죄/내란음모죄는 '내란음모는 없었으나 선동을 있었다'는 기묘한 논리로 특정정당을 해산하는데 남용되어 국제사회의 지탄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의 인권개신 권고 때마다 단골예뉴로 등장한 지 오래다. 경찰특공대는 노동자 파업진압에 투입되었고, 국정원과 군의 심리전단은 인가에 개입하기 위한 불법 장치들 등에 투입되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국민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불법으로 해킹해내용이 폭로되기도 했다. 검정은 SNS를 임의로 감청하는가 하면, 자국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사의 기차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입자 정보, 위치정보 등을 영장없이 수집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제도는 반정부인사의 입국불허나 추방에 남용되어 왔는데, 특히 아사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미주노동자나 인권운동가들에게 처벌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넷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명요하게 위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정의가 불투명하고 지의적 일뿐더러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도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외에 제출된 일부 테러방지법안은 단순히 '테러행위'를 "사상을 살해하거나 시권이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 혹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권력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테러행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 법안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각종 개인적/조직적 국내외 범죄행위들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쳐 '테러'행위에 대한 새로운 정

의를 내리는데 실패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각종 입법안들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고 군경을 동원하는 등의 집행기능까지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테러단체를 지정할 권한,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기록·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을 영장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하지만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 예산,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의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차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다.

우리가 IS 등의 공격 가능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간파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이나 군경이 정관안보를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세공작을 벌이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테러의 공포를 과장하고,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절대적 안전을 달성하겠다고 강변하면서 비민주적 공권력의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미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추적 감치는 무수히 많다. 다만 민주적 통제가 미치지 않는 밑에서 부패와 부실로 얼룩져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반면, 사람이나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과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단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세월호 침사 당시 해경은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특수구조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최신 음파탐지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고, 박 대통령은 인명구조와 관련없는 테러전담부대인 해경특공대의 파견을 지시하는 해프닝도 연출했다. 그 결과 '피라테러'에서 희생된 인원수 두 배 이상의 무고한 인명이 '세월호 침사'로 희생되었다.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국가안보에서 시민의 안전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책임위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미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열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지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2015. 11. 30.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성명서]

정부와 경찰의 조계사 공권력 투입과 민주노동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 중단을 위한 각계 여성단체 규탄성명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무차별한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농민이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병상에 누워있다.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들이 모여 어서 깨어나시기를 절절히 기원한다.

노동계각 반대. 국영학교과서 반대. 밥알용알수입 반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차단되고 도리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시민사회계에 대한 탄압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소요회'적용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거나 IS에 비교하며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시절 적용되던 '소요회'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권이 스스로 독재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위험국이 되었다는 박근혜대통령의 말에 '독재방지법'이 없어 독재 위험국이 되었다고 맞받아친 어느 언론사의 기사제목이 딱 들어맞는 참담한 현실이다.

오늘(9일) 경찰은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동 한상균 위원장을 공권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고 조계사 부근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불교계의 반발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이 무리한 공권력 집행을 하려는 의도는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투입과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노동자 서민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노동법 개악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12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로풍토는여성회, 한국천주교교사수도회장상연협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도),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남양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합천여성회, 화성여성회, 현안여성회, 관악여성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진해여성회

[기자회견]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 내명개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합의 규탄한다!

어제(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그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측에서 10억엔 출연,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을 합의,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응봉새 외교부 장관은 소내상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 사회와 배상을 완전히 도회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소녀상마저 철거기로 한 굴욕적 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이 대신 발표한 어베 총리의 입장은 오래전 고노 담화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핵심적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교과서 왜곡 등 식민 지배와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국가적, 제도적 움직임이 전면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총리 개인의 추상적 사과는 역시 왜곡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는 토크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해방이후 제시한 것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라 가해자로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 정부가 재단을 설치하고 몇 톤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변偿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적으로 배상하고 역시 왜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고통속에서 요구해 왔던 해방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며 고작 '출연금'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50년전 3억엔의 '축하금'으로 식민범죄 청산과 법적 배상을 잊바꾼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이어 10억엔의 '출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법적 사회와 배상 문제를 도회시한 이번 야합은 반역사적 복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으면서도, 이 같은 함평미달의 입장에 동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한국정부의 굴욕적 저지세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관한 한일정상회담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언급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일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 합의가 오르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증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살기와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출세 야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봉합과 내일 면회부 부여가 한일 군사동맹 구축,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가속화시킬 것은 물론 보듯 뻔하다.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가능하다고 발인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이나 그 발인 마련을 위한 한일간 중장급 군사회담이 수차례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것에서 알 수 있 듯 저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움직임 또한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모두 과거 침략 역사를 되풀이 하는 한미일 태권동맹 완성과 한일 군사협력에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부담을 종속 아합으로 무회하여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태권동맹 완성을 향해 전면적으로 나아가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법적으로 사죄,배상하라!
박근혜정부와 이대 정부는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외면한 종속 아합 책지화하라!

2015년 12월 29일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민가협양심수우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후회기념(다해연)대회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연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물고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우리겨레!나디기운동본부, 새민평화포럼, 영인군대를피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위원회, 예수살기, 자주통일대민주주의를위한고려어연대, 전국농민화흥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학생노동유가족협의회(새), 전국열린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연등,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당정, 통일맞이, 통일여론,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어실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인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통일독립운동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안생연합

【 부록 】 2015년 발간자료 목록

2015년 발간자료 목록

발행일	자료명
2015.05.24	2015WOMENCROSSDMZ 국제여성평화회의
2015.10.29	UN 안보리 결의안 1325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5.10.31	"여성, 광복70년-분단70년을 말하다" :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분단 경험 역시 말하기-듣기 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서 ☘

기본 사항	이름 (단체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번호	이동전화	
연락처	집 주소		
	집 전화 (지역번호)	우편물 받을 곳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직장주소 (우편번호)		
	직 장 명	소 속	
회비 납부 (CMS자동 이체)	전자예금	직장전화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이 체 월	<input type="checkbox"/> 10원 <input type="checkbox"/> 25원
회비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일금 원/월)	
	동생/특별 회원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감동해결 <input type="checkbox"/> 민정안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20__년__월__일		

후원계좌 : 38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6년 제20차 평화■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발행일: 2016년 1월 29일

발행인: 안김정애

발행처: 평화■만드는여성회

